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2월 21일(음력 11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557 호

신도·사찰 사회복지활동 '의무'

조계종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입법 예고, 연구·교육기관 설치도
사회복지재단이 '관리 감독' … 논란 예상, 공청회 거쳐야

앞으로 불자들의 사회복지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역할도 강화된다.

조계종은 12월 12일 교구본사 및 단위사찰의 관할 지역내 복지활동을 독려하는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을 12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불교사회복지진흥법은 종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불교의 자비정신에 입각한 사회 활동을 하고 종단에 소속된 교구 본사 및 단위 사찰은 관할 지역내 사회복지 활동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불교사회복지 위원회 및 연구기관, 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안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스님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불교사회복지 종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불교사회복지가 사회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사회복지의 방향이 개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라고 본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으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사회복지법인 단체 및 시설 지도 감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단체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등 사회복지 제반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이는 현재 종단 사회복지 업무가 정책 업무는 사회부에, 사무는 복지재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편해 일원화 시킨다는 것. 법이 시행되면 사회복지법인이 종단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종단 복지정책까지 총괄할 수 있게 돼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법안 중 '종단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및 제반 활동 관리감독 기능'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항목은 앞으로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과 공청회를 통해 상당부분 법안 개정의 벽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서 등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해줘야 한다. 종단에서도 권리와 의무 모두 담보된 법안을 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종단 등록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재단과 복지시설 상호 연계하는 측면이 강하며 불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불교사회복지를 종단 전체로 확산시켜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사회복지 진흥법은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후 공청회를 통해 필요에 따라 법안을 조정하며 기획실과 법무위원실의 법안 검토를 거쳐 종회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종회에 상정된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폭설 속의 산사 12월 들어 3주간 호남과 충청지역에 내린 대설로 농민들이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연일 내린 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산사는 교통두절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폭설이 내린 12월 17일 공주 마곡사 경내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스님과 신도들 모습. **마곡사=박재완 기자**

조계종 前 전계대화상 범룡 스님 원적

12월 19일 동화사서 전국선원수좌회葬 엄수



前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영당 범룡 대종사(사진)가 12월 15일 오후 3시 27분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92세. 법랍 72세. 관련기사 3면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열반송이 다 뭐야!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라고 임종게를 남겼다.

영결식 및 다비식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일체의 조화나 만장을 사용하지 않고 검소하고 간결하게 19일 오전 11시 동화사에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수됐다. 또 다비 후 사리수거와 사리탑 조성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1914년 평남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29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4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스님은 수덕사 해인사 범어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으며 <화엄경> <능엄경> 등에도 능통해 선·교·율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왔다.

동화사 주지,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조실, 조계종 제1대 원로의원 등을 역임한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까지 동화사 비로암과 충주 석봉사 금봉선원 조실로 수많은 수좌스님과 후학들을 제접했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인기 2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 관람객이 가장 즐겨 찾는 문화재는 황남대총금관(국보제191호)과 반가사유상(국보제8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바일전시안내시스템에 의한 관람객 동선 추적과 관람객의 북마크를 집계해서 분석한 결과를 12월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위는 황남대총금관, 2위는 반가사유상이었으며, 불교조각실의 약사여래가 그 뒤를 이었다. 전시실로는 고구려·신라·백제실과 불교회화, 불교조각실을 찾는 빈도가 높아,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는 하루 평균 2만3000명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나 영국 브리티쉬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을 웃돌고 있으며, 개관 44일째인 16일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지관스님·김재규 공단이사장·이재용 환경장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공감'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해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은 12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를 안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만 허락하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리공단도 입장료 폐지에 찬성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관 스님은 "국립공원은 국민 정서를 함양시키고 심신의 피로를 푸는 기능이 있다. 국립공원이 본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폐지해야 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관리공단에서 입장료 폐지를 역설하면 우리가 뒷받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재규 이사장이 문화재관람료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지관 스님은 "관련 사찰 주지들과 이야기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11월 25일과 30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했다.

지관 스님은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년에 260억 원 정도 입장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장료 징수 폐지를)정부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할'



그림·조태호

성공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訃 告

曹溪宗 前 傳戒大和尙을 지내셨고, 釋宗寺 祖室이신 無影堂 梵龍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9年(2005)年 12月 15日(陰曆 11月 14日) 午後 3時 27分 桐華寺 毘盧庵에서 入寂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佛紀2549(2005)年 12月19日(월) 오전 11시

■永訣式場 : 팔공산 동화사

■茶 毘 場 : 팔공산 동화사 연화대

圓 無影堂 梵龍 大宗師 全國 禪院首座會 葬 寂

재손은문후별원시다주다영호접섭홍재지의총집행위원장 : 감 도 선광
고 문 : 도견 종산 지혜 보성 도천 도원 수산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정천 천운 동춘
지관 초우 혜정 범행 지유 고산
증 명 : 법전 송담 진제
호 상 : 성수
장례위원장 : 지성
부위원장 : 고우 적명 현산 혜국
지도위원 : 정광 설정 법능 월서 청화 도영 근일
장의위원 : (선원대표) 할주 인각 기성 무문 성우 명정 현기 무여 원융 우송 성재 천진 정태 원각
도공 지환 정찬 현묵 일오 의정 영진 설우 불산 신흥 철산 일주 탄공 진효 종우 종선 효광 지현 철인 영선 의광 나월
(본사주지) 원담 정락 무산 정념 도공 진각 법정 성응 지성 법타 종상 현응 원정 대성 현문 혜승 원행 명응 종삼 영조 몽산 용주 법여 철안 일면
(중앙종무기관) 자승 동산 정민 탁연 지원 도진 시경 현고 법장 현종 일관 진명
(중앙종회의원) 장우 원택 지하 정유 장윤 중원 도후 영담 혜승 영배 진만 종광 평상 정인 지홍 학담 장옥 설송 법조 선광 보선 법보 향적 지만 지현 종훈 성관 광조 지욱 정욱 장적 월우 도완 도각 정문 진구 무이 선각 종열 지준 동광 법경 이암 원정 상운 성직 보원 정호 법광 정도 종본 성월 일화 무자 정안 현공 토진 정광 도문 법전 의연 혜림 보경 일문 덕문 효림 초격 원경
(비구니회원로) 광우 명성 혜해 법희 진관 법운 삼륜 경희 묘엄 경순 성타 정훈
(중진, 중앙종회의원) 명우 자민 지원 재운 묘관 불필 재희 지환 보각 수현 본각 도문 운달 계호 흥륜 경륜 정성 가혜원 서혜원
의 전 : 대법 원일 정산 허석구
지 객 : 일진 본해 근허 고우 지삼
재 무 : 법경 윤정희
홍 보 : 효광 상원 우경 이수찬 이재원
섭 외 : 삼현 종현 반영우
접 수 : 도석 혜진 관성 서태경 김미향
호 법 : 법혜 승석 이만희
영 선 : 이종길 한곤주 박세영
다 비 장 : 금당선원대중 유원효 토동기 이인식
주차통제 : 인궁 혜마
다 각 : 동호 혜공 정욱 외 산내 암자 대중
시 자 : 금륜 도정 도명(조실) 혜성(주지)
원 주 : 시연
별 좌 : 덕기
후 원 : 영덕스님회 운문사 강원 대중
문도대표 : 초세
은 상 좌 : 초세 해림 법상 수련 성주 성학 성관 성팔
손 상 좌 : 해원
재가제자 : 박완일 수산거사 강대용 동일거사 동명거사 비로암 보광전 재가자선원 보현회 일동

※ 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일체의 조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 동화사 종무실 053)985-4404, 982-0101·2)

無影堂 梵龍 大宗師 全國 禪院 首座會 葬儀委員會

사찰 부동산 '등기 정비' 좋은 기회

조계종, 내년 특별조치법 활용 부동산 소유권 정비

양도 · 상속 입증할 3명의 보증서 있으면 소유권 획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조계종이 부동산 자산 보전 및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 같은 방침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보고됐다.

특조법은 부동산을 양도 및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그 자는 확인서를 갖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사찰소유 토지 중 미등기된 토지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대법원 판례상 사찰이 보증인의 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지 않은 이상 다시 찾아올 방법이 없어 불교재산 유실의 원인이 됐다. 특조법은 1984년과 94년에도 두 차례 실시됐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사찰명의로 등기된 토지 관련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률적으로 확보하고, 미등기 부동산 등은 일제시대 토지사정자료나 각 사찰의 총독부 신고 자료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또 종단에서 파악한 사찰소유부동산의 주소를 각 시 · 군 · 구 · 읍 · 면으로 분류해, 각 행정구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부동산 지번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일치되는 지번이 나타나는 경우 당해 사찰주지 명의로 이의신청기간(2개월)에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사찰이 실제 경내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조법을 이용해 사찰명의로 이전 등기할 예정이다.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사찰부동산 실태파악과 정비사업은 해당사찰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립학교법 개정' 불교계 입장은?

'큰변화 없을것' 예상…건학이념훼손 우려도

논란을 거듭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교계는 종립학교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 가운데 1/4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는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게 된다. 또 잦은 사학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 1인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개방형 이사제도는 재단의 운영이 공개됨으로써 국내 사학운영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보충하는 형태로 충원된다.

하지만 불교계 종립학교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건학이념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교육부의 시행령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법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나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법인의 경우 동종 종교를 가진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이다. 15일 김진표 부총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교육부의 이러한 뜻을 전하고 협조를 구했다.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13일 지관 스님을 예방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관련, 동국대 관계자는 "동국대 재단은 9개 출자 사찰의 파송 승려 9인과 동창회 등 외부추천 3인 당연직 총장 1인이 이사를 구성돼 있어 이미 개방형 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단 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동국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추천 이사 영입으로 스님들 간의 대립구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7대종단 대표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대통령이 거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로 16일 결의했다.

조용수 기자

'삼보륜' 넣은 가사 의장등록

"조계종 지정 가사천 사용"

조계종이 삼보륜을 넣은 가사를 제작해 지난 10월 7일 특허청에 의장등록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가 통일될 전망이다.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총무부장 자승스님은 "본말사에서 가사불사시 의장등록한 가사천 사용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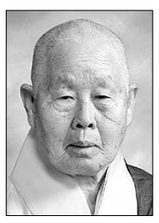
자승 스님 또 "향후 종단이 지정한 가사천을 사용해야 한다"며 "가사천은 총무원에서 신청해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사는 일정기간 겸용할 수 있다.

한편 비구(비구니) 법계에 따른 가사 조수는 △대종사(명사) 25조 △종사(명덕) 21조 △종덕(현덕) 19조 △대덕(혜덕) 15조 △중덕(정덕) 9조 △견덕(계덕) 7조 등으로 조정됐다.

남동우 기자

보문종 5대 종정에 혜일 스님 추대



보문종 중앙종회는 12월 13일 보문사에서 임시종회를 개최하고 보문종 제5대 종정에 혜일 스님(사진)을 추대했다.혜일 스님은 1934년 전주 정혜사에서 득도, 64년 묵담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현재 보문사에 주석하고 있는 혜일 스님은 보문종 7~10대 총무원장, 원로회의의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길상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불자들이 차담을 나누는 전경을 찍은 덕조 스님의 금상 수상작.

제1회 템플스테이 사진공모전 덕조 스님 당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사업팀 주최 '제1회 템플스테이 사진 공모전' 금상에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이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은 12월 9일 은상에 영평사 사무장 이동익씨, 동상에 백양사 김문정 과장, 입선에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원주 구룡사 법철 스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심의분씨를 각각 선정하고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공모전에는 15개 단체 70여명이 응모하는 등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사진의 구도와 예술성 등이 심사기준이었다. 이은비 기자

'팀제'로 직제 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팀제'로 직제가 개편됐다.

12월 1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편안은 기존 부서 국(局) 산하에 업무를 특성화한 팀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무부는 총무행정팀 교무행정팀 행사기획팀 기록관운영팀 기념관운영본부로, 교육원은 교육행정팀 연수팀 불학연구팀으로, 포교원은 포교행정팀 포교사업팀 신도팀 포교연구팀으로 나뉘는 등 총 27개 팀으로 중앙종무기관이 구성된다.

남동우 기자

불교지도자 전진대회 개최 본말사 신도 연수 확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 실시됐던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이 종단 차원으로 확대된다.

24개 교구본사별로 실시되는 '불교지도자 및 신도임원 전진대회(이하 전진대회)'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해당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신도회 임원, 지역 내 광역 및 기초 지역신도회 임원, 포교단체 임원, 개별신도단체 임원, 본말사 일반신도 등 500명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다.

전진대회는 종단이 주최하며 해당 교구본사 · 중앙신도회 · 포교원이 주관하는 형태로 개최되며 총무원장스님 법문, 포교원장스님 강연, 중앙신도회장 축사, 지역불교 인사소개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전진대회로 인해 침체된 본말사 신도임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미조직된 말사 신도회 구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각 교구본사를 비롯한 말사의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홈피 새단장…사찰정보 가득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찾아가고 싶은 사찰에 대한 정보와 주변여행지까지 한번에 알고 싶을 때 사이트 접속 한번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전통사찰 DB를 구축해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팀이 기존의 전통사찰종합관광정보 홈페이지(www.koreatemple.net)를 새단장해 12월 15일 개통했다. 그동안 혼재돼 있던 200여개 전통사찰 관련정보를 △한국의 사찰 △불교문화관광 △커뮤니티 총 3개 섹션으로 분류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것.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을 강화해 사찰 이름 검색으로 해당사찰에 대한 관련정보, 찾아가는 길, 주변관광지 정보, 지도검색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670여개의 전통사찰에 관련된 각종 설화, 문화재의 사진과 동영상, 텍스트 등 풍부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은비 기자

지금 미국에선 '무종교'인 늘고있다

미국인 중 무종교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기관인 갤럽이 12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3%에 불과하던 미국인 중 무종교인 비율은 2005년 10%까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990년~2001년 무종교인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LA타임즈의 최근 보도와 무종교인 숫자가 1990년 1400만에서 2001년 2900만으로 증가했다는 ARIS(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의 발표 등과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비율도 1952년 75%에서 2005년 55%로 떨어졌다. 강유신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이전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 · 부산) :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 · 부산) :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 서울,부산 야간반 30 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 불교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앤테이션 :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 입문과정 1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 대학과정 : 3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대학원과정 : 40만원[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수 있습니다.(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념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2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02)706-1570, 1571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051)583-7811 ~ 2 / 팩스 051)583-7700

서울(불교방송 다보빌딩)
부산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지계 생활화 강조한 청정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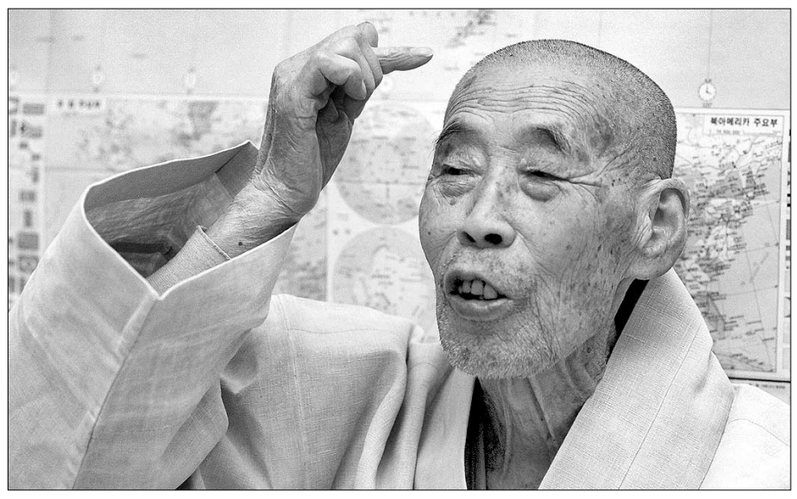
범룡 스님 행장

'청렴결백한 성품' '수행의 실천가' 범룡 대종사는 1914년 평남 맹산에서 한학자로 이름난 충주 박씨 집안의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스님은 불심이 돈독했던 선친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대장부가 되기 어려우며, 출가 인연을 맺기가 어렵고, 부처님 말씀을 만나기 어렵다"는 충고(四難得)에 따라 금강산 유점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한암 스님에게 화두 받고 평생 정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몸소 실천

이후 스님은 당시 이름난 선지식이었던 한암 스님을 찾아 오대산 상원사로 발길을 옮겼다. 한암 스님을 시봉하며 탄허 스님과 함께 〈화엄경〉 등을 배웠고, 한암 스님으로부터 무(無)자 화두를 받고 평생을 정진했다. 스님은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했다. 예전에는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구월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묘향산 등 네 곳의 산에서 방부를 들인 수좌만 인정했다고 한다. 스님은 파계사 고송 스님과 더불어 네 곳 모두에서 참선 수행을 한 몇 안 되는 선승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스님은 오대산 중대에 주석하며 홀로 보궁을 지키기도 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총을 들고 찾아왔지만 중대를 떠나지 않았다. 스님은 또 한국불교 정화 직후 홍천 수타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5년 동안 밀려드는 고아들에게 밥을 해주면서도 당신은 밀가루를 푼 물에 솔잎 몇 개를 띄운 것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늘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범룡 스님. 스님은 12월15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스님은 〈자경문〉 중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마음을 평등하게 할지어다. 애정을 끊고 부모를 떠나 온 법계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니, 만일 친하고 덜 친함이 있으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출가는 했지만 어찌 덕이 있겠는가"라는 대목을 좋아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깨닫는 그날까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뭇 생명을 사랑하고 마음을 살펴 몸과 입과 뜻을 항상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스님은 생전 "불교가 올곧게 살아나려면 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신라 때 자장 율사가 '내 차리리 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계라는 것이 거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때 개인생활 뿐 아니라 사회도 청정해진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노구를 이끌고 대구 동화사 비로암 바로 앞의 논밭에서 일하며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백장 선사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던 스님. 어린 시절 꿈이 세계일주여서 방에 세계지도, 대한민국 전도를 나란히 걸어놓기도 했던 범룡 스님은, 12월 15일 오후 3시 27분 비로암에서 환귀본처(還歸本處)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천성산 환경조사 파국 위기

철도공단 "사과 거부"-대책위 "남은 일정 거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 대책위가 8월 30일부터 진행해 온 천성산 환경영향조사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율 스님이 숨는 이유는 환경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환경영향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조선일보〉의 11월 24일자 보도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12월 14일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최근 나온 일련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 처장은 "지금은 공동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성산 대책위도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천성산 대책위에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천성산 대책위 서재철 간사는 "공단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공단 측이 온갖 흑색선전을 통해 환경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간사는 또 "천성산 대책위 측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남은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봉헌 발언은 개인 종교자유 문제"

이명박 시장 또 망언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12월 12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봉헌 발언은 개인 종교자유의 문제"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은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 할 때는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간섭하는 것은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같은 분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12월 14일 성명을 발표해 "기어이 종교분쟁을 일으키려 하느냐?"며 이명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한편, 12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던 서울시 봉헌 관련 소송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로 연기됐다.

목탁소리

성직자의 품위

12월 10일 대구에서 열린 정장식 포항시장 출판기념회에 대구·경북지역 15명 가량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포항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성시화 발언으로 불교계와 큰 마찰을 빚었던 정 시장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내년 경북도지사 출마를 앞둔 정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퇴진운동까지 벌였던 많은 스님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당시 포항불교계가 정 시장의 사과를 수용했고,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참석했다"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 40여 명은 이명박 서울시장 초청으로 새로 단장한 청계천을 둘러봤다. 이 시장 역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불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이날 청계천을 둘러보던 일부 스님들은 이 시장에게 "큰 일하셔야죠"라는 덕담까지 건넸다고 한다.

이 시장이나 정 시장은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이다. 두 사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의 행보에 스님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장단에 스님들이 춤을 춰 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지한 충고가 아닌 아부성 발언까지 있었다니 참으로 씁쓸하다.

내년 5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있다.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스님은 '공인(公人)'이자 성직자다. 그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종교의 벽 넘어 아기예수 탄생 축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의 벽을 넘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화합의 장이 곳곳에서 열린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12월 21일 오후 7시 종교화합의 트리점등 법회를 연다.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트리점등법회는 캐롤송 합창과 풍물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서울 안국동 미얀마선원은 12월 25일 오전 11시 미얀마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날 문화행사에서는 미얀마의 현악기 연주와 전통 인형극 상영, 한국의 소리를 배우는 시간 등이 마련된다.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과 신도들은 12월 24일 지산성당 미사에 참가해 아기 예수탄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대구 은적사도 12월 16일 룸비니 유치원에서 고산성당 정홍규 신부와 신도, 은적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열었다.

김원우·배지선 기자

달라이 라마 홈피 개설

달라이 라마가 공식 개인 홈페이지인 달라이라마닷컴(www.dalailama.com)을 개설, 인터넷을 통해 불법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티베트 뉴스사이트 〈파율〉이 12월 11일 보도했다.

10일 오픈한 달라이라마닷컴에는 그의 법회 스케줄, 법문내용, 관련 사진, 최근 뉴스, 자주하는 질문 등이 영어로 서비스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도 있어 전 세계 불자들이 달라이 라마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상희 기자

테마가 있어야 법회 뜬다

재가 눈높이 상승…주제별 법회에 불자 몰려

'주제가 있어야 법회가 뜬다.'

올해 성황리에 마친 불교계 법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수행열기가 '테마'란 옷을 입게 되면서 일어난 불교계의 한 흐름이다. 1회성 이벤트 행사, 일방적인 법문 전달, 질의응답 부재 등의 기존 법회 형식이 더 이상 눈높이가 높아진 재가불자들의 수행욕구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올 3월부터 총 10주간 열린 부산 범어사의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법회'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설선법회는 매주 법문 주제를 미리 선정, 재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대구 동화사가 8월부터 3개월간 연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 수행법회'는 계율 관련 첫 대중법회라는 의미와 함께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10월부터 11주간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을 주제로 마련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테마기획법회'로서 불교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올 여름과 겨울안거에 맞춰 '간화선 이해와 체험' '금강경으로 본 간화선'을 주제로 3개월간 수행논강을 개최했다.

대구 법왕사가 '화엄경과 법화경, 계율'을 주제로 2월부터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초청해 개최한 '경율론 삼장' 백고좌법회와 순천 송광사가 '금강경'을 주제로 12월 2일부터 49일간 열고 있는 금강산림법회도 대표적인 테마기획법회로 재가불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테마기획법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불교의 기본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계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들 계층의 관심분야를 불교경전, 수행법, 각종 사회문제 등의 주제별로 개발해 법회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2005년 복지사업 회향
조계·진각종 송년행사

2005 조계종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2월 14일 하림각에서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국회 정각회 이용희 회장, 열린우리당 이타회 윤원호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적 행보에 계속해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각복지재단도 12월 12일 빅토리아 호텔에서 '회향의 밤' 행사를 열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날 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 엔케이 인포메이션(N.K.Information)과 협약을 맺고 내년 '민족 복지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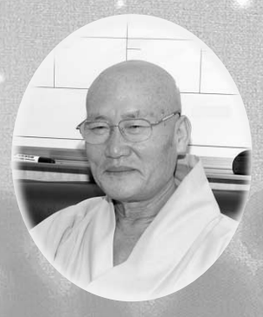
김강진 기자

성도재일 기념 특별대법회

◆ 일시 : 불기2550(2006)년 1월 7일 (음, 1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 법 사 : 자광 큰스님 (김용사 회주)
• 찬조출연 : 니르바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도훈구 황옥경 살사댄싱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충남대학교 교수 불자회
• 후 원 : 동학사 승가대학. 대전백제불교대학. 대전사암연합회.
대전시청불자회. 도청불자회. 대전 5개구청불자회. 경찰불자회.
대전운전불자연합회.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자광스님 약력
– 1970년 팔공산 산북지장사 취공도봉선사를 은사로 득도
관응 탄허 구산 일우대종사와 각성강백으로부터
어록과 경전을 수학
– 1981년 구산선문 실상사 주지
– 1983년 봉암사 주지 역임
– 1989년 김룡사 주지. 제 8교구 직지사 주지.
현재 생명나눔 실천본부 부이사장. 문경불교대학장 김룡사 회주

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회원

세등선원 능환. 법륜사 길상. 회전사 성욱. 중도선원 보현. 개심사 법일. 석림사 성공. 금강사 일성. 보현정사 명희. 정각사 정광. 영탑사 혜일. 용화사 영진. 청화사 효경.
흥룡사 승호. 충효사 일권. 법성사 법성. 연화사 종실. 월인사 석산. 관음사 성련. 남화사 시연. 석가사 성현. 석왕사 보정. 도안사 성정. 극락사 경원. 복지관 보안.

그림 작가 : 고현. 작품명 : 초심만리

인 터 뷰

“광주불교의 미래 확인”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



“빛고을 광주가 말 그대로 환해졌습니다. 최고의 강사스님들을 모시고 천명이 넘는 대중이 석 달 가까이 공부하는 동안 그대로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이었습니다.”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를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공동 주최한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 사진)은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수계식 연비를 할 때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을 뻔 했다”며 “강사, 수강생, 실무진 등 모든 대중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매 강의에 앞서 천명 가까운 대중이 예불을 모실 때마다 광주불교의 미래를 기원했다”는 스님은 이번 강좌의 성공요인에 대해 “부처님 10대 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는 자리여서 재가불자들이 더욱 쉽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도록 불교아카데미를 정례화시켜 빛고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넘쳐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사암과 재가신행단체가 힘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사암연합회가 나서 불교아카데미를 이어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매끄러운 진행 놀라워”

▮장흥서 ‘개근’한 장재영씨 가족



“지난 10주간 수요일만 되면 날씨 먼저 확인했습니다. 길이 막혀 부처님법을 듣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전남 장흥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장재영(66 · 사진 맨 왼쪽), 마정희(64 · 왼쪽에서 두번째) 부부는 아들 장준호씨(37 · 맨 오른쪽)와 함께 1시간 반이 넘는 광주까지 달려와 11번 모두 참석한 개근 가족이다.

5시가 되면 장흥에서 출발하는 장씨 가족은 강의가 끝난 후에야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향하곤 했다.

먼 걸음 나서는 부모님을 위해 운전을 자청하고 나선 준호씨는 “처음에는 운전만 하려고 했는데 스님들의 강의를 듣다보니 도리어 제가 공부하기 위해 먼저 나서게 된다”고 회고했다. 마정희 보살도 “가족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러 다녔던 지난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며 “이제는 실천행을 펴는 불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재영 거사는 “강의 내용도 훌륭했지만 군더더기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의식에서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더 좋은 주제로 불교아카데미가 펼쳐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부처님 10대 제자 바로알기 열풍

광주 동구불교協-현대불교 공동주최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결산

부처님 10대제자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열풍이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일고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회에 거쳐 공동 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부처님 재세당시 제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접하도록 하는 첫 시도여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매주 강의는 물론 회향을 기념하는 송년한마당에도 1000여명의 대중이 참석해 불교를 알고자 하는 지역불자들의 욕구는 물론 호남불교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의를 맡은 스님들도 이번 강좌에 대해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신선한 주제다”고 밝히고 10대제자의 인간적인 삶과 가르침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

강사 스님들은 ‘10대 제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부처님 상수제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진을 소개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10대 제자들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이끌었다. 매회 참석자들은, 본 강의에 앞서 <저녁예불>과 <보왕삼매론>으로 회향하는 법회 진행, 강사 표정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계 등에서 불교 법회의 현대화를 향한 토탈 시스템을 접했다는 평이다.

재가 실무진과 함께 기획, 진행에 참여한 진화(증심사 주지), 석장(문빈정사 주지) 스님은 “불교아카데미를 통해, 현대인이 갈망하는 마음공부와 바른 불교를 알리고자 했다”며 “대중 불교강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부처님 10대 제자 이야기’는 붓다뉴스(news.buddhapia.com)에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카세트테이프로도 만날 수 있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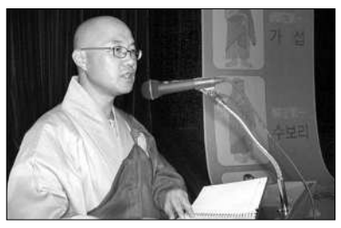
이 모 저 모



강의 내내 통로 가득 메운 청중들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첫째 날 접수자 1000명을 넘기는 대 성공을 거뒀다. 청중이 640석 좌석을 채우고 통로에까지 자리를 깔고 앉자 실무진은 긴급히 300여개의 좌복을 준비했다. 회를 거듭하면서 청중이 늘자 수강생들은 강의 1시간 전부터 강의장을 찾기도 했다.

처음에 300여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실무진은 “광주에서 매회 평균 800여명의 대중이 모여 법회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호남불자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며 놀라워 했다.



가려운 곳 콕 짚어준 명사회자 금강 스님

○… 사회를 맡은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은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낳은 최고의 스타. 온화하고 차분한 목소리와 매끈한 진행은 법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수강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스님은 수강생들의 가려움을 정확히 짚어 질의응답으로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매회 강의가 끝난 후에도 공부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마무리에 힘썼다”는 스님은 이를 위해 ‘산회가’대신 대중이 함께 <보왕삼매론> 합송으로 마무리를 시켰다.

사찰 · 신행단체 20개 ‘혼연일체’ 준비

○… 이번 강좌는 지역 사암과 20여개의 신행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6명으로 구성된 실무진은 총 22회에 걸친 모임을 가졌으며 신행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도 10회에 걸쳐 열리는 등 모처럼 실무자와 신행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향후 불교행사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다도회서 차 제공, 운불련서 주차 안내

○…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강의에 앞서 한잔의 차로 긴장을 푸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의 하나. 덕림사, 약사사, 자비신행회 등 광주지역 각종 다도회는 매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솜씨를 자랑해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또한 기정순 보살(혜명 다례원)은 강사스님을 위해 꽃꽂이와 차 공양으로 썰렁한 강사 대기실을 따뜻하게 했다.

이밖에 운불련은 강의 시작과 끝난 뒤에 주차 안내를 맡았으며, 각 단체별로 접수와 좌석안내를 분담해 지역불자들의 화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강사비 공양한 최정훈 · 이고은 부부

○… 이번 강좌에는 광주 대불련 출신 최정훈 이고은 부부가 첫 강의 강사 초청비를 공양해 미담. 평소 ‘게으르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들 부부는 “많은 대중들의 공부를 위해 공양하게 된 것이 저희로서 더 고맙다”며 손사래를 쳤다.



수익금, 지역 독거노인들 난방비로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운영위는 12월 9일 광주 동구 관내 독거노인 10명에게 겨울나기 난방유를 지원했다.

난방유 지원에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8차 회의에서 “불교아카데미의 요체는 실천에 있음을 환기하고 수익금은 이웃에 회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난방유를 지원받은 선교동 서강녀(74)씨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겨울나기가 걱정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도움을 주어 고맙다”며 어쩔줄을 몰라 했다.

소 감 문

“헤매다 나침반 발견한 듯”

▮박현주(광주 전남 교사불자회)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지만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어려 저녁에 진행되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번 강좌에 참석했던 것은, 덕 높으신 스님들을 가까이서 뵙고, 불교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불교와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 주위에 훌륭한 스승과 정다운 도반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시절에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길 잃고 헤매다 지도나 나침반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겠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그 길은 ‘부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대목에서 찾았습니다.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게되어 있고, 그 누구도 대신 성불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업을 대신해 줄 수도, 부처가 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 법을 전해 줄 뿐입니다.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이미 불자이신 분들에게는 부처님과 인연을 더욱 소중히 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직 불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부처님과 새로운 인연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좋은 자리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젊은 불자들 동참 반가워”

▮강원영(회사원)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10여년 되지만 이처럼 큰스님들의 대중강좌에 참여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그동안의 신행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에 참석하면서 의외로 거사들과 젊은 불자들이 많다는데 놀랐고 반가웠습니다. 흔히 불교 하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다니는 종교로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으며 불자로서 자부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봉독했던 <보왕삼매론>은 불자들에게 좋은 삶의 지침서라 생각합니다. 불교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어 가슴속 깊이 새겨놓고 생활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강좌 같은 대중법회가 자주 열려 더 많은 이들이 불교와 인연 맺기를 기원합니다.

삼매체험 선 수련회안내

연강단식 · 참선

◆ 연강단식으로 신체 정신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초보자도 전통 수행방법인 간화선수행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 전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단식이며 쉽고 강해지는 연강단식이다.
◆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음식을 끊는 단식과 참선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 지혜와 인내심을 키우고 인간한계의 기존관념에서 탈피한다.

◎ 수행과 단식으로 신체와 정신을 갱생한다. 예비단식과 보식이 없이 쉽고 효과는 높이는 전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다.
◎ 단식과 참선으로 차원을 높인 수행으로 정신과 신체를 혁신시킨다.
◎ 체질개선의 효과와 다이어트, 위장병, 피부미용, 피부질환(아토피)등 각종 질환에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당료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도 단식이 가능하며, 복용중인 약을 끊고 단식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단식의 시작으로 체질이 강화되는 연강단식이다. 단식의 고충을 최소화한 약단식이다.
(예 : 2005년 봄 직장인으로 출퇴근하며 7일간 단식으로 체중 6kg이 빠짐)
◎ 공부정도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자세와 병통을 치유한다. 수련기간에 생활속에서 참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모든 구조 즉 가족간, 직장인간, 조직구성원간, 정신과 물질, 있음과 없음, 높고 낮음, 빈부와 귀천, 행불행 등 불평 등 갈등과 모순을 통해서 파생되는 부조화를 치유한다.

홈 페 이 지 원명선원.kr / wseon.com
대상및인원 성인남녀 70명
수련일정(6박 7일) ■ 1차 : 05. 12. 28 - 06. 1. 3 ■ 2차 : 06. 1. 10 - 1. 16
접 수 05년 12월 23일 까지 마감.
접 수 처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원명선원 ☎ 064-755-3322
회 비 후원금으로 접수(생계가 어려운 자는 고려함)

즉심즉각 한라산 원명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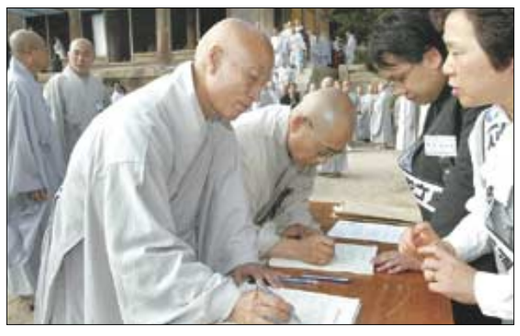
시공의 천년, 숲속의 향기, 천불의 미소

제 2회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단기 출가

대자연의 만다라 속에 부처님의 향기 가득한 직지사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의 길을 찾는 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량한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머리와 가슴을 비우고, 천불의 미소처럼 본래의 밝은 자기를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평화롭고 안온한 인생의 체험을 통해 세상의 티끌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부처님 세상으로,
자!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 래
◆ 기 간 : 2006년 1월 9일 ~ 2006년 1월 14일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참가비 : 10만원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옷
◆ 접 수 : www.jikjisa.or.kr
☎ 054)436-6084 (템플스테이 사무국)
◆ 계좌번호 : 우체국 702829-01-000591 (예금주 : 직지사)
◆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안전보험 가입용)
◆ 자원봉사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성 웅



법장 스님 원적 · 생명나눔 확산 9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으로 불교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평소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 생명나눔의 지고한 숭고한 의지를 밝혀 왔던 법장 스님의 법구가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되면서 우리사회의 생명나눔에 대한 의식이 크게 고취된 것은 물론, 종단 중진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법장 스님은 1994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창립, 불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장기기증 서약을 한 바 있다.



조 · 태 · 천 · 진 새 수장 선출 조계종 태고종 총무원장과 진각종 통리원장이 새로 선출되고, 천태종 총무원장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한해였다. 조계종은 10월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적으로 선거를 실시, 지관 스님을 제32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태고종 제23세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1월 실시된 선거를 통해 재선출됐으며, 진각종은 5월 제27대 통리원장에 회정 정사를 선출했다. 천태종 운덕 스님도 재선출돼 올해 1월 1일부터 제13대 총무원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조계종 출가연령 50세로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이 11월 10일 만 40세에서 50세로 환원됐다. 2002년부터 출가자원의 자질향상을 명분으로 행자교육원 입교자격을 40세로 제한해왔던 조계종은 교육원장 청화 스님 취임이후 출가연령제한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다각적 검토끝에 50세로 환원했다.

교육원은 기초, 기본, 전문교육과정과 5 · 4 · 3급 승가고시를 통해 승가교육체계와 승가의 위계를 엄격하게 정착된 만큼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공식 출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 출범은 올해 가장 큰 포교관련 뉴스였다. 1994년 처음 군종교구출범을 위한 첫 공청회가 실시된 후 10여 년만의 성과다.

올 4월 군종특별교구법이 제정 공포됐으며 9월 초대주지 일면 스님의 진산식이 봉행됐다. 군포교 사령탑인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함에 따라, 130여 군법사, 400여 군법당, 16만 신자를 거느리는 군불교는 제2의 도약을 알리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타종단의 군승파견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에 성금과 복구지원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해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구호를 위해 조계종을 비롯한 단체들은 대대적인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조계종은 '자비의 탁발' 등을 통해 20억 이상의 성금을 모아 전달해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태고종과 정토회 등도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10월 발생한 파키스탄 대지진 때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와 정토회 JTS 등이 현지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 등을 전개했다.

자비 생명나눔 확산

본지 선정 2005 '10대 뉴스'

저물어 가는 불기 2549년(서기 2005년)을 되돌아본다. 올해 벽두 남아시아 지진해일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교계는 2005년을 열었다. 불경기로 서민들의 주름은 깊었지만 스님들이 먼저 '자비의 탁발'에 나서자 수많은 불자들은 한 뜻으로 동참했다. 각 종단과 불교단체들도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했다. 지율 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과 낙산사 화재, 갑작스런 법장 스님의 원적 등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진위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정리=조용수기자



간화선 대중화에 박차 불자들의 수행욕구 증가에 맞춰 조계종 교육원은 <간화선><수행법 연구>등 지침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이는 2002년 '조계종 수행체계 실무연구회'출범 후 2년여의 연구가 결실을 맺은 것.

조계종은 올해 <간화선> 등 지침서 발간으로 선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대중화, 수행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리에 주력했다. 염불, 간경, 주력, 사경, 사불 등 10개 수행법을 묶은 <수행법 연구>는 불자들의 수행풍토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연구 논란 지난해 인간배아복제를 성공시켜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오른 서울대 석좌교수 황우석 박사가 올해는 난자매매 논란과 줄기세포연구 진위 문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MBC PD수첩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진위논란은 황우석 박사와 연구에 협조했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간의 진실공방으로 여전히 뉴스의 호점이 되고 있다.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 논란은 정부와 서울대의 진상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 화재로 큰 피해 4월 5일 산불로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 전각 37채 중 22채가 전소됐다. 처참했던 화재당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원통보전을 비롯한 주요전각과 인근 소나무 숲이 잿더미로 변했고 동종(보물 제479호)이 녹아내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362호)과 홍련암이 화를 면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현재 낙산사의 옛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



개성 영통사 500년만에 복원 천태종은 10월 31일 종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사찰인 개성 영통사 낙성식을 거행했다.

대각국사비와 3기의 고려시대 탑들만이 존재했던 영통사는 2000년부터 천태종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폐허가 된지 500년만에 26개동으로 복원됐다. 남북간의 종교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1998년 일본 다이쇼대학의 발굴조사로 시작된 영통사 복원은 천태종이 약 46만 장의 기와와 단청재료 3000세트, 묘목 1만 그루, 비닐자재 60t, 중장비와 건축 마감재 등 40억 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성공적으로 불사가 마무리됐다.



지율 스님의 고행 계속 지율 스님은 올해 초 천성산과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한 100일 단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초인적인 의지를 보이며 결국 정부로부터 천성산 공동조사 약속을 얻어냈다.

그러나 8월 30일부터 진행된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도 정부 측의 말 바꾸기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지율 스님은 2005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까지도 고행을 계속하고 있다. 9월 중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율 스님은 음식물을 전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신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www.njutcm.edu.cn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1월 13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올겨울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김천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단기출가 마련
산행, 고구마 굽기 등 추억 심어줄 프로그램 다채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가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1월 9~14일 5박 6일간 직지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2001년 개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직지사의 어린이 단기출가는 기존 어린이 수련회가 대개 여름에 열리고 또한 기간도 2박3일로 짧아 충분한 산사 체험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 5박 6일동안 보다 집중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불교학교와는 차별화되는 겨울철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직지사 어린이 단기출가는 2001년 아이들을 직지사 어린이 단기출가에 보냈던 학부모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참가 아이들이 중 · 고등학생이 된 이후까지 추억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일정은 그리 힘들거나 딱딱하지 않다. 다도, 참선, 묵언 포행 등 스님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되지만 장작불 고구마 굽기, 금강태극권 등의 프로그램을 가미해 아이들이 비교적 따라가기 쉬운 일정으로 구성돼있다.

불교예절, 발우공양 습의, 다도, 금강태극권, 연등만들기, 예불, 한글대참회문, 부모은중경 읽기 등이 자신을 성찰하고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황악산 산행, 장작불 고구마굽기 등은 아이들에게 추억을 심어줄만한 프로그램. 운력을 통한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고, 매일 새벽 부모은중경 독송을 통해 부모님의 큰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그 외 명심보감을 통한 한문교육과 박물관이야기, 문화답사 등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양 프로그램과, 건강을 위한 금강태극권, 황악산 산행, 숲길 산책 등도 마련돼 있다. 5박 6일동안 일정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변화를 경험한 아이들은 마지막날 수계식을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나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지사 교무국장 세명 스님은 "한번 참석했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요청이 잇달아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들뜨기 쉬운 여름 수련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산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앞으로 겨울 불교 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지사는 격년제로 동안거 어린이 단기출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출가는 선착순 50명을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10만원. (054)436-6084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광주 한마음선원, 소향원 위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2월 11일 화순 소향원을 방문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문했다(사진).

이날 광주지원 어린이 및 청년회, 혼성합창단은 특별공연단을 구성하고 소향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60여명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선법가와 율동, 아빠와 함께 왈츠 등의 공연을 펼쳤다.

한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갖고 소향원, 호산마을, 송광복지관 등 지역 복지관 10여곳에 김장김치 208통을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제15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사암연합회(회장 운성)는 12월 15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제15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학상에 공정식 시인, 행원상에 구귀선 진해여고 장학재단 이사, 예술상에는 故 김태성 연극인, 단체상에 마창환경운동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11년동안 수작업으로 16만 484장의 도자기 대장경을 완성하고 천연염색전과 감지사경 재현 등 불교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온 통도사 서운암 주지 성파 스님이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도시락 2만여개 보시
자비신행회 '자비나눔의 밤' 서

재가불자들의 자비나눔터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는 지난 12월 12일 광주 KBC 컨벤션 홀에서 '2005 자비 나눔의 밤'을 가졌다.

지난 한해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격려하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 이날 행사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을 비롯한 사암스님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성북구 봉국사

약사보살 원력 실천하는 孝도량



서울 봉국사는 매년 5월 인근의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은 사찰 60곳이 자리잡고 있는 불교가 성한 곳이다. 전국의 불교사암련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서울 성북구사암련도 이곳 정릉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크고 작은 절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이곳의 맏형격인 사찰을 꼽으라면 단연 조계종 호계원장인 월서 스님이 주지로 있는 봉국사(奉國寺)다.

아름다운 도심속 전통사찰 봉국사는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 원찰(願刹)로, 정릉길 옆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도 유명하다.

봉국사 역사는 조선 초 태조 4년(1395) 왕사(王師)였던 무학대사가 호국 사찰로 약사부처님을 모신 약사사(藥師寺)를 창건하면서 시작돼 이후에 왕실의 원찰(願刹)로 승격되면서 봉국사로 절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약사기도도량의 전통은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대웅전 본존에 모셔진 부처님도 약사여래부처님이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약사부처님의 천진한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속세의 묵은 병이 씻겨 내릴 듯 편안하다.

1994년 안심당을 지어 스님들의 수행정진과 신도들의 신행처로 거듭난 봉국사는 1999년 2월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도심 수행사찰의 사격을 안정적으로 가꿔 나가고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는 부주지 지오 스님의 지도로 참선법회도 매회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봉국사 신도회(회장 구광명화 · 69)는 매년 5월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수십 년 째 이어오고 있다. 약사부처님의 자비가 지역사회에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지 월서 스님과 사중의 원력을 한데 모아왔기 때문이다.

경로잔치 · 파키스탄돕기 등 대사회활동 활발
불교대학 개강, 일산불교병원 자원봉사 준비중

봉국사 신도회는 매년 5월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수십 년 째 이어오고 있다. 약사부처님의 자비가 지역사회에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지 월서 스님과 사중의 원력을 한데 모아왔기 때문이다.

주지 월서 스님은 성북구사암련 장학회장으로 매년 초파일과 연말이면 관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파키스탄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3000만원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류독감예방기금으로 2000만원을 관련 기관에 기부하기도 했다.

"약사도량의 면모를 살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중"이라는 부주지 지오 스님은 "2006년 봄 학기 불교교양대학 개강으로, 봉국사가 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904-7555

조용수 기자

"업무 · 신행생활 더욱 정진해야죠"

건대병원 · 전남경찰청 · 대전운불련 법당 개원

건국대병원과 전남지방경찰청,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전지역회가 각각 기도처를 마련하고 용맹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건국대병원은 12월 10일 지하 4층에 5평 규모의 법당을 마련, 약사여래 점안 및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당 지도법사 법경스님(능인정사 주지)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 직원들에게 자비의 연꽃을 심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이병욱)도 같은날 법당 개원법회를 열었다.

이병욱 회장은 "법당이 마련되었으니 더욱 발심하여 수행하는 경찰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전 중촌동 사무실 옆에 25평 공간을 마련했던 운불련 대전지역회(회장 허정봉)는 12월 7일 법당 문을 열었다. **이준엽 · 박봉영 기자**

우수복지프로그램 발표회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12월 12일 크라운 호텔에서 제5회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발표회 및 직원연찬회를 가졌다.

실천중심,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정보공유를 위해 부산불교기관협의회 소속 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2005년 프로그램사례발표회에 이어 프로그램사례발표자 시상식 및 2005년 우수 직원 표창패를 전달하며 1년간 복지현장에서 노력해온 복지사들을 격려했다. **천미희 기자**

감기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代비법 요/베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군
난치불 치해방
02)782-0022
"당뇨로 인한 신경과민과 기력이 쇠약 해져서 항상 얕은 잠에 시달리던 것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한 0전 선생 (68) 서울 강북구 수유동
"10수년 넘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던 극심한 불면증/고혈압 에서의 탈출. 밤새 푹~자는 거조. 그야말로 숙면입니다." 이 0순 여사 (62) 경기 구리시 수택동
"관절염이 심해 정상 생활이 불가능 했어요. 베개속을 쓰고부터 아파서 깨어 나는 일 없이 좋아졌습니다." 윤 0지 학가 (37)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지금은 두통과 요통이 다 사라져 수 년간 무겁게 느껴지던 제 몸이 날아갈 듯 시원합니다." 김 0숙 여사 (58) 충청남도 천안시



법무부, 정애원에 사랑의 휠체어 전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 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장 박정환)는 12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열림가람(대표이사 난승)이 운영하는 노인무료요양시설 정애원에 휠체어 10대를 기증했다. 사진=배지선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4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8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5년 12월 15일~ 2006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6년 2월 4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006년도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8기 모집 및 범음범패 동계교육

1. 자격 : 스님 및 교임포교사 일반불자와 불교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교육기간 및 내용 (12월 26일 - 12월 30일까지)
◆ 12월 26일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소창물외 - 오전 10시 도착
◆ 12월 27일 : 구병시식, 안택기도, 조석예불 종성 외
◆ 12월 28일 : 회심곡(화청), 종사관욕,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12월 29일 :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사다라니 바라춤.
◆ 12월 30일 : 요잡바라, 전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비 : 300,000원정(숙박 숙식 포함) ※교재비 별도
4. 모집일시 : 12월 20일까지 한함.
5.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녹음기(소형)
6.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 교육받으실 분은 미리 송금하시고 전화 바람.
◆ 통신교육 :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 예수재 교육, 49재, 천도재 교육,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20개 십만원
7. 교육장소 및 문의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강의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062)362-8604 /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혜공 합장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사찰과 주민은 하나 신행물결 '넘실'

남제주

재가불자 힘모아 서귀포불교대학 설립
법화사, 연꽃축제 개최 등 문화포교 앞장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물(祭物)을 절에 가지고 와요. 농사를 지으면 수확해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마을 제사가 있을 때는 스님들도 참여하지요. 마을 사람들 집안일도 돌봐주고요. 제주 사람들은 가족의 '무사안일'을 늘 기도해왔는데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 절박하고 애틋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바로 스님들이지요."

남제주군에서 만난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은 제주의 스님들과 주민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불교만의 특징인 사찰과 주민들의 일체성. 그것은 꼭 기복적인 측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제주 사람들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스님들에 대한 믿음에는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면서 '정토'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염원이 담겨있다.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에는 바로 이런 제주인들의 바람이 스며있다. 서귀포는 아미타부처님이 주관하고 있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西**方淨土 阿彌陀佛께 **歸**依한다'는 염원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런 경향은 북제주보다는 남제주 쪽이 강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제주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제주보다 개발이 덜 되면서 상대적으로 옛날 풍습과 전통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남제주 역시 북제주와 마찬가지로 사찰들의 활동이나 불자들의 신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북제주와 비교해 불자들의 신행이 더욱 자발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사찰과 스님이 신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불교를 이끌고 나간다는 점도 남제주 불교의 장점이자 특성이다.

도성 스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복지와 신도교육. 공부와 실천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소신을 신도들에게도 늘 강조한다. 종무원장 임기가 끝나면 선암사 등지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싶다고.

태고종사 간행委 이끌어

수열 스님 (남제주군 선광사 주지)



제주시 금붕사 수암 스님과 함께 태고종 제주교구의 핵심 인재로 꼽힌다.

수열 스님은 선광사 주지를 맡은 이래 34년 간 발로 뛰며 태고종 제주교구와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 땀을 쏟았다. 40대 후반에 제주교구 종무원장을 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종단 내에서 뜻 맞는 스님들과 태고종사 간행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아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서는 한편, 태고종 종승연구원장으로서 종학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태고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화합을 중요시 여기며,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신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영천사를 신도들의 사찰로

운곡 스님 (남제주군 영천사 주지)

태고종 제주교구의 종회의원과 사정위원장 종회부의장 등을 지내며 교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교구발전이 곧 제주불교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교구 일 외에도 신행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운곡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생활불교. 봉사단체, 합창단 등 영천사 신도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늘 사찰주인은 신도들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대웅전 불사와 영탑 불사를 통해 영천사를 '신도들의 사찰'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존자암 발굴 · 성역화 사업 진행

법정 스님 (서귀포 존자암 주지)



법정 스님은 존자암 주지로 온 이후 7년 동안 오로지 존자암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복원을 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法住記)'에 기록돼 있는 탐라국 발타라존자가 구백나한과 함께 한라산 영실에 법주도량을 개설해 중생을 제도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존자암 발굴작업을 벌인 한편, 국성재와 대웅보전 등을 건립하는 등 존자암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내부행사로만 진행돼 온 국성재를 불교계와 지역민이 참여하는 공식행사로 열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던 국성재 본래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음성포교 15년, 앨범 6장 발표

지범 스님 (서귀포 불광사 주지)



지범 스님은 효심이 지극한 스님, 노래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온 구순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산다. 스님의 노래에는 모정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배어있다. 음성포교에 나선지도 벌써 15년째. 지금까지 6장의 앨범을 냈다. 자신의 노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지범 스님은 욕심이 없다. 음반을 판매해도 수익금은 모두 불음보급회로 환원하고 있다. 지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KBS는 스님의 '모정불심'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내년 5월 방영할 예정이다.

운불련 · 법화불음봉사단 창립

관효 스님 (서귀포 혜관정사 주지)



출가 젊은 스님답게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불교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제주 운불련과 합창단인 법화불음봉사단을 만들고, 신행단체인 선우회와 법우회 등 10여개 신행단체를 이끌며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도왔다. 현재 제주교도소 교화위원과 제주경찰서 경승을 맡고 있다.

특히 관효 스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올바른 불교 공부와 사회회향. 서귀포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절=학교'라는 생각으로 불자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또 불교의 사회회향을 강조하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 · 문화 · 복지 종합도량으로

원조 스님 (서귀포 약천사 주지)



원조 스님은 주지소임을 맡은 지 3년 만에 약천사를 교육 · 포교 · 문화 · 복지 등을 갖춘 종합도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약천사에서 조계종 포교사 교육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등을 여는 등 사찰을 수련도량이자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돋움시켰다. '주지는 절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하며, 예불과 울력을 빠뜨리지 않는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사찰도서관을 만들고 개인장서만도 1천여 권이 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약천사 자원봉사단이 서귀포 36개 봉사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정도로 복지활동도 활발하다.


서귀포 약천사는 관광 사찰이자 수행 · 문화 · 복지 등 종합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조계종 국제포교사들이 약천사에서 한국문화체험 일환으로 서각을 하는 모습.

놓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최근 '구하루'를 복원하는 등 사격을 갖춘 법화사는 연꽃축제와 사생대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문화도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법화사는 또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 연화어린이집을 개원, 어린이 포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 수행도량인 남국선원은 수행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 월라사는 불교아카데미와 어린이 불교학교로, 선덕사는 군 포교로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혜관정사는 시민선방과 노인복지시설, 선광사는 어린이집 건립을 각각 추진 중이고, 존자암은 내년부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국성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남제주 불교가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과제는 남제주 북제주 할 것 없이 제주불교 전체의 숙제이기도 하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불교방송 건립이다. 과거에 한 두 차례 논의에 그쳤던 불교방송 건립은 제주 사찰들과 불자들의 염원이자 제주불교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융화도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별 마찰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이 더 흘러갈 경우 제주불교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제주 스님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태고종 제주교구의 일신도 필요하다고 제주 스님들은 말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 · 청주 두진빌라 · 안동 현대아파트 · 목동 우성아파트 · 일산 후곡아파트 · 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 · 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 · 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사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율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2005년 주요종단 결산

올 한해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은 수행체계 확립과 교육강화, 조직확대 등 내실 다지기에 치중했다. 또 해외교류와 대북지원등 폭넓은 대외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해동안 종단들의 활동상을 되짚어본다.

수행체계 확립 등 내실다져

간화선 대중화·사이버포교 활성화 박차

조계종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은 한국불교에 큰 충격이었다. 특히 법장 대종사의 유훈에 따라 시신과 장기가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되어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사진은 법장 대종사의 법구 이운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올해 조계종의 가장 큰 변화는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과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을 꼽을 수 있다.

법장 스님은 현직 총무원장 최초로 미국과 북한을 방문했다. 또 종교 지도자 최초로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9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원적에 들었다.

이어 지난 10월 치러진 32대 총무원장 선거 결과 지관 스님이 165표를 얻어 146표를 얻은 정련 스님을 19표 차로 따돌리고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등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공사계약해지, 관련 종무원 징계 및 해임 등이 이뤄졌지만 불씨는 잦아들지 않았다. 〈월간중앙〉이 9월호에서 불교중앙박물관 문제를 포함해 4대 의혹을 제기했지만, 8월호에 담긴 불교 폄훼 내용 때문에 참회를 하기도 했다.

또 불교환경의제21 확정, 스리랑카 복지센터 부지 확보,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발족 등이 이뤄졌으며, 작년의 대웅전 복원에 이어 신계사 만세루, 산신각, 요사채 불사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원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포교원도 올 한해 △간화선 대중화 △사이버포교 활성화 △군종특별교구 출범등에 주력했다.

포교원은 11월 23일 '간화선 기본 수행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간화선 대중화 작업에 들어갔다. 포교원은 또 10월 21일에는 청소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11월 3일에는 대학생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연구개발팀을 발족하는 등 계층별 간화선 포교준비에 주력했다.

또 전세계 네티즌이 볼 수 있는 조계종 국제사이트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예불을 올릴 수 있는 신개념 포교시스템 사이버 법당 '108월드닷컴'을 선보이는 등 사이버 포교도 활성화했다. 또 인터넷상에 잘못 게재된 불교지식을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군종특별교구가 출범했다. 이로써 효과적인 군포교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원의 올해 최대 이슈는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승개추)' 활동과 출가연령을 만 50세 연장이었다.

10월에는 많은 종도들의 관심속에 추진돼온 승개추 활동이 △기초(행자)교육 2년 △기본교육 4년 △전문교육 5년 안을 골자로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됐다. 승개추의 제도 개선안은 1995년부터 시작된 현 교육체계를 바꿔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002년 일부 고령 출가자들이 수행풍토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만40세로 제한됐던 출가연령도 만50세로 재조정됐다. 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공모전도 올해 처음 시행돼 운문사 종률 스님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만 불광산사가 운영하는 미국 LA서래대에는 근후 스님을 비롯해 석·박사과정 유학승 4명을 첫 파견했다.

미륵종·일승종, 종단협 가입…총지종, 불상봉안 실험

기타

미륵종과 일승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미륵종과 일승종의 종단협 가입은 3월과 11월에 각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가입종단은 2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음종은 태허대종사 유고문집 발간, 창종기념비 건립 등을 통해 2004년부터 진행된 개산조 기념사업을 매듭지었다.

또한 종단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사찰 신도회 개편작업에도 착수했다.

총지종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올해 초부터 시범적인 불단 장엄이 실시됐으며 6월 무렵 사원 내 불상 봉안을 추진하다 내부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불상봉안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한편, 오랫동안 개원이 미뤄졌던 사원들이 문을 열며 총지종은 지역포교 기반을 한층 다져나갔다.

평택으로 총무원을 옮긴 법상종은 올 한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단을 법인화해 합리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봉안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

원융종은 해외불교 돕기 사업을 꾸준히 벌여나갔으며, 불입종은 1사찰 1봉사단체를 결성하는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나갔다. 보문 원효 법륜 본원 대승 열반 여래 대각종도 종단역량 결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동방대학원대학 개교 불교문화전승관 착공

태고종

종단의 체질을 개선해 힘있고 믿음주는 종단을 표방했던 태고종은 올해 동방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고, 태고총림 방장 추대, 불교문화전승관 건립 착공식을 갖는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태고총림 활성화. 11월 10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제91차 정기중앙종회에서 제23세 총무원장에 재임된 운산 스님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하고 선암사 중앙율원(율원장 수진) 설립 등 총림의 사격을 갖췄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비구니계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태고종 비구니회는 1월 31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경기도 이천 무량사 주지 여초 스님이 선출했다. 비구니회는 교구종무원별로 매달 비구니 모임을 상설화 하고, 전국 분원장이 참가하는 정기총회와 초청 강연회도 분기마다 여는등 조직 및 교육강화 위주의 활동에 주력했다.

태고종은 종단차원에서 비구니 전문강원도 10월 울산 보덕사에 설립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파주 범륜사 강원이 폐쇄된 후 선암사 강원에 더부살이를 한 뒤 10여년 만에 설립된 강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방대학원대학 개교식 및 정상옥 총장 취임식 장면.

올해 3월 14일 개교한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는 전통문화와 동양사상을 양지로 끌어내며, 내년 입학정원을 200%나 늘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여타 대학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문화재 발굴로 잠시 주춤했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식이 9월 29일 서울 사간동 불사현장에서 봉행돼 내년말이면 완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해 종단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수했던 신용카드 제조업체인 (주)에이엠에스를 매각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북지원·해외교류 활기 호스피스협회 결성

천태종

천태종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의 핵심은 대북지원과 해외교류였다. 천태종은 3월 29일 북한의 개성 영통사복원위원회에 농사용 비닐 100톤과 묘목 1만그루등 16번째 대북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10월 31일에는 폐허된지 500년만에 개성 영통사 낙성식을 거행했다.

천태종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비누공장 합작설립과 석재광산 개발등 남북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고려 천태종의 본산이었던 개성 송산 서남 기슭에 위치했던 국청사 복원을 추진하고했다.

해외교류 사업의 경우 몽골과 파키스탄이 두드러진다. 4월 26일 몽골 국립대에서 박사과정 9명과 석사과정 12명 등 21명에게 장학금 5,000불을 전달한 천태종은 수도 울란바토르 2만4000여평의 부지에 사찰을 건립하고 있다. 또 천태종은 10월 덴마크 고광사 봉불식을 거행했으며, 11월부터 지진으로 발생한 파키스탄 지역 고아들을 돕는 '1가정1고아돕기 결연운동'을 펼치고 있다.



파키스탄 돕기 불교-이슬람 합동법회에서 성금전달 모습.

이밖에도 천태종은 호스피스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니르바나호스피스협회를 결성했으며, 해외 입양아 부모찾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불교문화복지운동 전개 종단 부동산 개발 나서

진각종

5월 20일 회정 정사가 제 27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진각종은 불교문화복지운동을 전개했다. 진각종은 이를 위해 문화인력 인프라구축 확대사업과 문화복지축제를 실시했다.

또 진각종은 11월 24일 KB부동산신탁과 부동산신탁 양해각서(MOU) 체결 조인식을 갖고 종단 소유 부동산의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에 나섰다.

조직도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전라교구청을 신설했다.

진각종은 스리랑카 네곰보 JGO센터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용된 파나두라 갈고다(Galgoda Camp)사찰등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주민 2000여명을 시술했다.

김원우·남동우·강유신·조용수·이은비 기자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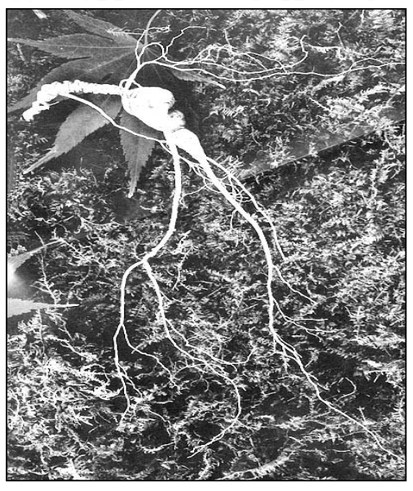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元·氣·回·復 송년 및 새해맞이 특별할인가 대 판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2006년부터 작은손길 대표로 활동할 예정인 송호무씨(왼쪽에서 두번째)가 12월15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지하광장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노숙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침낭은 안 주나요?

102회 맞은 '작은손길'의 노숙인 거리야간상담

연일 옷 속을 파고드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남부지방은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밤이나 낮이나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다.

12월 15일 밤 9시, 서울 을지로입구역의 지하 광장도 춥기는 마찬가지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쾌한 캐롤 음악과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제외하면 을씨년스러움 그 자체다.

지하 광장에 노숙인들이 두꺼운 박스를 들고 하나 둘 모여든다. 박스를 바닥에 깔고 몸을 그 위에 얹기 위해서다. 깔개 없이 시멘트에 앉아 보았다. 뼈가 시릴 정도로 한기가 느껴진다.

잠시 후 '작은손길'(대표 김광하)의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0여명의 상담원들이 따뜻한 차와 커피를 들고 지하광장에 도착했다. 2003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 밤마다 진행하고 있는 '거리야간상담'을 하기 위해서다.

작은손길이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사명당의 집' 전형준 간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노숙인들이 동생을 만난 듯 반갑게 맞이한다. 가

매주 목요일 '거리야간상담' 2년째
따뜻한 미소에 속내 털어놓기도
상담 봉사자 중 노숙인 출신 적지 않아
"삶의 의지 없는 것 아니죠" 관심 호소

정불화로 얼마 전부터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김순석(63 · 가명)씨는 전 간사에게 지난 일주일간의 얘기를 '숨도 쉬지 않고' 털어 놓는다.

사실 노숙인 거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위 노숙인들과도 이렇다 할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 벗'이 생긴다는 것이 노숙인들에게는 큰 행복이다.

신용수(39 · 가명)씨와 박경식(38 · 가명)씨는 자원봉사자들을 보자마자 대뜸 "침낭 없냐?"고 묻는다. "오늘은 없다"는 설명을 듣고도 "2주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침낭을 받았다고 해서 용산에서 일부러 왔다"며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작은손길은 12월 1일 거리야간상담 100회를 맞아 침낭과 속옷, 양말 등을 나눠줬었다.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는 "워낙 추운 날씨여서 노숙인들이 겨울잠바와 바지, 침낭 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이렇게 을지로입구역 지하광장에서 노숙인들과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눈 작은손길 상담원들이 다시 짐을 챙긴다. 걸어서 5분정도 거리에 있는 서울시청역 노숙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서울시청역의 노숙인 집결지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가까워서인지 찬 바람이 더 매섭다. 내년부터 작은손길 새 대표로 활동할 송호무(51)씨가 누워있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안부를 묻지만 피곤한 듯 반응이 없다. 그래도 송호무씨는 "낮에는 신설동에 있는 사명당의 집에 와서 쉬다 가시라"며 약도를 건넸다.

그동안 작은손길은 거리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노숙인들을 만났다. 남대문에서 부부와 아이가 함께 노숙을 하고 있어 방을 얻어줬지만, 3개월만에 연락이 끊겼다. 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한 노숙인은 다시 일을 시작해 지금은 가끔 거리상담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날 거리상담에 나온 자원봉사자들 중에도 노숙인 출신이 적지 않았다.

의정부에서 PC방을 운영하며 상담에 동참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노영자(30)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노숙자들을 볼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노숙인들이 결코 게으르거나 삶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거리상담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기 시작할 시간, 작은손길 상담원들은 다시 보온병을 챙겨 사무실로 향한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따뜻해진 보온병의 물이 노숙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거리야간상담에서 침낭을 받기위해 줄을 선 노숙인들의 모습.



작은손길 상담원들이 노숙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다.

불교계 노숙인 자활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절실

복지시설 11곳 불과, 재정 뒷받침 필요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노숙인 숫자는 4000명 안팎이다.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노숙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은 쪽방이나 여인숙,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노숙인의 수는 대략 1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노숙인 정책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불교계의 노숙인 지원활동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복지 시설은 서울과 부산, 구미의 '보현의 집' 5곳과 작은손길 '사명당의 집', 우리는선우 '화엄동산' 등 11개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시설들 대부분이 쉼터 기능이외에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스님이나 사찰, 불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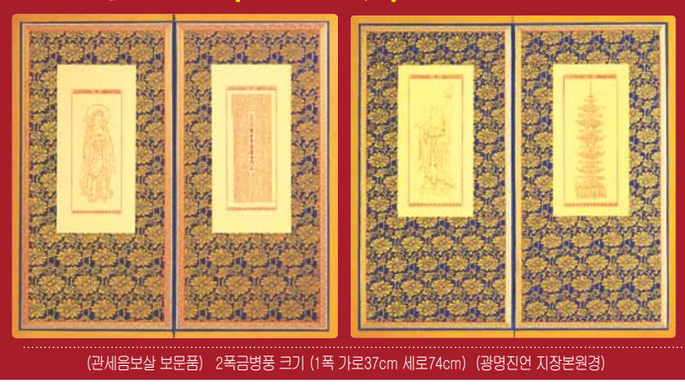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불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노숙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사찰에서 월 1회 이상 노숙인을 주제로 한 법회를 진행하거나 노숙인 관련 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숙인들에게 사찰을 개방해 쉼터로 제공한다면 그들의 재활과 포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찰 소유 농지를 이용한 1사찰 1노숙인 귀농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노숙인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작은손길 이주원 사무국장은 "불교계의 장점을 살린 노숙인 천도재를 정기적으로 봉행하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노숙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야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生命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이웃찾고 신심다지며 아듀~2005

직장불자회들 연말모임 참회 · 나눔활동 늘어
실천불교 되새기는 새 신행문화 정착 기대



그림 · 박구원

"흥청망청 망년회요?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음식점에서 회포를 푸는 연말모임 대신 참회와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직장불자회들이 늘고 있다.

직장동료와 가족이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습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新 풍속도가 됐다. 나아가 부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향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새로운 신행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환경문화학당'으로 을유년을 열었던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참회'와 '발원'의 송년법회를 마련했다. 12월 20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열리는 송년법회는 108참회, 새해 발원문 작성 등 여느 법회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1월 결성된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봉사단도 연말 의정부 선재동자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같은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소속인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2월 3일 봉화 청량사에서 신입회원과 가족들을 위한 수계법회로 올해를 회향했다.

창원 GM대우 불교법우회는 정진과 나눔으로 을유년 회향을 준비했다. 12월 17일 창원 성주사에서 1080배 철야정진을 진행한데 이어 18일에는 정기적인 후원 ·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해 보현행원재가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 8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12월 3일 일일찻집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

고려대의료원 불자회는 12월 18일 안산 보문선원을 찾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로 구슬땀을 흘리며 한 해를 정리했다. 23일에는 의료원내 회의실에 모여 참회정진 송년법회를 연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도 스리랑카 조계종마을에서 의료봉사로 새해를 맞을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불자회는 거리에서 잊혀져가는 고유명절인 동지의 의미를 전하는 포교활동으로 마무리한다. 송년법회 대신 농협중앙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최로 12월 21일 서울 인사동 전통거리에서 열리는 동지팥죽 나눔의 행사 자리에 동참하기로 한 것.

앞서 우리은행 불자회는 12월 10일 아동복지시설 상락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송년의 의미를 새겼다. 14일 열린 송년법회에서도 소년소녀가장 2명을 선정해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력인불자연합회와 한전반야회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을 소쩍새마을에 전달하며,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는 지역회별로 복지시설과 결식아동을 도우며 올해를 마감했다.

또 올 5월 창립 직후 회원들 모두가 불교대학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12월 14일 정토사에서 졸업 · 회향식을 열었다. 이날 성남시청 공무원불자들은 송년모임 대신 회원 배가를 위한 일터포교활동으로 새해를 맞겠다고 다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산림불교' 감쇄 위기
제작 · 발송비용 빚 누적

2000년 국립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 창립과 함께 발행되기 시작한 회보 <산림불교>가 재정난으로 감쇄 위기에 처했다.

이태수 <산림불교> 발행인은 12월 14일 "회비 일부와 사비, 후원금 등을 들여 6년여간 <산림불교>를 제작 · 발송해 왔으나 부족한 비용이 누적돼 발행부수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불교>는 산림과학원 불교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인근 사찰의 스님들에게 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불교 교리와 불교계 소식 등을 실어 직장불자 소양 교육을 위해 매월 한차례씩 발행되기 시작했다. 산림과학원 직원과 재가불자 등의 호응을 얻어 제작부수가 3000부까지 확대됐으며, 전국 관공서 불자모임과 시 · 군 문화원, 교도소, 대학 불교학생회 등에 배포돼 왔다.

이태수 발행인은 직장을 정년퇴임한 후에도 <산림불교>를 꾸준히 발간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 제작 · 발송비용이 빚으로 누적되자 지난 8월부터 발행간격을 월1회에서 격월로 변경했다. 이마저 사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년부터 발행부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태수 발행인은 "직장내에서 순수한 열정과 신심으로 신행활동을 펴는 직장불자들의 어려운 여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불교계의 풍토가 안타깝다"며 "직장불교를 후원하는 사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2644-1460 박봉영 기자

스님신발 아이젠부착 수행화 출시
눈길 빙판길 간단히 아이젠만 열면 안전보행

스님승복과 잘 어울리는 색상
인체공학적으로 만든결정체



보살님전용

아이젠이 닫힌상태

아이젠이 열린상태

겨울철만되면 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고통을 주는것이 눈과 빙판길이다. 매년 많은 스님께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큰 곤경을 당하곤 한다. 국내 최대의 전문성신발 메카인 삼양통상(주)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만든 **수행화**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아이젠**(미끄럼방지기)이 부착되어 있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간단히 아이젠을 열면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고품격 천연가죽과 최첨단 신소재인 NOAH-TEX로 제작된 **아이젠부착 수행화**는 발열기능이 있어 외부온도가 영하-10℃일때 신발내부온도를 7.5℃상승시켜 겨울에 대단히 따뜻해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99%방수되며 대단히 가벼워 장시간 만행에도 발의 피로가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이다. 추운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수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병술년 새해 무량대복**을 받을것입니다. 출시기념 할인가격 98,000원 전화로 신발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신청전화(02)735-6921**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훔 밸트
삼불의 지혜와 음양의 조화로 만사형통!

건강의 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세상을 살다보면 악귀와 잡귀의 방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광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지혜를 얻어 만사가 형통되는 옴마니 반매훔 법구밸트가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한다. 옴마니반매훔은 음향의 조화로 어려움에 처했을때 삼불의 지혜를 얻어 해결되고 꼬였던 문제가 풀리며 동서남북의 복을 들어오게 하는 영험으로 하는일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지닌 법구 밸트다. 일반밸트와 달리 밸트에는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장과 허리도 튼튼해지는 고급 천연가죽으로 된 고품격 자동밸트로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선물로 인기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사찰에도 최고!



불교TV와 123개의 다양한 채널 3개월간 시청료 무료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 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스님? 수맥파 차단카드 가지고 다니세요
-산속사찰 90%이상 수맥흘러 스님 건강 해쳐!-




멜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영국과 프랑스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등판을 깐다. 병상밑에서 발산되는 수맥파 때문에 치료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사들은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할때 치료효과가 없을시 환자의 가정에 수맥파를 탐사하는 일이 종종있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있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젊었을때는 모르지만 연세가 들수록 암, 중풍, 치매, 당뇨, 고혈압, 뇌졸증등 중증질환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사찰이 대부분 산속에 있서 산속생활하는 스님들께는 연세가 들수록 수맥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갑자기 위험한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님께서 만행하실때에는 수맥파카드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시다 주무실때 베개밑에 놓고 주무시고 멜토차단캡은 사찰내 거주하시는 방구석 또는 베개속에 넣고 주무시면 머리가 대단히 상쾌하며 몸이 유연해 지는것을 다음날 바로 느낄수 있습니다. 러시아과학원과 한국수맥학회에서 제작된 수맥파 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3시간정도 햇볕에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02)735-6921 농협053-12-102911 김남룡

신일 통증없애는 토션매트 출시
매트위에 1시간만 누워도 통증완화되고 활력있는 컨디션 유지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통증
각종통증, 토션에너지 발산으로 통증사라져

평생 고행의 길을 살아온 스님들께 꼭 필요한 매트가 신일산업(주)에서 출시되어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민족선풍기인 신일선풍기가 말해주듯 53년이란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신일산업에서 만든것도 인기의 한몫을 차지하지만 일반매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 때문이다.

요위에도 침대에도 최고 사계절용
스님의 원대한 불사를 위해 꼭 필요한 매트

브랜드를 러브라고한 이 매트는 러시아에서 발명한 토션에너지를 발산해 각종통증을 부작용 없이 완화시켜 주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매트내부에 숯, 황토 부직포를 넣어 원적외선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활력있는 생활을 돕는 파동에너지까지 발산되는 매트다.

금사로 만들었고 겨울에는 전기만 꽂으면 장작불을 땐 구들장 아랫목 같이 뜨끈뜨끈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치동에 사는 공무원 P씨는 아버님이 젊어서 부터 고생을 많이해 항상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파 여러방법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어 우연히 신문에 난 신상품 기사를 보고 신일산업(주)에서 만든제품이라 믿고 구입해 드린후 아침에 아버님께서 그매트 참 좋다고 하시며 아픈통증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 본인도 침대위에서 사용할려고 하나 더 구입했다고 할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일산업은 취침문화가 침대문화로 바뀌면서 침대용으로 했으나 연세 드신분들이 요위에 더 많이 깔고 사용한다고 한다. 평생 고행으로 몸은 망가져 아파도 아픈 내색을 안하는 스님께 원대한 불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드리는 매트가 될것이다. 가격396,000원 스님 또는 스님께 보시 하는것은 10%DC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전화(02)735-6933 농협053-12-102911 김남룡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각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각시식	사물	바라나비춤	경전

학인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사주명리학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 기타
주2회(1회2시간씩) 4개월간
초보에서 간명연수까지
책임완성 (수강과 동시 부업가능)
6호선 망원전철역 2번출구 인근
해동명리교육원 02)336-8484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립사 도원 합장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빠짐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 전수자 모집
기초부터 특수반까지 여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무 작법무 기타 법무
개인지도 각 행사 대행해드림
영남불교전통범음범패전수원
051)554-1518
011-849-0961

정통 中國 六壬家의 소장비본
육임학 비법전수
- 평생운, 流年運, 인간사 吉凶의 정확한 예측법
- 육임 공부 후 課, 傳 해석이 안 되시는 분
- 타 지방 거주자 통신강의 가능
매월 2,4주 목요일 무료공개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 육임학 전문 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통도 바람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황토베게
• 한방(신침): 장수, 일명 수험생 베개
• 국화꽃: 두통 스트레스 해소
• 결명자: 눈 밝아짐, 숙면, 두통
• 녹차: 심신안정
• 약쑥: 신경통등
단체주문 할인 판매점모집
0505-817-142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무보시 제 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 49재 의식, 천도의식
2. 다라작법 3. 사물
055)381-1199
055)383-6676

참선공부 하러 오세요
선방개방(무료)
매일 오후 1시~ 4시(3시간)
저녁 7시~10시(3시간)
참선수행을 배우고 싶은 분은 별도지도해드림
부산 북구 화명동 지하철 수정역 1번 입구
4층 여래선원
051)362-0339

암 무량보시 무료로 드립니다
약초 하수오 효능
KBS무한지대 효과 효능 특효
※ 머리를 검게해주고 암 당뇨에 좋습니다
• 달마사스님 - KBS, MBC
약초재배 방송방영
직접재배하고 있음
051)724-0755
011-857-3775 달마스님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님)

사주명리학 관심있는분
용신 및 격국 위주
12운성, 12신살
5인이상은 출장강의
주1회는 범패강의합니다
천수바라, 도량계, 화청, 법고지는법 等
054)433-631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오래된 조용한 암자에서 계실 신심있는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011-9126-2266

각 지역에서 활동하실 화주보살 모십니다
(불사현장 답사환영)
010-6753-1119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위치 : 조계사 앞
02)733-0108

야간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 전공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포항
017-502-73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사찰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무경력자도 가능함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041)673-2333
011-9810-8887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조곶이 180개
• 대불 모실분에게 3,000만원 드리겠습니다.
•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2회 분할가능)
010-6512-1237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031)971-0208

사람을 찾습니다
덕림(채웅기) 덕진(양태웅)
덕주(김보경) 덕신(최근배)
상기 스님의 연락처를 아시는분 또는 본인인 경우 연락바랍니다
심광사 주지 담호
042)282-9270, 7188
대전시 동구 천동 106번지

포교당이나 철학관하실분
제기동 경동시장 재일학원뒤
천은당한의원 안채 한옥한채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역학 동양의학에 관심있는분
02)964-3687 천은사
018-601-33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5세 - 55세
02)938-7957

심관법, 선요가 기도법, 타심통, 대체의학을 이룬 소납이 인연을 기다립니다.
새로 창건한 사찰이나 80평이상 포교가 어려운 회주님 및 창건주 분들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508-6330
무운스님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비구승 부전자리 원합니다
(보살님 운영하는 사찰이나, 개인사찰 전체를 맡아 운영하고 싶습니다)
017-571-5599

부전스님 모십니다
▷인천 부평
032)522-813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5~55세이하)
대한불교조계종사찰
울산남구 시내,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강촌 절터 108평 사실분
(남·녀스님 계실분)
공양주 구함
011-370-5904

절이나 포교당, 운영어려운 곳에 주지를 원함
절을 크게 발전시킬 원력이 있음
38년간 선수도법 깨달음
(경상도 지역 원함)
018-511-1183

공양주, (女)사무직, 비구니부전스님 신원확실하고 건강한분 모십니다
(40~50대) 조계종 사찰
011-538-15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조용한 사찰에 가족처럼 지내실분
▷전남 나주
011-9619-3620
061)337-36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9723-0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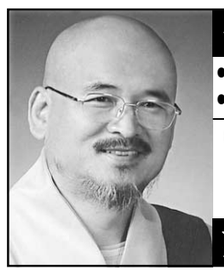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76-2737

공양주보살 및 막일할 처사구함
▷보시 각 80만원
행자모집합니다
010-3070-3535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대한불교 대승종 종도대회

• 일 시 : 2006년 1월 4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흥도사 설법전
서울 중구 신당 4동 33-250
☎ 02)2234-2198

위와 같이 대승종 정기 종도대회를 개최하오니 수희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천 청화 합장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절하는 법 통일 발원 새해맞이
54회 3000배 용맹정진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세계전법을 위한 특별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 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특별 선물 : 청견스님 친필 "佛"자 붓글씨, 2006년 예쁜 달력(大, 小)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5년 12월 31일(토요일) 저녁 9시 ~ 2006년 1월 1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 / 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황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발·배·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칠,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 위치: 강원	● 위치: 부산
● 법당: 15평	● 법당: 23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요사: 20평	● 요사: 120평
● 부지: 3000평	● 부지: 5900평	● 부지: 107평
● 가액: 3억5천	● 가액: 3억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시내 큰절구함
2.창원사찰1200평-1억5천
3.수유포교당40평-2천/70
4.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5천 6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찰안내

● 위치 : 원주 구곡단지내
● 대지120평 건평80평
1층 50평 요사,
2층 30평 대웅전
● 가액 : 5억
(은행 1억8천 설정)

※ 비구니 스님 수행처로 적합

010-9292-4828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대구시	● 위치 : 경기도
● 대지 80평	● 부지 : 6천평	● 대지 130평
● 법당 30.	● 법당 35평	● 법당 20평
● 요사 90평	● 요사 100평	● 요사 20평
● 양도가 5억	● 양도가 13억	● 양도가 5억
● 도심포교사찰임	● 산세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688-3521 / 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닷가
● 대지: 800평, 건물 : 약 200평
● 100년 역사와 전통의 명찰 도량
대웅전 칠성각 종각 2층 요사채
사찰 및 포교당 토굴 사찰부지 다량확보

연산공인중개사무소
(사찰전문부동산)

011-560-8522 (직통)
051)863-6661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토굴,사찰, 선방부지 안내

● 위치: 지리산~덕유산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 50m
● 관리지역 : 대지,잡종지,전 합1600평
● 건물현황: 황토방5동,강당1동, 창고2동,사무실1동,취사동1동
● 이전관계로 매매 합니다.
● 매매가격 5억2천

주인직 010-3684-9288
오후 2시 ~ 6시사이 통화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불로동
4층건물의 3층
● 평수 65평, 법당 50평, 주방1, 방3,
● 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소불 200불
● 가액 : 1700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509-1525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30평 구가옥, 차고
● 산을 끼고 있음, 밭있음. 총 2300평
● 가액: 3억 융자 7900만원

010-3179-297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영덕 풍력단지 내 영덕대게 특구지역
● 평수 : 940평
전용허가 200평
● 진입로 포장
상수도 완비

010-7109-32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600평
법당: 25평, 요사: 37평
● 가액: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55)271-8496
011-768-8744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이주단지 옆
● 삼존불, 삼성각 시설완비
● 전비 합 2500만원 월세 무
텃밭등 900평

011-9237-3079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면 촉동 마을 마을에서 200m 조용하고 공기좋음
● 대지 200평, 건물 20평 밭 1000평 총 1200평
● 가액 : 1억4천만원

010-3922-934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앞 ● 평수: 40평
●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절충

010-4846-5194
052)295-3700

사찰안내

● 위치: 전북완주
● 부지 : 700평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2동
● 가액 : 2억

011-9643-7897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파계사옆 차로3분거리
● 절터 평수 662평
● 대로에서 산속으로 850m 인허가 받아줌
● 가액: 9억

010-3120-4017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진주~대구간 4차선 도로 확장중
● 대지: 96평
● 방4개, 욕실2개, 마당넓음, 주방, 화장실, 주차장
● 가액: 5천만원(절충가능)

055)932-9917
010-7179-9035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561번지
● 전: 773평
● 가건물(콘테이너 2개) 산신당, 용왕당 거북바위 70평
● 가액: 2천5백만원

011-299-4465

좋은 포교원 안내

● 위치: 남포동 유동인구 최다 (위치 최상)
● 평수 : 58평 (엘리베이터 유)
● 가액 : 3천 8백만원, 月50만원.
● 시설 : 법당 20평, 나머지는 한옥식 황토온돌방 4개, 욕실, 주방 (시설비는 보시고 결정)

051)248-2489
011-301-4949

포교당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5평7층건물중 5층
● 시설위치 A급
● 법당, 사무실, 공양간, 방4, 목욕탕, 화장실2 실내 소각장 완비
● 가액: 은행 융자 2억 포함 4억 4천 급 양도

011-749-455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유어면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7천8백만원

016-652-7547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층,3층 합 70평
● 2층 : 대중방, 접견실, 스님방
3층 : 법당(삼존불, 지장보살, 산신-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167-1774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가액 : 3억 5천만원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중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몰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18평, 등기상 623평, 실평수 1500여평, 주지실 : 목조흙집으로 5평
● 가액 : 1억6천만원(가격절충)

yaksaam.wo.to (사찰전경)

사찰(부지) 안내

● 바닷가, 수행처 적합한 곳 ● 평수 : 1천여평,
● 전용허가 200평, 상수도 도로 완비

010-7109-3281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 (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청법가 · 사홍서원
· 찬양합니다 · 법문 · 산회가
· 반야심경 정근 · 기타찬불가
· 입정 · 발원 및 축원

● 기초교리
1. 불교란? 12. 삼업
2. 부처란? 13. 삼학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4. 신도오계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5. 사성제
5. 사찰경내 예법 16. 사섭법
6. 합장과 반배 17. 십이인연
7. 고두례 18. 육바라밀
8. 예불문 19. 팔정도
9. 삼보 20. 보왕삼매론
10. 삼귀의
11. 삼법인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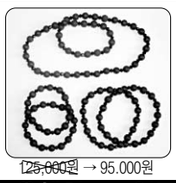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심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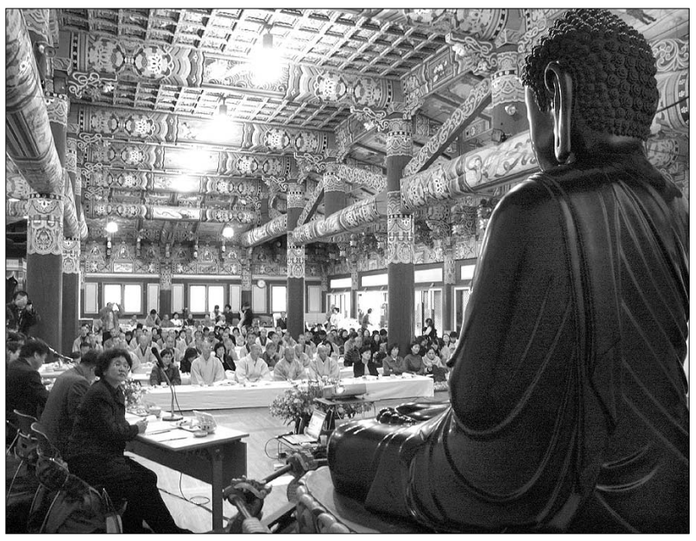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9세기作”

지난 7월 4일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음을 알리는 명문이 공개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을 주제로 한 ‘해인사 비로자나불 학술강연회’가 12월 10일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열렸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미술사학과), 김리나 홍익대 교수(예술학과), 김상현 동국대 교수(사학과), 박상진 경북대 교수(임산공학과), 남풍현 前 고문서학회장 등 학술강연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해인사비로자나불이 9세기 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12월 10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학술강연회를 비로자나부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미술사 · 과학적 분석 결과 전문가들 의견 일치

‘대각간=위홍 說’ 부정적 … 고증 거친 개금 과제로

● 풍만한 신체, 석굴암 본존불과 닮아

이번 학술강연회 관심의 초점은 법보전 비로자나불이 과연 묵서에 나타난 대로 9세기에 제작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불상 내부에서 883년작임을 알리는 명문이 발견됐음에도, 학계 일각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로자나불을 미술사적으로 접근한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의 풍만한 어깨 · 팔 · 얼굴이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 9세기에 유행한 양식으로 석굴암 본존상(751~753년)이나 남산 약수곡 약사여래좌상 등과 닮아있고 ▲옷주름이 두텁게 층단을 이루며, 큰 주름 사이에 들어간 부분이 볼록하게 나타나는 번파식(翻波式) 양식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8세기 말~9세기 초 작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그간 비로자나불을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한 오류에 대해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목조불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 ▲육계에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어 후대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리나 홍익대 교수는 “고려나 조선시대의 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드럽게 늘어져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이 경주, 경상북도 지역의 8세기 말에서 9세기 상들과 친연성(親緣性)을 보인다”며 강우방 교수 의견을 지지했다.

강우방 교수의 주장은 박상진 경북대 교수에 의해 또 한번 강력하게 지지됐다. 박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서 채취한 표본을 서울대에 AMS(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 분석을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의거 박 교수는 법보전 비로자나불이 AD740년 전후부터 950년 전후,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이 AD950년부터 1090년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신뢰한계 95.34%).

박원규 충북대 교수(산림과학부)도 “탄소연대의 측정오차와 변동오차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두 불상은 9~10세기 것임이 분명하다”며 “연륜연대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묵서명의 문체도 제작연대가 9세기라는 설을 뒷받침했다. 남풍현 前 고문서협회장은 “ ‘(좌측)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우측)誓願大角干主燈身賜弥右座妃主燈身○○’라는 명문을 한문어순으로 해석하면 뜻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자어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해놓은 초기 이두문 형태이기 때문이다.

초기 이두문으로서 한문적인 표현을 담은 동해시 삼화사철불(860년대 추정)의 것과 유사하다”며 “9세기 들어서 이런 문체가 널리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우방 교수는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선후에 대해 AMS분석 결과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강 교수는 “미술사가는 양식으로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며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에 번파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부처리가 깔끔한 점, 그리고 883년이면 나라가 기울어 조각 솜씨가 하향세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후에 대적광전 비로자나불과 같은 불상이 조성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이 먼저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묵서의 ‘대각간’은 위홍인가?

해인사 비로자나불 내부에서 명문이 공개됐을 당시 “대각간은 각간 위홍이며,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진성여왕이 각간 위홍을 위해 조성했다”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위홍과 진성여왕에 해당한다”는 등의 설이 제기됐다. 심지어는 이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염원하여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위홍의 관등이 875년에 이찬이었고, 죽은 해인 888년(진성여왕 2년)에는 각간이었다”며 “그가 883년에 대각간이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883년은 이들이 살아있던 때여서 통상 사후에 발원의 의미로 불상을 조성하는 대개의 예에 비추어 두 비로자나불과 위홍 · 진성여왕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도 대각간이 먼저 오고 ‘妃’가 다음에 온 점을 주목하며 “엄연히 왕이었던 진성여왕이 대각간보다 뒤에 올 리는 없다”며 “위홍과 진성여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불상 연대추정에 AMS분석 첫 적용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두 비로자나불의 조성연대를 둘러싼 잡음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9세기 作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상의 연대 추정에 AMS분석을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명문의 발견부터 연구성과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김상현 교수는 “조사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복장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명문과 불상만 갖고 연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복장과 분리해서 연구하다 보면 연구 성과가 쉽게 뒤집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리나 교수도 “법보전 비로자나불 고찰에는 표현의 양식적인 특징, 상 내부에 있는 기록의 내용해석은 물론 함께 들어있던 복장 내용물이 중요하다”며 “이런 재료를 통해 공통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나온 500여점의 유물은 밀봉해서 보관 중”이라며 “추후 복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보전 비로자나불에서 나온 복장유물에 대한 연구까지 이뤄진다면 비로자나불에 대한 훨씬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로자나불의 계주와 나발의 처리와 개금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계주와 나발은 통일신라시대 것이 아닌 고려와 조선 불상의 특징으로, 비로자나불이 9세기 것이라고 한다면 어울릴 수 없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또 개금은 불상의 인상을 상당히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엄밀한 고증을 거쳐 개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해인사측은 현재 법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개금을 1월 중순경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그 전까지는 CT촬영이나 X레이 촬영 등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글 · 사진=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3>

유비쿼터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미아 사고는 약 3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부모를 찾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평생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수 억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이 수천 원에 불과하고, 단추만 누르면 세상 어디에 있는 친구와도 통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사의 지구 사진을 즉각 받아 볼 수 있는 오늘날에도 미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삶의 문제와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지난 30년간의 컴퓨터나 통신 기술은 기계 중심적인 기술의 전개였다. 컴퓨터가 있으면 인간이 그 컴퓨터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1950년 대 IBM이 컴퓨터를 소개하고 나서, 당시 컴퓨터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컴퓨터가 3대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 컴퓨터의 용도를 과학적 계산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IBM PC가 개발되고 나서, 개인이 PC를 여러 대씩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PC 시장은 폭발했고, 전 세계 전자 시장,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 많은 가정에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온세상 구석구석 컴퓨터 시스템 구축

인연의 그물에 얽힌 화엄경 세계 연상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어디에서나 산재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주위 모든 것에 계산(혹은 컴퓨팅)기능을 가진 컴퓨터가 산재한다는 개념이다.

환경을 인지하고 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컴퓨터 환경이 스스로 가장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GPS(지구 위치 추적 시스템)를 장착한 자동차, RFID(무선 인식 시스템) 센서를 장착한 홈 네트워크, 그리고 환경 센서를 장착한 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GPS의 가장 큰 목적은 속도위반 방지다. 자동차의 속도와 주위의 속도 단속기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운전자나 아니면 자동 운전 장치에게 속도의 변화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 물건 등에 무선 기능을 가진 먼지만한 칩을 장착해 두면, 무선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 물건과 사람의 정보를 탐침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 쉬워진다. 따라서 미아 발생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이다. 자동차에 부착된 RFID는 자동차 차폐기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주차장에 도착 전에, 가장 가까운 주차 공간을 컴퓨터로 가르쳐 줄 것이다. 공원의 나무에 장착된 센서는 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세계는 화엄경의 세계를 연상케 한다. 이 세상 만물이 인연의 그물에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 인연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망찰해(帝網刹海)’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유비쿼터스의 세계에서는 세상 어느 구석에서의 일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빠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기술이 좋은 부처님 인연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빌어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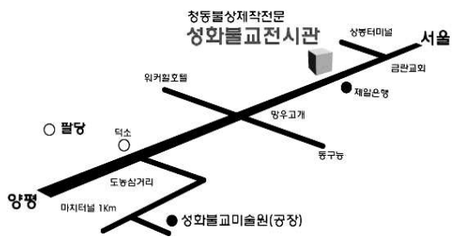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기 2550(2006년) 병술년

신년 축하광고와 함께 합니다

범 종단 정론지 현대불교신문!
불기 2550(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오며,
희망의 원을 함께하고자 신년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불교 각 종단 및 사찰, 단체 등
● 준 비 : 축하말씀, 명단, 관련 이미지 등
● 원고마감 :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2004-8214 ~ 6 / 팩스 02)737-0697
이메일 jabi1522@empal.com

● 각 지역 문의 및 접수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 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경남서부일원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충북지사	대전 / 충북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병수	052)272-0909 / 011-862-5282

일주문



민주평통자문회의 감사패 받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12월 14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연말 활동 평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주사 발전방안 주제 간담회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12월 21일 오후 2시 궁현당에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법주사 발전방안 주제 간담회를 갖는다.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12월 31일 오후 10시 종루와 특설무대에서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를 연다. (02)3218-4823



부산 부성정보高 이사장 취임

부산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은 부산 부성정보고등학교 이사장 취임, 12월 1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대구지역 경승모임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2월 13일 중부경찰서 경승으로 위촉돼 23일 오후 7시 대구지역 경승모임을 개최한다.(053)766-3747



교류 위해 필리핀여大 등 방문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12월 14~17일 필리핀과의 교류활성화와 해외 인턴십 교육을 위해 필리핀여자대학, 필리핀 공과대학 등을 방문했다.

2005 화제의 인물

'내원암 지키기 ' 이끈 혜문 스님 친일파 후손 땅찾기에 '위헌' 논리로 대응

12월 8일 국회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해방 후 처음 마련됐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불교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친일행위자 이해창 후손이 내원암 경내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불교계는 친일파 재산 보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고, '친일청산과 민족정기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법회' 등을 열어 특별법 제정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계 활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남양주 봉선사 혜문 스님(사진)이다. 봉선사 총무과장 소임을 보고 있는 혜문 스님은 이해창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각종 사료를 검토하고, 법전을 뒤지며 대응논리를 개발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아이디어를 고안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 즉 3 · 1정신을 부각



시킨 것으로, 민법의 재산권 논리에 밀려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에 속수무책이던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혜문 스님이 이끌었던 내원암 지키기 '운동'은 불교계의 역사바로세우기 의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봉선사의 항일 전통이 재조명받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혜문 스님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회암사지 유물 반환소송을 전개하는 한편, 삼성을 상대로 현등사 사리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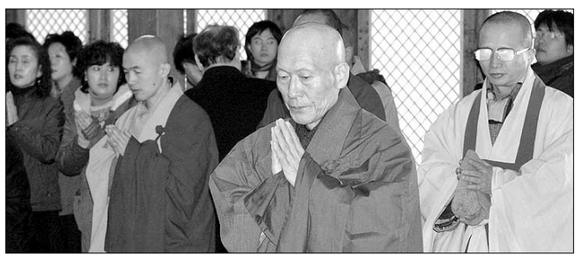
특히 회암사지 유물 반환소송 건은 소유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불교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상유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혜문 스님은 "내원암을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이나 넓은 의미의 역사바로세우기"라며 "이를 통해 정의가 생동하는 부처님의 정토가 구현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이 부자되는 길"

서울 길상사 창건 8주년 법회 법정 스님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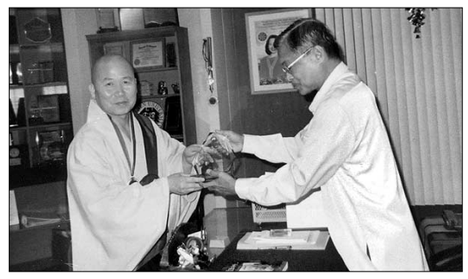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가 창건 8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12월 11일 3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덕조 스님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사찰이 발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수행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법회에 모습을 드러낸 법정 스님(길상사 前 회주)도 특별법문을 통해 "부자가 되려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가 '부자절'이란 말을 듣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웃과 함께 나누고 청정한 수행과 교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길상사는 진정한 부자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상사 대중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혜자 스님, 필리핀 고등교육문화대상



혜자(서울 도선사 주지) 스님이 12월 13일 필리핀 고등교육부 청사에서 '고등교육문화대상'을 받았다. 필리핀 대통령 직속기관인 고등교육위원회는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사회교육에 이바지한 사람을 선정해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이날 "동남아시아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륜종 비구 · 비구니계 수계법회



법륜종(총무원장 탄공) 비구 · 비구니계 수계법회가 12월 12~15일 양평 법화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10명 사미와 1명 사미니가 각각 비구 · 비구니계를 받았다. 계사인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은 "오늘 계율을 받아 참다운 불제자가 됐으니 물러섬이 없는 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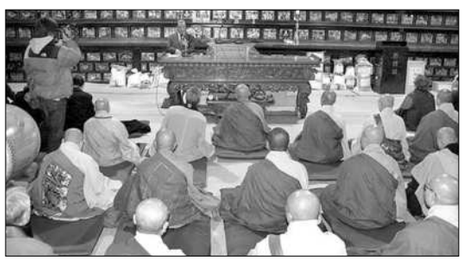
불자가수회 창립 14주년 기념법회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 창립 14주년 기념법회가 12월 1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봉행됐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김흥국 회장은 "국군장병과 장애인들을 위한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불음 포교하는 불자가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810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2-2403

청와대불자회 송년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병준) 송년법회가 12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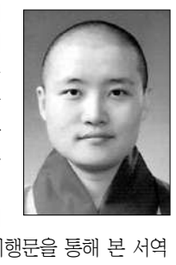
본원종 태허 스님 2주기 추모법회 봉행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12월 14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종정을 역임한 태허 스님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종회의장 대운, 포교원장 대련, 염불원장 대황, 총무부장 만혁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대화 스님은 "태허 스님의 업적과 덕망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 정진하자"고 말했다.

운문사 종률 스님 대상

강원학인 논문 공모전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강원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운문사 강원 대교반 종률 스님(사진).

'법현 · 현장 · 의정 · 혜초 스님의 기행문을 통해 본 서역구법활동 고찰'은 인류의 문화 및 종교 ·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서역구법승들의 활동이 담겨있는 4대 여행기를 분석했다.

종률 스님은 "1200년 전 문명세계를 호령했던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역사적의 우수성을 종교적 · 인문학적으로 재평가 해보고 싶었다"며 논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7년 전 비구니 강사 설오 스님을 은사로 수덕사 견성암에서 출가한 종률 스님은 "아직 초심자라 더 배우고 익힐 것이 많다"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만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고 싶다"며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조용수 기자

2005 신지식인상 수상

주철장 원광식씨



주철장 원광식(성종사 대표 · 사진)씨가 행정자치부가 선정하는 '2005년도 신지식인'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돼 12월 13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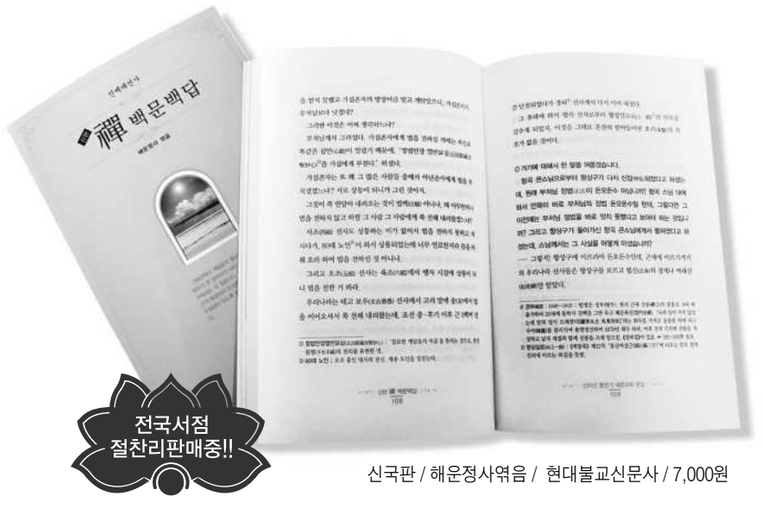
40여 년간 7천여 점의 범종을 제작해온 원씨는 전통범종 제작방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복원해 낸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01년 인간문화재 112호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원씨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한 '민주의 종' 등을 주조해냈다. 강유신 기자

진제대선사의 법문집 신판 禪 백문백답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벽력같은 일 할에 천만 갈등 흔적 없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납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진제스님의 법문집 선(禪) 백문백답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과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일반대중에게 걸림돌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질문과 스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북송담(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스님의 신판 선(禪) 백문백답 !
이제 온라인 여시아문과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해운정사엮음 / 현대불교신문사 / 7,000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yosiamun@buddhapia.com



불자 세상보기

최 순 열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교수사회의 '도덕불감'

여느 집단보다도 교수사회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지극한 청렴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있음은 자타가 수긍하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선비에게는 청빈이 지극한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전래의 가치가 이제 땅에 떨어져 뒹구는 형국이니, 지난 7월의 S대 공대 교수의 구속에 이어 금번에는 3개 대학의 교수 4명이 연구비를 목적 외의 방법과 내용으로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례를 접하곤 아연해 질 수밖에 없다.

알려진 바 그 내역을 보면, 보조연구원인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빼돌리기와 가짜 세금영수증 발급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유용하여 조성한 돈을 개인 벤처회사 운용자금으로 쓰는가 하면, 가족 명의로 빼돌리고 동료교수 주택 구입비를 지원해줬다니, 그 파행의 내용에 얼굴 뜨겁기 그지없다.

굳이 일부의 사안으로 교수사회의 일반적인 비행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급한 일은 경계할 일이라는 견해나 애당초 연구비 산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적절하게 편성되게끔한 비현실성을 탓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목소리가 전혀 도외시되는 여론몰이식의 질타에만 편승하는 입장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차제에 국가연구개발비의 25%가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교수사회의 사회적 책임성의 부재를 점검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일찍이 인간의 탐욕과 아집의 무명을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의 존귀함을 구현해야 한다는 불도의 가르침을 새삼 절실하게 돌이켜 새겨야 하리라.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재화에 눈이 멀어 그 동안 교수로서 사회적 신분과 신뢰와 책무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인간의 탐 · 진 · 치의 단면을 보는 것으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누구든 완미한 지경의 무소유와 보시의 실현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귀한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교수사회가 그나마 그러한 고결한 삶의 진면목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과 교수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청정도량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이타행을 베풀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의 이익이나 편의를 가로막거나 빼앗지는 말아야 하는데, 제자들인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잘라 착복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는 과오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업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죄업이 있다. 이번 몇몇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은 그 둘의 죄업을 동시에 저지른 것이다. 한낱 티끌만한 탐욕을 자제하지 못한 흐린 마음으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교수로서의 학문적 성과와 신망을 한꺼번에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두루 자기경계의 절실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내세워, 향후에 교수들에게 지원될 연구비의 양과 질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연구비 산정이나 집행 절차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하겠다.

물론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인간성에의 눈뜸과 탐심의 덧없음에 대한 깨우침으로 교수사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교수사회에 알게 모르게 스며든 도덕적 불감증과 '이재 밝힘증'이라는 사자신충을 준열한 회오의 자세로 스스로 솎아내는 자기성찰의 용맹정진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교수라는 직분이 진정하게 우리 사회의 선지식의 참된 노릇을 수행하는 올곧은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자.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돌아봄과 내다봄 그리고 희망

돌아본다는 것은 언제나 앞을 내다보는 일과 맞물려 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지향점을 지기고 앞을 내다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돌아보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이제 올해도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가올 한 해를 맞는 우리의 지향점을 점검하여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올바른 지향이 없다면 돌아보는 일 또한 할 수 없다. 돌아본다는 것이 어찌 단순한 회상이겠는가? 우리가 갈 길이 이러한데, 그 긴 노정 가운데 여기는 좀 헤맸구나, 여기는 지나치게 우회했구나, 여기는 거꾸로 방향을 잡았구나, 하는 반성이 바로 돌아봄의 의미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불교계는 아직도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기에 오히려 지나치게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고,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픈 반성이 있다.

돌아봄이 충실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확실한 방향설정의 부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돌아봄이 있어야 할 듯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와 방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긴 지향 점과 한 해라는 기간에 성취할 구체적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돌아봄 또한 추상적, 관념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한 차원 더 구체적인 곳으로 내려간다면, 앞에 이야기한 지향점과 목표를 기준으로 한 반성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충실한 수집과 정리가 가장 기본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하고 아픈 사건이라 하여 감추지 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여 과장하지 않는 엄정한 기록과 정리, 그것이 있어야만 올바른 돌아봄이 가능하다.

우리 불교계는 아직도 어정쩡한 관용의 정신과 파벌중심의 이합집산이 계속되어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등한히 하고 있다. 당장의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엄한 기록보존은 필수적이다. 후세의 판정이 있을 것이기에 망동을 삼가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으며, 긴 기간 축적된 정확한 자료야 말로 긴 지향점을 올바로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을 해야 할 이 시점에 돌아봄의 바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지만, 그것 또한 올해를 돌아보는 하나의 눈일 수 있겠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나눔

천장을 왼들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 경을 많이 왼다 해도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 뜻이라도 듣고 행하여 제도됨만 같지 못하다. 한 글귀를 알더라도 행하면 도를 얻는다. 〈법구비유경〉

최근 보건복지부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사람이 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4%는 '전혀 저축할 돈이 없다'고 응답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는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밥조차 먹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각 신문사, 방송사가 개설한 ARS 전화를 이용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 전화 한통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큰 금액도 아니어서 부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할 마음은 있는데 선뜻 실천하지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ARS 전화 한 통도 귀찮아서 미룬 적은 없었나 다시 한 번 반성해볼 때다.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자비와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불자들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조그만 관심, 조그만 자비, 또 조그만 실천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비'가 좋고, '나눔'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요는 행(行), 실천이다.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잔돈은 우리 보다 '밥을 굶고 있는 이웃들'에게 더 필요하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아직 갈 곳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때 일수록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훈훈한 나눔의 정이다.

■김강진(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각 종교의 '이혼'에 대한 견해

결혼과 이혼. 각 종교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하루 세 쌍이 결혼하고, 하루 한 쌍이 헤어지는 '이혼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

12월 14일 서울 정동 세실극장 세미나실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천리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과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지도자 50여 명이 모여 '이혼'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최는 서울고등법원조정위원협의회(회장 연정열). 이날 세미나 내용을 발표자별로 요약 • 정리한다.

▲**법명 스님**(대한불교사상연구회 공동대표 · 창녕 법성사 회주) – 결혼은 개인의 선택과 판단 문제다. 하지만 이것도 연기법에 의한 것이다.

가족이 붕괴되는 원인은 갈등에 있고 갈등은 신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사상인 연기와 중도에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부부의 인연도 이혼의 악연도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에 따른 것이다.

경전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식구들이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힘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기법을 알고 가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노영환**(한국기독교개혁교단회장) – 창조주가 아담의 아내를 만들어 준 것이 결혼의 시작이며, 이혼은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자, 성경을 이탈하는 행위다. 우리는 5월 셋째 주를 '부부의 주'로, 5월20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가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종교계가 새 가정 운동을 펼쳐 이혼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안정수**(가톨릭, 경희대교육대학원장) – 부부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고귀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 전 바티칸에서 부부를 선익의 관계이자 평생 운명공동체로 규정한 바 있다. 부부의 선익 관계는 이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부간의 이타적 행위는 가정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원오**(원불교 화곡교구장) – 부부는 선연(좋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 나면 다시 선업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악연이 되는 것이다. 이 악연은 악순환된다.

▲**이재룡**(대종교 봉선) – 단군 할아버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종교는 순리대로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욕구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나보다도 주변과 상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이 많은 것은 결국 이해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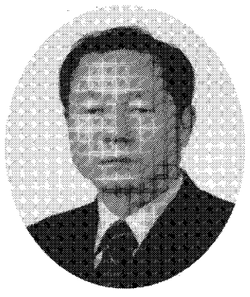
▲**고윤지**(천도교 여성중앙회장) – 천도교는 '사람이 하늘'이라는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부부는 서로를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우리는 부부를 천지(天地)로 본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해야만 천지가 조화될 수 있다. 천지가 조화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땅도 하늘도 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조수현**(대한천리교 원로교통) – 천리교는 현실에 대한 순응, 순종, 교화를 중요시여기며, 사심없는 정성으로 남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교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정성이라고 말한다. 정성이 통하면 다 이루어진다. 인내력과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결혼은 그런 약속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인간은 만물의 대표적 존재다. 인간은 생명과 평화 등 모든 가치를 함축한 창조물이다.

정리=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운(大吉運)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한 사람이 한 손 더 내밀때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공주 갑사 템플스테이를 겸한 '제2회 나눔장학금 전달식' 에서는 14개 종립학교 학생들 4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본사에서 벌인 '백혈병 환아 민수돕기 캠페인' 의 민수(사진 왼쪽)와 민수돕기 달마도를 보시한 일허 스님의 만남



아웃돕기에 앞장선 봉사단체를 소개한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사진은 부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보문정사 신도들의 봉사 모습.



자비연꽃 배지 달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자는 의지. 사진은 종립학교 동대부속여고 학생들이 자비연꽃 배지를 달고있는 모습.

2005년 '나눔의 손잡기' 결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사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나눔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고 현장 곳곳을 누비며 '나눔 운동' 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특히 '나눔의 손잡기' 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소개, 나눔의 다양한 방법 제시, 어려운 이웃 사연 전달에 힘썼다. 또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 불자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1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성금 2억3000여 만원

지난해 말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남아시아 국가를 덮친 지진해일로 수만명의 사망 피해자가 속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본사에서는 스리랑카 등 지진해일 피해로 신음하는 국가를 돕기 위해 성금 모연 등을 실시했다.

본사는 3월3일까지 3차례 걸쳐 총 2억3940만원의 성금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조계종에서는 이 성금을 각 피해국가에 전달했다

2 조계종과 자비연꽃 배지 달기 캠페인

조계종과 본사는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비연꽃 달기' 공동캠페인을 전개해 12만개의 배지를 배포했다. 이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및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참여했다.

'자비연꽃 달기' 캠페인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기금으로 설립된 '자비나눔기금' 모연사업의 일환으로 불자들의 자비나눔 실천을 통한 자긍심 고취, 불교계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부처님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으로 회향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3 백혈병 민수돕기…대원정사·일허 스님 동참

본사는 6월부터 '백혈병 환아 민수돕기 캠페인' 을 벌였다. 4살 민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본사와 만나게 됐다.

대원정사도 본사의 민수돕기에 동참, 부처님오신날 '자비나눔 실천 생명 등 달기' 를 통해 모금된 500만원을 민수 부모님에게 전달했다.

또한 밀양 영천암 주지 일허 스님이 민수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달마도 100장을 보시, 본사에서는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민수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1월 29일, 민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연말에 본사와 대원정사가 전달 예정이었던 민수돕기 성금은 장례비로 사용됐으며, 남은 금액은 나눔 성금으로 이월됐다.

4 종립학교 학생들에 장학금 1500만원 전달

본사가 1년 동안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추진하며 모금한 성금 1500만원을 종립학교 중 ·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본사는 11월 19일~20일 공주 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겸한 '제2회 나눔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중 · 고, 김제 금산중 · 고 등, 지난해 성금을 전달한 서울 · 경기지역 12개교를 제외한 14개 학교 42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5 전국 각지 봉사현장 44곳 탐방

본지 '나눔의 손잡기' 면에 고정 코너로 자리한 '나눔단체-릴레이탐방' 에서는 총 44개의 봉사단체가 소개됐다. 봉사단체는 상황에 따라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팀들도 있었고, 모임과 같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봉사자들도 있었다.

'나눔단체' 를 통해 불자들이 보살행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불자들의 봉사 영역도 다양했다. '나눔단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역시 가정 주부들이 많다 보니 급식 봉사였지만, 목욕봉사, 침술 · 의료 봉사, 상담봉사, 청소봉사 등을 통해서도 불자들은 정성어린 손길을 전달했다.

봉사의 장소 또한 군법당에서 복지관, 사찰, 무료급식소 등 다양했다.

아울러, 나눔단체 하단에는 각 복지시설에서 당장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 등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나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6 난치병 환우, 도움이 필요한 시설 소개

본사는 병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지면에 소개해, 불자들이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나눔의 손잡기' 면에서는 그간 12회에 걸쳐 백혈병, 루프스 등의 난치병 환우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또한 '나눔의 손잡기' 지면은 어려운 이들과 늘 함께 했다.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복지시설 지원에 힘쓴 것이다.

그 영역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시설, 아동 보육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했다. 인도 청소년 구호 승가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전등사,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자비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원주 소쩍새마을, 안산 둥지청소년의 집, 의정부 선재동자원 등의 시설들은 모두 '나눔의 손잡기' 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불자들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한 시설들이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송원 스님 50,000	은정희 교수 375,000
조근영 1,000	황인운 50,000
이창근 10,000	안현정 3,000
박상환 30,000	윤정연 30,000
현대불교 50,000	

소계 599,000원
총 누적금액: 44,846,480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자들을 위한 난방기 특별보급 행사
특별보급기간 2005년 11/1~12/30 특별보급대상 사찰/스님/불교단체

신일 세라믹원적외선 석유열풍히터
강약조절기능 / 쾌적난방 / 양면방사 전환기능


모델1호 소비자가 : ₩850,000 특별보급가 : ₩690,000 SBH-011 TSI
모델2호 소비자가 : ₩980,000 특별보급가 : ₩790,000 SBH-041 TMI

신일 전기온풍기


모델3호 특별보급가 : ₩188,000 SBH-3000 CTI

신일 원적외선 세라믹 히터
좌우회전기능 / 2단계 강약조절 / 상하각도조절기능 / 전도소화장치 / 과열안전장치


모델4호 소비자가 : ₩60,000 특별보급가 : ₩48,000 SEH-961 BCT • 발열량 : 820Kcal/h • 3시간타이머


모델5호 소비자가 : ₩52,500 특별보급가 : ₩42,000 SEH-900 WBK • 발열량 : 820Kcal/h


모델6호 소비자가 : ₩65,000 특별보급가 : ₩52,000 SHE-800 HGK • 발열량 : 780Kcal/h • 3시간타이머

Nikko 금나노 웰빙 매트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처리된 Well-being 시대의 맞춤 제품


모델7호 특별보급가 : ₩98,000 WW-214S (1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모델8호 특별보급가 : ₩115,000 WW-215D (2인용) • 사용전원 : AC 220V/60Hz • 소비전력 : 180W~190W • 제조국 : 한국 • 규격 : 1,000×2,000

제품 특장점
금나노 코팅으로 항균·멸균작용 /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개발된 조절기 사용 / 건강·웰빙시대에 적격한 제품 / 100% 완전 방수천 / 최고온도 70℃에 비해 저렴한 전기세로 난방효과 최적격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수익금의 일부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집니다.

“가난에 희망 심는 ‘올빼미’ 선생님”

향기도반의

중부청소년학교 야학교사
김진식


배움이란 물을 거슬러 배를 가게하는 것과 같다(學問如逆水行舟)고 했든가. 21년동안 야학의 만학도들과 함께 배움의 노를 저어온 김진식씨의 강의 모습.

군무원 생활하며 21년간 야학 지도에 전념
억대 스카우트 제의도 뿌리치고 ‘베푸는 삶’ 자원
졸업한 학생들 사회서 제 몫 다할때 큰 보람

성철 스님에게 어느 기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주저없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주경야독(晝耕夜讀)과 형설지공(螢雪之功)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형설지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보금자리 ‘야학’. 야학에는 배움에 목마른 학생과 그들의 빛이 되는 교사가 있다. 정년퇴임을 2년 앞에 둔 군무원 김진식씨(58). 그는 21년 동안 경기도 일대의 야학교에서 국어 · 한문 · 역사를 가르치다 현재 충무로에 있는 중부청소년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야학교사의 ‘대명사’다.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몸담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김씨가 군무원이란 직업을 겸직하며 야학교편을 21년 동안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더군다나 강의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매달 20여만원씩 쌈짓돈을 써 가면서까지 말이다.

“배고픈 설움 못지않게 못 배운 설움도 컸습니다. 열아홉 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서 공부하며 중 ·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군무원시험에 합격했지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금까지 김씨가 담당했던 야학만도 성남 제일실업학교, 서울 암사동 유심청소년학교를 비롯해 5곳. 학생 수로 따지면 2천여명이 훌쩍 넘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1991년 성남 제일실업학교. 당시 김씨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성남시 은행2동 공터에 비닐하우스로 야학교를 세우고 5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 비닐하우스 야학교 옆에 벽돌과 슬레이트를 이용해 임시 처소도 만들었다. 검정고시 시험 한 달 전에는 학생들과 함께 합숙을 해 가며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하루 3시간 씩 자며 원고를 정리해 500페이지 분량의 ‘신 역사길라잡이’란 역사참고서도 만들었다.

김씨는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열병으로 2개월 동안 꼼짝없이 병원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러나 몸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퇴근 후 매일 밤 11시까지 야학을 가르치는 강행군은 계속됐다. 야학을 핑계로 번번이 회식에 빠지는 일이 잦자 이제 직장상사와 동료들은 아예 회식자리에 나오란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다.

또 아내 변공숙씨(54)의 ‘야학금지령’도 내려졌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이 몸도 돌보지 않고 야학에만 매달리는 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변씨는 밤낮 야학에 빠져 사는 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말려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도무지 야학에 대한 김씨의 집념을 꺾을 수 없었다. 사실 야학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큰 유혹의 손길도 있었다. 모 입시학원에서 제시한 억대의 스카우트 제의가 그것. “역사과목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학원가에까지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NO’.

“임실 심원사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주지스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제 욕심만 챙기지 말고 많이 베풀면서 살라’고요. 저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게 ‘내 길’이란 생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 싶다’는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속속 입학할 때와 야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역군으로 거듭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 길러낸 김씨의 제자 중에는 은행지점장, 해군장교, 교수 등 각계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김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표창을 받았다. ‘국방부장관 표창’ ‘서울사랑 시민상’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 ‘전라북도지사 표창’ 등.

이뿐만이 아니다. 명절과 생일 때면 김씨의 집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김씨의 집을 찾기 때문이다.

주댁범씨(45)는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때론 아버지처럼 때론 친형처럼 회초리도 드시고 그 추웠던 비닐하우스 야학교에서 라면을 끓여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면 눈물을 글썽인다.


밤늦은 시간, 충무로 중부청소년학교의 야학생들이 김진식씨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4년 간 함께 근무해 온 중구청소년학교 송용순 교장 선생님은 “김 선생님을 보면 ‘봉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친자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마음이 흐뭇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 동료 교사인 권윤길씨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김 선생님이 존경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무와 숲을 가꾸는 게 백년지대계라고 한다면 교육사업은 천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고 머리 속에는 지식을 담아주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씨. 스무 살 때 스님에게 붼글씨를 배우면서부터 공부에 취미를 붙여 불과 3년 만에 중 · 고교 검정고시와 9급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학구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내친 김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박사학위에 도전 중이다.

이제 2년 후면 정년퇴임을 하는 김씨. 여느 사람 같았으면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겠지만 그는 오히려 굴레를 벗어버린 기분이란다. 이제 정말로 하루 24시간을 모두 야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비닐하우스 야학교에서처럼, 가난하고 추웠지만 배우겠다는 의지만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고 사랑과 꿈이 넘치는 야학교를 세우겠다는 김씨. 다복다복 흑판을 채워가는 선생님의 분필 글씨처럼 그의 소중한 꿈도 그렇게 채워지고 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봉 제천 사암연합회 불자와 함께하는 성도재일 축하공연 행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할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신 날이기에 불교의 4대 명절중 하나로 정하여 기뻐하고 찬탄하는 날입니다. 제천지역 사부대중여러분은 수희 동참하시어 이 기쁜날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0(2006)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제천 문화회관 특설무대 ◆ 주 최 : 제천 사암연합회
◆ 주 관 :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 문 의 : 연합회 회장 황도스님 043)652-0897
총무 해선스님 043)642-3049

◆ 공연내용
사회 : 장춘권(전문 진행자)
출연진 : 가수 - 보현스님, 김태곤, 장미화, 유미, 석기영

제천사암연합회
• 회장 무암사 황도 • 총무 용담사 해선 • 재무 백운사 법륜 • 서무 정암사 정암
• 고문
몽암사 월산 / 백련사 담월 / 송화사 경암 / 통도사 정암
• 자문위원
원각사 원명 / 정방사 석구
• 회원
강천사 지광 / 경은사 경암 / 대각사 백운 / 대도사 성광 / 복천사 성문 / 봉정사 혜암 / 삼천사 수산 / 석불사 월은 / 영천사 혜봉 / 운장사 성우 / 월명사 법해 / 장락사 혜원 / 장엄심인당 정법 / 한산사 동범 / 흥림사 성범 / 혜월사 법화심


장미화


김태곤

제천 사암연합회 회장 황도 합장

나의 수행법 (끝)

<법화경> 사경기도 체험기 - 최태숙 (下)



평화통일불사리탑을 다녀온 후에 일이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소의 저의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하는 발원이었다.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 사경을 전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다. 그리고 곧장 '부처님께 열심히 <법화경> 전법을 하겠습니다"란 발원을 올렸다. 가슴이 울컥 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엄마 왜 그러세요?"라며 물었다. 그냥 난 눈가에 맺힌 눈물만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법화경 바른수행모임'을 이끌면서, 난 더욱 열심히 사경을 했다. 생활을 좀더 규모있게 해서 시간을 만들면서 매일 사시예불시간에 예불을 보면서 신심을 다졌다. 도반들과도 수행담들을 나눴다.

'법화경' 사경 전법 발원 올리며 환희
도반들과 1만배 수능기도 함께 해

그러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자녀를 둔 고 2학년 어머니들끼리 내년의 수능시험을 대비해 미리 기도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반드시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평소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주지스님 말씀을 귀에 익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스님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스님은 "평소에도 사람들은 돈을 저축할 줄 알면서 복은 저축할 줄 모른다"고 안타까워하며, 잘 하는 일이라고 칭찬해줬다.

곧장 그 자리에 모인 21명이 내년 수능시험일까지 만배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했다. 그간 매일 3백배씩 백일기도를 하고, 3천배로 회향해온 도반들이었다. 그래서 나도 쾌히 승낙은 했다. 하지만 만배는 처음이라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하고 걱정하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다. 전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왕 마음먹은 것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기도에 들어갔다. 그러자 어느 순간 머리 아픈 것은 없어졌다.

그렇게 시작한 만배. 도반들의 격려에 힘입어 만배를 거뜬히 회향했다. 도반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지 비로소 알게 됐다.

만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집안일을 모두 해놓았다. 절에 자주 나가는 것에 대해 가끔씩 싫은 내색을 보이던 남편도 지금은 많이 변했다.

올해 경산도량 백중기도의 과제였던 <금강경> 사경집 두 권을 남편에게 권했더니, 말없이 <금강경> 사경을 해줬다. 그런 남편이 언젠가는 나와 함께 경전공부를 하길 발원해본다.

'행복이란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방송을 통해 들은 종범스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신(信)·해(解)·행(行)·증(證) 경산도량의 4대 가르침대로, 봉사와 수행과 공부를 병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변화된 모습. 난 늘 당당하게 포교할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

만배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법화경> 사경기도 전법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과 가족들, 그리고 좋은 도반들께 감사한다. (끝)

■ '법화경' 바른수행모임 회장

이원섭 시인에게 듣는 '禪詩로 마음공부'

언어란 본래 부질없는 도구다. 툭하면 오해를 낳고, 곁길로 샌다. 때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거나, 곳곳에 '분별의 지뢰'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선(禪)은 말길도 생각의 길도 끊어진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을 살림살이로 한다.

그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선시(禪詩)는 어떨까? 홀연히 깨닫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찰나의 깨침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말하되 말하지 않고, 쓰되 쓰여 지지 않는 선시는 내면의 속살을 내보인다. 그래서 선시는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비춰내는 거울로 불린다.

12월 5일, 선시 연구의 대가 이원섭 원로시인(83 · 사진)을 찾았다. 5년 넘게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숙명여고 교사재직 시절 가르쳤던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선시공부모임 '민들레'를 이끌고 있는 이 시인에게 '선시로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나'를 깨고 선사의 심경 느껴보세요"

깨달음의 내밀한 세계를 상징과 함축의 언어로 표현하는 선시. 과연 선시로 마음공부가 가능할까?

"가능해요. 마치 선어록으로 마음공부하는 이치와 같아요. 하지만 위험부담이 따르지요. 선시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의 장애가 되기도 하니까요. 선은 불립문자에 서 있어요. 언어를 초월한 진리의 세계를 체득하려는 것이 선의 취지지요. 옛날 선사들은 제자들이 선의 이치를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 등이라 답했어요. 사실 이조차도 선의 본지에서 볼 때, 이미 언어로 표현됐기에 빗나가 있는 것인데…."

이 시인은 말끝을 흐렸다. 대답을 재촉했다.

"아무리 적절하게 선을 시로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뜰 앞의 잣나무'라 답한 것에 선사의 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세계를 언어로써 '깨달음의 힌트'를 준 것에 불과한 거죠. '뜰 앞의 잣나무'라 말한 선사의 심경을 파악해야지, 언어 표현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아무 것도 안 돼요."

이 시인은 '선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강조했다. 황벽 선사가 중국 당대 재상이었던 배휴 거사의 선시집을 받자마자, 보지도 않은 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일화를 예로 들며, 그 까닭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로 따지면서 읽지 말고
선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그렇다면, 마음공부에 있어 선시가 왜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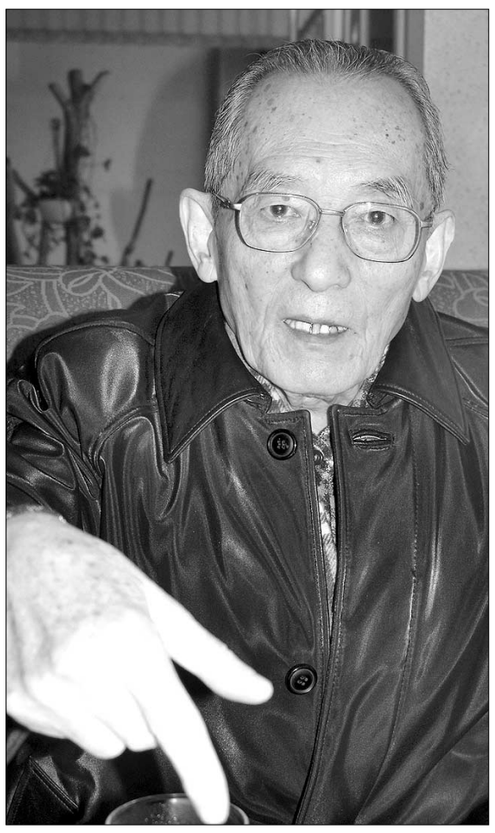
"깨달음에 가까워지려는 인연을 지을 수 있지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선은 지극하고 당연한 말이라도 모두 배격하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말조차도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 이면에 깔려있는 침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선시를 통해 자기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요."

순간, 궁금증 하나가 툭 올라왔다. '선시를 읽는 것도 화두 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중국 위산의 제자인 영운 선사가 쓴 선시에서 '어느 날 복숭화 꽃을 보고 깨달았다'는 구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선시에서는 '복숭화 꽃을 한번 본 뒤로 다시로 위심하지 않는다'란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또 '그 뒤에 어떤 경지가 들어있는지'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은 화두를 깨치는 것처럼 어려워요. 선시에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처럼 지성이나 감수성으로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무엇이 들어있지요. 선시 공부하는 것이나 화두 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선시공부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선시에서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입장에서 바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즉 한번에 부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간다는 돈오(頓悟)의 가르침이 현저히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선시는 일종의 화두처럼 되지요. 영운 선사의 선시에서 '복숭화꽃이란 무엇인가' '한 번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지고 들어갈 때, 선시는 화두가 된 거죠."



그럼, 선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길러질까?

"선사들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려면 스스로 선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선사들이 쓰는 언어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달라요. 마치 처음에 화두를 대할 때 누구든지 놀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두가 수행자의 지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경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화두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선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화두를 떠나 선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로 따져들면서 읽지 않아야 선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선적인 사고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은산철벽(銀山鐵壁)이란 말은 꽉 막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에요.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 은산철벽이 돼 있는 거죠. '나'란 존재를 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죠. 선시 읽는 안목을 키우는 제일 덕목은 무아를 체득해야 해요. 선사들의 사고방식이 이래요. 처음부터 언어를 포기해야 하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 시인은 "선시의 참뜻을 헤아리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부단히 선시를 한문으로 읽어야 그래야 말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종사 이해를 깊이해야 선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인은 남의 집 담장 안으로 넘겨짚듯이 선시를 읽으면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찾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시를 해석으로 따져 지적으로 해부하면, 살아 있는 사람을 잡아서 생체 해부해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인은 재가자들이 마음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시 하나를 소개해줬다. 중국 임제종 오조법연 대사 스승인 백운수단(白雲守端;?~1072)의 선시를 예로 들었다.

일권권도황학루(一拳拳倒黃鶴樓)
일척척번앵무주(一踢踢飜鸚鵡洲)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때려 부수고,

언어표현에 매달려선 안돼
한문·선종사 이해 선행해야

한 발길질로 앵무주를 걷어차 뒤집는다.

"황학루는 양자강이 흐르는 중국 무창의 유명한 유곽이고, 앵무주는 그 유곽이 있는 모래섬이에요.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들이죠. 그런데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때려 부수고, 한 발길질로 앵무주를 걷어차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화두와 관련돼요. 황벽 선사에게 30방 얻어맞고, 대우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은 임제 선사와 관련된 선시죠. 이 선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선기를 표현했어요.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선시죠. 기성의 가치체계를 전부 때려부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세속의 가치는 물론 불교의 가치체계를 전부 부순다는 거죠. 재가자들이 일상에 허덕거릴 때마다 수단 선사의 호탕한 선기를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이원섭 시인은? 192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를 나온 후 숙명여고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948년 <예술조선> 제2호에 '기산부(箕山賻)'가, <문예> 제2호에 시 3편이 서정주 시인에게 추천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전국불교신도회 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장을 지냈다. 500여 편 선시를 간결하고도 정교한 언어로 풀어낸 <깨침의 미학>를 발간했다.

아듀 2005, 웰컴 2006 !!!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심성수련, 명상수련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계방학에 이어 동계방학에도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명상캠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며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수행하면서 서원과 목표를 세우고,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5년 12월 29일(목) ~ 2006년 1월 1일(일), 3박 4일간
장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충북 괴산)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부모님과 교사도 참가 가능)
참가비 : 150,000원(격월간『불교와문화』· 월간『불광』구독자 10% 할인)
진행 : 김남선(교사, 제1회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캠프 및 심성프로그램 다수 진행) 외 10명

◎ 목표
- 부처님 일대기 알기
-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기
- 부처님의 일대기로 심성수련, 명상수련, 목탁 염불수련
- 목표와 서원이 있는 삶의 계획 세우기
- 희망찬 2006년 새해계획 수립하기, 희망 발원하기
- 내 안의 참된 스승 찾기
- 자신과 타인 이해하고 수용하기
-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갖기 및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기

• 절 명상 • 목탁 염불 명상 • 진언을 통한 자비 명상 • 음악 명상
• 참회 명상 • 화해 명상 • 축복 명상 • 버리기 명상
• 죽음 명상(유서 쓰기) • 불꽃 명상 • 관상 명상 • 나누기 명상, 요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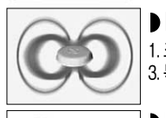
◎ 참가 접수 및 일정 안내
격월간 불교와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02-719-2606
월간 불광 www.bulkwang.org 02-420-3300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크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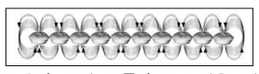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선 괜찮다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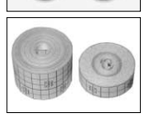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



◗ 대형자석
1. 크기 :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소형자석
1. 크기 : 지름 1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반 창 고
1. 크기 : 대형반창고 – 넓이 50mm 길이 10m
소형반창고 – 넓이 25mm 길이 10m
2. 특징 :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반창고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 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실증자료

가톨릭의대
채정호(여의도 성모병원), 이창욱(강남 성모병원)교수팀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마크 조지 교수팀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우울증, 강박증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치료를 실시한 결과 확실한 호전반응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우울증외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팀이 생리통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트러브 박사가 루프스등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전 해소됐으며, 당뇨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열감, 자통, 저림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깝게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발명특허 출원중 | 의료기기로 보사부 허가 필 | 보사부 의료기기 허가번호: 제2244호

내 몸의 통증을 내가 지배해야 무병장수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장이 최고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면 관련된 부위에 반드시 통증이 나타나며
이런 통증을 제대로 다스려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E-Mail : jibub3110@hanmail.net

‘선지식-도반-도량’ 3박자 척척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 기획을 마치며

이제 재가불자에게 수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와 봉사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과 수행이 ‘따로’라고 여기는 불자도 드물다. 불자의 삶은 처음도 끝도 ‘수행’이란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의 밑바탕에는 도심수행도량의 역할이 크다. 이는 지난 1년 여간 전국 19곳의 도심수행도량을 탐방한 기자들의 결론이다. 찾아간 곳마다 ‘선지식, 도반, 도량’의 3박자가 척척 맞아 떨어졌다. 스승은 지도하고, 도반은 서로를 경책하며 수행했다. 그런 스승과 도반들을 큰 품으로 안는 도량은 크고 작고를 떠나 한결같은 정토였다.

 # 뜨거운 수행열기 확인

도심수행도량의 특징은 단연 ‘자발적인 자기수행’이다. 이는 자기 삶의 변화를 이끄는 원천적인 힘을 수행에서 찾고 있다는 의미로, 치열한 내면의 꿈틀거림이 삶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길상사 시민선원에서 5년째 참선 수행 중인 김해인(81 · 서울 대치동)씨는 “참선은 그간 가졌던 일상의 알음알이들을 뿌리 채 뽑아내는 힘을 줬다”며 “일상생활속의 잡념은 잡념대로 흘러 보내고 오직 화두와 하나됨을 경험해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선지식의 치밀한 수행지도와 점검도 현장에서 확인했다. ‘수행에는 출 · 재가가 따로 없다’고 도심수행도량의 선지식들은 입을 모았다. 재가선객 50여 명에게 수시로 1:1 공부점검을 해주고 있는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단 1초라도 단도직입적으로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10년 안에는 깨달을 수 있다”며 재가불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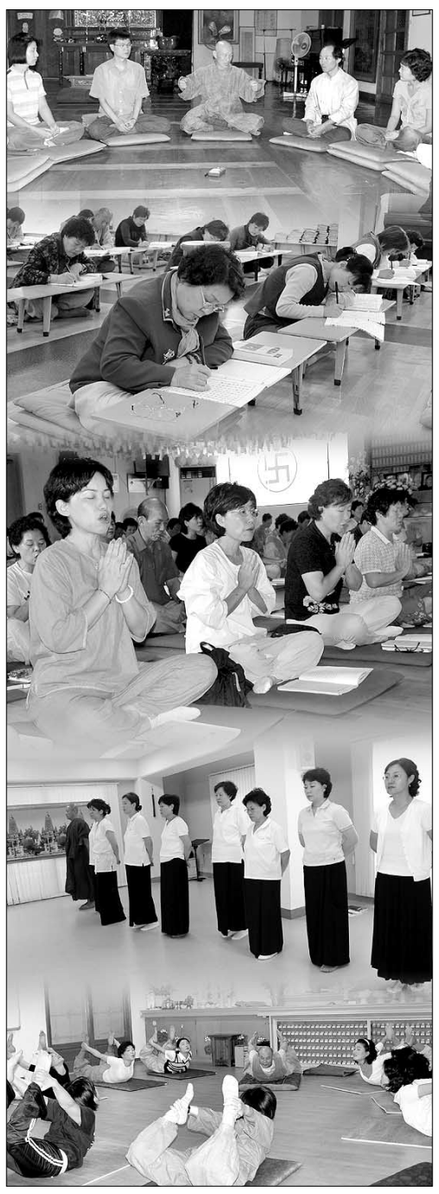
수행도량에서 진하게 묻어나는 도반애도 엿볼 수 있었다.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에서는 30년 넘게 수행해온 구참자 10여명이 초심자들의 기초수행 상담을 맡고 있다. 수행상의 고충 등을 서로 나눔으로써 자극과 활력을 주고 있다. ‘선배는 이끌고, 후배는 따라 배우고 있는’ 셈이다.

 # ‘수행이 곧 삶’이란 인식 확산

이 같은 도심수행도량의 수행 열기는 ‘기복 중심의 수행관 탈피’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히 절에 다니며 불공을 올리는 일로 만족하거나 책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식불교’를 넘어 자기수행을 위한 ‘실참’에 눈에 뜨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만큼 재가불자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됐다는 뜻이다.

6년째 고양 문사수법회에서 ‘회청염불(回聽念佛)수행을 실천해온 최향순(51 · 서울 진관동)씨는 “내가 말하는 독경과 염불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써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회청염불법을 알게 되면서, 삶 자체가 그대로 수행임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생한 수행체험을 통한 지도자들의 수행지도도 주요 원인이다. 위빠사나 수행처인 근본불교 상가 서울 반냐라마의 지도법사 붓따바라 스님은 일상 언어로 수행체험을 풀어내고 있어, 수행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수행의 최대 장애인 망상과 번뇌의 실체에 대해 “‘기억의 무게’와 ‘삶의 흔적’에 구속될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라 묻고, 20년간의 간화선 수행체험을 중심으로 수행자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



 # 도심수행도량, 활성화 방안은?

도심수행도량 현장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재가불자들이 전국의 수행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 즉 ‘집 가까운 곳에서 수행을 하고 싶지만, 어디에 수행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기복 탈피 생활속 수행 정착
수행종합정보센터 구축해야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전국의 수행처를 제대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조계종이 지난 2003년 참선, 간경, 염불 등 10대 수행법별로 수행단체 현황을 조사한 <불자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보고서>가 있지만, 이 보고서는 ‘어떤 수행단체가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지’만을 다루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는 있지만, 초심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주지역 인근 수행처 안내 · 단계별 수행프로그램 여부 등의 ‘맞춤형’ 수행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셈이다.

때문에 불교수행 전문가들은 ‘수행 종합정보 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단위로 수행도량을 일제 조사해, 재가자들에게 자세한 수행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참가자 근기별 · 수행법 단계별 프로그램의 여부 △프로그램 진행 일정(주말인지 한 달에 한번인지) △상주하는 지도자 수 △수행처 시설 규모 △프로그램 평균 참가자 현황 △지속적인 참가가 이뤄지는지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각 수행법을 연령대별 · 직업별 · 계층별로 세분화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 연구과장은 “수행법별로 전국적인 시장조사를 범종단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행의 수요자인 재가불자들에게 폭넓은 수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김철우 기자

▮어디를 찾아갔나? 본지 기자들이 탐방한 전국의 수행도량은 총 19곳. 서울 · 경기 10곳, 부산 2곳, 대구 · 경북 3곳, 충청 2곳, 전라 2곳 등의 수행도량 문을 두들겼다. 서울 불광사 불광선원, 법수선원, 부산 새말귀선원, 대구 비로암 보광시민선원,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공주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등의 수행현장을 찾아 재가불자들 체험담을 들었다.

수행법 선정은, ‘재가불자 3명 중 2명이 참선을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조계종 포교원의 <신도 수행 실태와 의식에 관한 설문> 결과에 따라,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 등 12곳의 상설참선도량을 중심으로 방문했다. 이와 함께 염불도량은 고양 문사수법회 등 3곳, 간경 · 사경은 대구 영남불교대 경산도량 등 2곳, 위빠사나 계통은 광주 마하연 선원 등 2곳을 찾았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8> 양두구육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고기를 쇼 윈도우에 걸어놓고서 실질적으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다. 한우라고 써붙여 놓고 수입쇠고기를 파는 것도 이와 별로 다를 바 없다. 명분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석두희천(石頭希遷:700~790)선사는 진금포(眞金鋪)를 표방했고 마조(馬祖道一:709~788)선사는 잡화포(雜貨鋪)라고 남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순금만을 파는 가게인 순일무잡하고 고고한 선풍을 지랑하는 진금포인 호남 땅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편을 갖추고 있다는 잡화포인 강서지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저변가풍은 동일하다. 즉 같은 금방인데 가공해놓은 순금제품의 다양성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잡화포라고 해서 금제품도 없이 은(銀)제품이나 동(銅)제품을 취급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전등록>11권에서 앙산혜적(803~887)선사는 진금포와 잡화포를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였다.



선종이라는 정체성 걸맞게 사상과
교육체계 확립, 교판 · 율장 정비해야

“어떤 사람이 갖가지 물건과 금과 보배로 하나의 가게를 꾸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오는 이들의 경중에 따르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석두는 진금포요, 나(앙산)는 잡화포라 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쥐똥을 찾더라도 나는 주고, 어떤 사람이 순금을 찾더라도 나는 준다.”

쥐똥을 줄 때 주더라도 순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쥐똥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순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금방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얼마 전 <일본의 오래된 가게(老鋪)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 그 ‘노포(老鋪)’라는 말을 대하면서 진금포 잡화포를 떠올렸다. 그 ‘오래된 가게’의 공통점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대신 자기변화를 게을리않는 마조의 잡화포를 떠올렸다. 왜냐하면 그 가게들의 변화는 ‘00가게’라고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속의 변화였다. ‘우리 회사만이 갖고있는 우리다움’이라는 근본기조를 소중히 지켜가려고 애써온 것이 장수비결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다.

해동땅의 오래된 가게들은 ‘선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주인은 가게를 찾은 종도들이 선종이라는 금을 찾는 사람보다도 잡화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도 그걸 방치했다. 게다가 금보다는 잡화가 잘 팔리니 잡화품에만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금은 구석지로 밀려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어쩌다가 금을 찾는 사람이 와도 잡화를 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그 가게들의 공통점이라고 해봐야 조계종 본점에 주인승적과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실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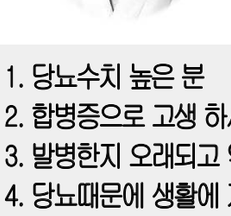
이건 오래된 가게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거니와 설사 오래 간다 한들 무슨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지금 같은 ‘잡종’으로서 선종을 표방한다면 이는 ‘양두구육’이다. 양두구육을 진금포 잡화포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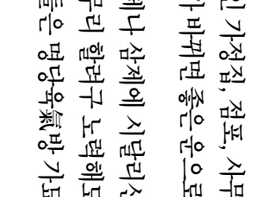
이는 수천 명 대중이 수백 곳 선원에서 하루에 수십 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선종의 정체성에 걸맞는 사상과 교육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명자(名字)와 일치하는 교판(敎判)과 율장의 정비가 뒤따르고 아울러 종도들의 가치관을 함께 바꾸어야만 가능한 지난한 작업이다. 만약 ‘통불교’가 실질적인 종지(宗旨)라 생각한다면 모두 ‘계급장 떼고’ 허심탄회하게 제대로 한판 있는대로 솔직하게 논의해서 차라리 가게이름을 바꾸는 편이 양심적일 것 같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4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상용영반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1월 5일(목) 오후 3시 (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당뇨병 희소식 !!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욱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욱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욱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욱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1강 추상적 이념 vs 구체적 고통

진실, 그보다 더 소중한 희망

불교처럼 실용과 구체성을 중시하는 사유는 '자유'나 '민주' 같은 추상적 이념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역사가 모종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역사는 회귀하는 것, 우리는 그 음양의 순환회전하는 어디쯤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조금 더 나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애쓸 뿐이라고 겸허하게 말한다.

이 접근은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고려하며, 현실적 여건에 입각한 해결책을 고취한다. 같은 민주주의라도, 한국적 풍토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10년 전의 해법을 두고 지금 적용하려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 어리석기 그지없고 위태롭기 한량없는 무지의 불장난이다.

1. '고통'의 진리에서 출발하는 생명윤리

불교는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권'에 친화적이다.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 가치를 드높이고 절대화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쉽게 믿어버린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생명을 둘러싼 논의를 보자. 다들 논의를 배아의 생명성 여부에 맞추고 있다. 불교계 또한 언제를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수정 때냐 착상이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을 누가 그을 것이냐. 문화와 관습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선은 수없이 다르게 그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논의는 쳇바퀴를 돌 것이다.

이 접근은 불교의 규범 가운데 '불살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이 접근의 층위를 더 높이거나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발은 불교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첫 번째인 '고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 지관 총무원장님의 지적은 시의적절한 경고이다. "환자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불교의 논리는 철두철미 방편론에 철저하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는 이렇다"거나, "하느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화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실용적 실천적 발상 위에 서 있다. 그것이 불교의 위대하고도 위대한 접근법이다.

2. 불살생계는 지킬 수 없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면 불살생은 지킬 수 없는 덕목이다. 아니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동물은 그렇다 치고 풀을 다치지 않고 어떻게 샐러드 접시에 올리겠는가. 생명은 생명의 파괴로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에 뜬 벌레를 걸어낸다고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불교 초기에도 그 점은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마음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빌려 살고 있다는 것에 겸허하며, 우리 속에 자라고 있을 잔인함을 누르고 무심함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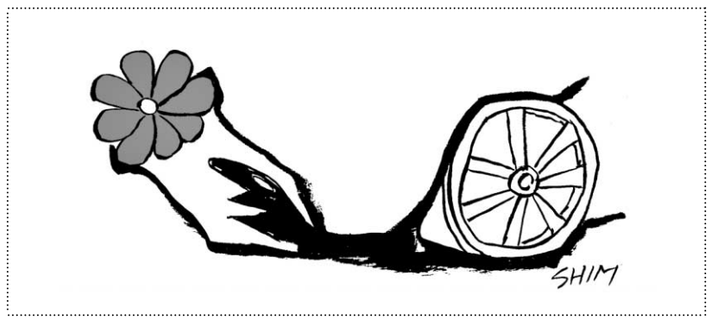
이 현실 앞에서 칼릴 지브란은 <예언자>에서, 심령의 내면에서 나를 위해 몸을 내놓는 생명들을 기억하자고 주문했다. 원시의 토템 또한 이 원초적 진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살육과 전쟁 속에 있다. 그래서 원광법사는 살생유택, "함부로 불필요하게 죽이지 말라"고 했지, 칼을 들지 말라고는 할 수 없었다. 비현실적인 주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승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불살생계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나는 그래서 불살생의 계율을 불교가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을 오히려 경계한다. 그것이야말로 '이름'일 뿐이니… 이름은 추상의 세계이고, 그 세계의 논리를 실상의 세계에 그대로 갖다 대려는 유혹을 천만 경계해야 한다. 좋은 이름일수록 더욱 그렇다.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보편적 가치는 세미나실의 덕담이고, 거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외치는 구호는 너무 깨끗해서 쉽게 악마로 변질한다.

3. 법(法)조차 버려야 하거늘

동아시아의 전통은 추상적 이념보다 구체적 실용에 철저하다. 그래서 보편이 아니라, 늘 국지적으로 접근한다. 예컨대 자유나 인권 같은 추상적 가치를 드높이기보다 얼굴을 맞대는 가족, 학교, 이웃과의 인간적 유대와 소통에 더 큰 가치를 둔다. 하느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다.



그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라면 추상적 원칙이나 이념조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것이 <금강경>이 말한 "법조차 버리라"는 말의 뜻이다. 불교적 진리도, 윤리적 규범도, 구체적 '인간'을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자가 남쪽 초나라의 섭공을 만났다. 섭공은 이렇게 넌지시 말했다. "우리나라에 한 정직한 아이가 있습니다. 애비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고발했습니다." 공자는 그러나 달리 말했다. "그런가요, 우리 동네와는 다르군요. 애비와 아들이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바로 거기에, 정직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도 들추기보다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알 권리'보다 '그 사람'이 입을 상처에 더 가슴이 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공동체나 인류의 공통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함부로 정직과 '진실'을 앞세워 되는대로 까발려서는 안 된다. 거기 지혜와 섬세함과 균형감이 필요하다.

4. 진실, 그보다 더 소중한 희망

황우석 박사를 둘러싼 진실 게임에 우리 모두는 좌절한다.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승자는 없이 패배자들뿐이고, 이익은 없고, 무진장한 손해만 있다. 도약의 기회가 불투명해졌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의미인 희망을 손상당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진짜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혹시 사소한 실수나 약간의 과장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다. 사람의 일에 털어 먼지 하나 없는, 그야말로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두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속임수가 가당하기나 하겠는가. 시간은 진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일 필요하지 않다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태의 흔적을 지워나갈 것이다.

공자와 섭공 사이에 오간 말의 맥락을 짚어주어야겠다. 섭공은 황하 저쪽 공자의 고향 노나라의 정세가 궁금했다. "듣자니, 당신 고향 노나라는 제후의 권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혼탁해졌다는데… 당신은 인의(仁義)의 덕목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니, 어디 당신 나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실토해 주시리라 믿소."

공자는 정직 운운하는 섭공의 의도를 알았다. 그래서 짐짓 은유로 응답했다. "집안일이나, 가까운 사람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정직한 태도요! 요컨대 진실이란 덕목은 배려의 덕목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오." 이것이 공자의 응수에 담긴 숨은 뜻이다. 그렇다. 진실 이전에 요익(饒益)이 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이익'보다 더더욱 귀한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희망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㊼끝 편양언기 선사의 '두타행'

조태호



편양언기(鞭羊彦機:1581~1644): 조선중기 고승. 서산대사의 제자로 선지를 이음. 저서에 <편양당집>이 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끝

교화(敎化)의 불교적 의미는?

문 교화란 말은 교도행정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교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되는데요. 이 말이 불교에서도 중요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불교적 의미가 경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불자교도관)

답 1 : 일상생활에서 악행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의미로 교화(敎化)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화는 '교도감화(敎導感化)'의 준말로, 남을 타일러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지요. 이 용어는 교도화익(敎導化益), 개화(開化),섭화(攝化), 시화(施化) 등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용어풀이맨)

답 2 : <불본행집경> '권 39 교화병장품'에서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한 뒤 전도의 길을 떠나며 중생교화의 원력을 세우게 하는 의미 깊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가도록 하라. 다른 마을로 갈 때 혼자 가서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은 많은 사람을 연민하고 섭수하여 이치에 맞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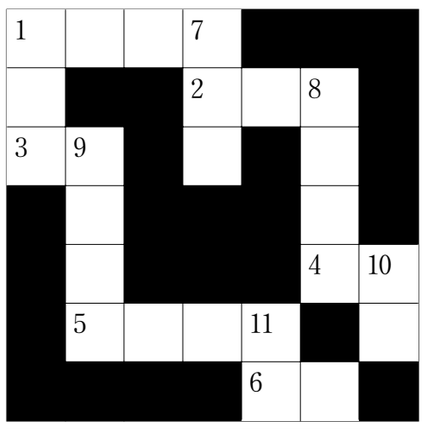
이렇게 부처님은 진리를 증득하여 해탈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우해 빨리 많은 지방으로 가서 불법을 알리고 교화케 했습니다. 불교의 참뜻은 스스로만의 해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경전)

답 3 : <대열반경> '권1'에서는 "대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한다(以大乘法 敎化衆生)"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시방 일체세계에 사는 모든 유정류(有情類)를 교화하여 모든 십선업도(十善業道)에 안주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교화보살)

답 4 : <왕생론주>에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단계에 이른 보살의 지위를 '교화지(敎化地)'라 합니다. 곧 제8동부지 이상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 이른 보살은 이미 생사와 육도윤회하는 범부의 경계에서 벗어나 충만한 선정과 지혜로 시방의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은 번뇌에 물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나가는 장소를 '교화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생제도)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또는 모든 문무관료'란 뜻의 한자성어 2. 자연의 경치를 주제로 그린 동양화 3. '레이저 각막절삭 가공성형술'로 불리는 시력교정수술 4. 쇠꼬리 등을 고아 고명을 뿌리고 식혀서 묵처럼 만든 음식 5. 고리 모양의 체절 구조를 가진 무척추동물군의 총칭 6. 경제의 3주체는 '○○, 기업, 정부'.

세로 1. 수도승의 고뇌와 방황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그린 김성동의 장편소설 7. 충북 옥천군에 있는 성으로 삼국시대 백제의 성왕이 전사한 곳 8.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덧붙여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9.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다는 뜻 10. 신돈의 법명 11. 여러 재화의 개별가격을 종합 · 평균한 것.



"내세요? 난 모릅니다" –에디슨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 마틴 루터 킹
"나는 배반을 당했어" – 히틀러

피할 수 없는 죽음 어떻게 맞이할까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
M.V. 카마스 지음
이옥순 옮김
사과나무 펴냄 | 1만3천원

웰빙 못지 않게 웰다잉(Well Dying)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책 <위인들의 마지막 하루(원제-Philosophy of Life and Death)>가 출간되었다.

사람이면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권력이나 명예, 부유함이 행복한 죽음을 보장하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반대로 빈곤하거나 권력이 없다는 사실이 행복한 죽음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말해준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이라 불리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본 것이다.

> 역사적 인물들의 최후 모습 통해
> 이타적 삶을 산 사람만이 행복한 죽음
> 맞이할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 일깨워

1300건의 특허를 가진 에디슨은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의사들이 자신에게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하는지 궁금해했고, 자신의 혈액을 검사할 슬라이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내세(來世)요? 난 모릅니다"라며 과학자다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맥박을 잴 정도로 침착성을 유지했던 조지 워싱턴은 "나를 잘 묻어달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

프로이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진통제를 거부하고 <정신분석학 개요> 저술에 온힘을 쏟았다. 그는 생각이 흐릿해지느니 차라리 고통 속에서도 명쾌한 생각을 하기를 원했다.

흑인인권운동가로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마틴 루터 킹은 비로소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몽골제국의 정복자 칭기즈칸은 "내 후손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어여쁜 여인들을 껴안을 테지, 그러면서도 누가 그렇게 해주었는지 모를 거야…"라며 못다 이룬 정복의 꿈을 아쉬워하며 "아들아! 나는 죽는다"라고 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최후를 마친 사람중에서 넬슨처럼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넬슨은 죽기전 '빅토리아호'에 타고 있었다. 그는 뒷갑판을 걷다가 날아온 포탄에 맞았는데, 끝까지 프랑스-에스파니아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나서야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노라"라는 말을 남기고 빅토리아호에서 전사했다.

반면 역사의 패배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무솔리니는 유격대에 잡혀 총살된 후에도, 증오에 불타는 사람들이 그의 시체에 총을 쏘고 오줌을 누는 만행을 당해야 했다.

히틀러 역시 자살을 앞두고 "나는 배반을 당했어"라고 탄식하며, 독약이 가짜인지 의심하며 애견 블론디에게 먼저 먹여보는 치밀함을 보였다.

레닌의 시체를 부검한 의사들은 그의 뇌가 정상인의 4분의 1로 작아진 상태인 것을 보고 "그런 뇌를 가지고도 사고력이 손상되지 않고, 또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놀랐다. 죽기 전 세 차례나 뇌일혈을 일으키면서도 혁명을 수행한 레닌의 의지력은 가히 전설적인 것이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죽음은 삶처럼 하나의 기술이다. 잘사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이미 잘 죽는 기술을 배운 것과 다름없고 그러한 죽음은 두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죽음은 용기있고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가 잘사는 기술을 찾기위해 노력하듯이 잘죽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잘사는 기술은 잘죽는 기술과 다르지 않다. 착한 삶이 고통없는 끝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죽음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평화롭게 죽으려면 반드시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 죽음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움과 악의 대상이 아니라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와 같다. 그것을 아는 시인 볼테르는 어려움 없이 죽음을 안았다.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죽음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끝)



서희, 협상을 말하다
김기홍 지음
새로운제안 펴냄 | 1만1900원

세치 혀로 강동6주를 획득한 고려의 재상 서희. 만약 그가 현재 한국의 협상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책은 서희의 기적과 같은 협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안목으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이라크 파병 등 최근의 현안에서 나타난 한국의 협상력을 분석한 책이다. 역사적 사실을 협상이라는 틀로 분석하는 재미가 크며, 서희를 꿈꾸는 미래의 협상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담겨 있다.

본문은 크게 3부로 구성돼, 1부는 서희의 협상과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것을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2부는 서희가 지금 살아 있다면 우리의 협상 경험과 관행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게 한다.

3부는 일종의 서희 대망론으로 당시 고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에서 서희와 같은 뛰어난 협상가를 얻기 위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인물을 길러내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교육해야 할지를 정리했다.

한국 협상력의 어제와 오늘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한일어업협상 이래 우리의 국제협상은 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한중마늘협상, 한중어업협상,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등 수많은 국제협상에서 보여 준 우리의 협상 모습은 정말 슬프고 안타깝기만 했다. 국제협상 뿐이 아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 역시 우리의 협상 문화가 어떤 수준인지를 잘 보여준다. 쌀시장 개방 문제와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농민들의 모습, 물류대란을 일으킨 화물노조의 파업,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간의 극한 갈등, 핵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때문에 벌어진 부안 사태…. 서글픈 우리의 협상모습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WTO, DDA, 북핵관련회담 등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를 굵직한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협상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국제협상에서 국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서희의 입을 통해 알아본다.

지은이는 내부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를 협상 과정에 포함시킬 것, 비판적인 여론을 활용할 것, 충분한 정보를 매스미디어에 제공할 것, 상대국 내부협상에 영향을 미칠 방안을 고려할 것, 필요할 경우 국민을 설득할 것,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사전에 합의할 것 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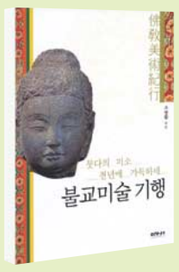
책은 구체적인 조언도 잊지 않는다. 실제 협상에서 취해야 할 보편적인 지침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무게중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서희의 협상을 모델로 오늘의 협상 테이블을 비교 분석하는 시도에 있다 하겠다. 제대로 된 협상이 가지는 파괴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영종(상지대 사회학 전공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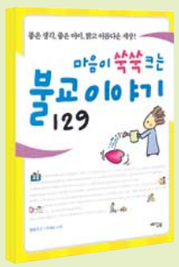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유쾌하게 읽는 불교
지금까지 이런 불교입문서는 없었다.
현대적 시각으로 가장 쉽게 설명된 불교입문서!
정확하고도 모범적인 불교 교리 해설서!
동송동 / 고명석 지음
신국판 293쪽 / 값 9,000원



불교미술기행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파헤치는 책
불교 조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런 조각이 만들어졌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각 만이 아닌 인도나 중국 등의 불교미술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가서 / 조병활 지음
신국판 310쪽 / 값15,000원



마음이 쑥쑥 크는
불교이야기 129
좋은생각, 좋은 아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 맑고 건강한 삶을 위한 어린이 명상집
의미 없는 천가지 말보다 단 하나라도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 훨씬 더 소중하다. – 법구경 –
바다교실 / 양태석 글 이재순 그림
신국변형판 199쪽 / 값 8,000원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반야심경에 담긴 삶의 지혜
'도대체 이런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했는지 모른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인 행복과 내적 평화로 이끌어 준다.
도서출판 무한 / 법상스님 글 · 사진
신국판 374쪽 / 값10,000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看話禪)
산사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해 온 선원장급 수좌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조계종 수행지침서!'
한국선의 근간을 이루는 간화선은, 공안을 참구하여 의단을 타파하고 자성을 깨닫는 활구참선법이다.
조계종출판사 / 불학연구소편저
신국판 양장본 437쪽 / 값15,000원

2005年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올해의 불서 10선'은 올해의 대표적인 불서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엄선한 책입니다.
불자들을 위하여 해마다 출판된 책 중에서 '10선'을 선정합니다!
진정한 불자는 책을 읽습니다
• 구입문의 : 불교서적전문 여시아문 02)2004-8220/737-0695 / www.yosiamun.com ※ 전국 각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 협찬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법보신문사,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영화로 불교를 만났다!!!
영화를 통해 불교의 진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
총 33편의 영화를 7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치 / 월호지음
신국변형판 180쪽 / 값 9,800원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마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승불교의 핵심적 사상을 요약적으로 설명.
이 책은 마음의 본질과 작용, 그리고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불광출판부 / 서광스님 지음
신국판 235쪽 / 값8,000원



불교풍속고금기
사찰의 생활과 풍속에 대한 50가지 이야기
불교에 대한 소박한 궁금증에서부터 사찰의 생활과 모습 속에 담긴 깊은 뜻까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줌으로써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은행나무 / 박부영 지음
신국판 319쪽 / 값13,000원



선문염송 염송설화 (1 -10)
선문의 내용 중에서 염롱을 주로 다룬 『선문염송』과 염송의 주석서인 『염송설화』를 회편하였다.
『한국불교전서』 제5책의 『선문염송염송설화회본』을 저본으로, 『선문염송』 원문은 역자가 현토하여 번역문 다음에 수록하였고, 『염송설화』는 서울대 규장각본을 책 뒷편에 영인하여 실었다
동국역경원 / 김월운 옮김 혜심 · 각운 지음
신국양장판 680쪽내외 / 각권 20,000원



잊혀진 가람 탐험
소설가 황석영씨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잊혀진 우리의 가람터, 그 옛 주소로 가다!
시인 장지현의 전국 폐사지 순례기
여시아문 / 글 장지현 · 사진 고영배
4×6배판 변형 360쪽 / 값 23,000원

불황타개 노력속 세계시장 개척

전국 불서展 · 올해의 불서 선정 · 원고 공모 등 눈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국내 출판 활성화에 한몫

2005 불교출판계 결산

2005년 불교출판계는 지난해 겪었던 최악의 출판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우리나라가 주빈국이 되어 치른 2005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국내 일반 · 교계 출판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행 열풍은 종단 차원에서 펴낸 <간화선>(조계종출판사)과 <수행법 연구>(조계종출판사) 등 굵직한 선(禪) 수행서 발간의 기폭제가 됐다. 또한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전국 불서 전시회'와 '올해의 불서 10' 선정작업을 펼치는 등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올해 국내 출판계의 가장 큰 행사였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었다. 10월 18~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이 도서전에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목판 인쇄물인 <팔만대장경> 등이 전시돼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알렸고, <지눌의 선사상> <선가귀감> <삼국유사> 등의 불서들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선보였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을 영어로 옮긴 <직지>를 전시해 최고 금속활자본에 담긴 불교사상을 세계출판시장에 전하기도 했다.

선 수행 열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판계 '태풍의 핵'이었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발간한 선 수행 안내서 <간화선>은 판매부수 1만여 권을 훌쩍 넘겼고, 염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한 <수행법 연구>를 비롯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집 <설선(說禪) 문 없는 문을 열다>(여시아문), 장휘옥 · 김사업 교수의 수행체험기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더북컴퍼니),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동국대출판부) 등의 수행서도 잇달아 출간돼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여시아문)과 <조용헌의 사찰기행>(이가서), <불교미술기행>(이가서),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이치) <유쾌하게 읽는 불교>(동승동) 등 불교문화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책들도 불교출판의 한 주류를 이뤘다.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불출협은 올 한해 바쁜 행보를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전국 62개 서점에서 '전국 불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한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양서를 가려 뽑는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 · 시상하는 등 불서 알리기에 앞장섰다. '올해의 불서 10'에 출품된 불서들로 짚어본 출판 흐름 역시 수행서와 불교문화 관련서 등 '현대인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책'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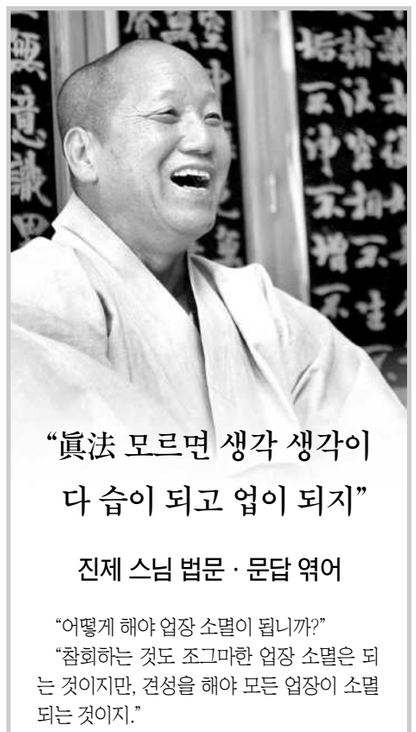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주빈국이 되어 치른 2005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는 <직지>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많은 불서가 소개돼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사진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열린 독일어판 <삼국유사> 출판기념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도서출판 민족사가 개최한 불교계 최초의 '출판 원고 공모전'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참신한 원고와 대중적인 필자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두 달여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0여 편의 원고가 접수돼 공모를 통한 출판 원고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출품작 대부분이 주변적인 이야기에 그쳐 대상을 배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를 펴낸 장석남 시인과 미당문학상을 수상한 문태준 시인 등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시집은 여럿 선보인 반면 불교적 소재를 다룬 소설은 남지심씨의 <청화 큰스님> 정도만 눈에 띄는 점도 아쉽다.

한편,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장)이 펴낸 <한글세대를 위한 경전> 시리즈 등 15권의 책과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을 이끄는 능행 스님의 에세이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는 올 한해 불교출판계의 큰 수확으로 손꼽힌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眞法 모르면 생각 생각이 다 습이 되고 업이 되지"

진제 스님 법문 · 문답 엮어

"어떻게 해야 업장 소멸이 됩니까?"

"참회하는 것도 조그마한 업장 소멸은 되는 것이지만, 견성을 해야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지."

"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활 가운데에 가지가지 습기(習氣)로 이루어진다."

"생각이 업이라고 하는데요?"

"진법(眞法)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법이지만, 중생은 진법을 모르니까 생각 생각이 다 습이 되고 업이 되는 것이지."

'북송담(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의 법문집 <선 백문백답>이 나왔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좌담법문(1997년)' '기묘년 동안거 대중과의 문답(1999)'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 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971년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한 진제 스님은 이후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을 역임했고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를 개최해 한중일 선사들과 법거량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과 동화사 ·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납자들을 키워내고 있다.



진제대선사 신판 禪 백문백답
해운정사 엮음
현대불교신문사 | 7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산사일기
성우 스님 엮음
오후에 | 9천원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성전 스님 지음
도솔 | 8천5백원

깨달음에 이르는 짧은 글, 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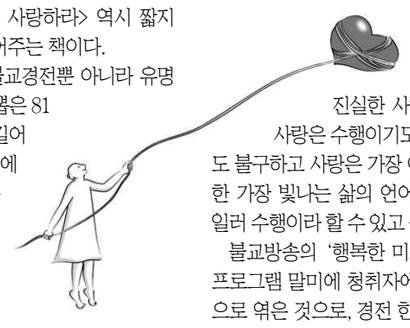
깨달음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선지식의 한 마디 가르침이나 깊은 사색이 담긴 한 구절의 아포리즘(aphorism, 격언 · 은유)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이 엮은 <산사일기>와 성전 스님의 에세이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역시 짧지만 긴 생각의 여운을 갖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산사일기>는 성우 스님이 불교경전뿐 아니라 유명인들의 어록, 시집 등에서 가려 뽑은 81편의 짧은 글귀를 담은 책이다. 길어야 원고지 1~2매를 넘지 않는 글에 불교 삽화전문가로 활동 중인 용정운씨의 따뜻한 그림이 어우러져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잡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힘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늘 흔들리고 제멋대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행복의 지름길을 당신의 마음을 잡는 데 있습니다."(법구경 中)

장황한 문체와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책들 속에서 모처럼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잔잔한 휴식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책이다.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빈손> 등의 에세이집을 통해 '미소 스님'이란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 성전 스님은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에서 '사랑하는 법'을 일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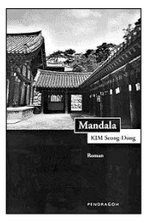
"내게 사랑은 언제나 나를 바치는 것이다. 나를 온전히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수행이기도 하다. 사랑의 이성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수행의 언어이고 또한 가장 빛나는 삶의 언어이다. 사랑이 없다면 무엇을 일러 수행이라 할 수 있고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불교방송의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고 있는 스님이 프로그램 말미에 청취자에게 전한 '오늘의 발원'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경전 한 구절과 스님의 메시지를 번갈아 실었다. 안도현 시인은 "깊은 울림을 주는 경구들과 성전 스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사랑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만다라' 불가리아어 번역 · 출간

한국문학번역원, '선가귀감' 체코어 번역 예정



김성동씨의 장편 구도소설 <만다라>가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의 지원을 받아 불가리아어로 번역 · 출간됐다(사진).

1979년 국내에 출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소설은 이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작가 자신이 2001년 결말을 바꾼 개작판을 출간하기도 했다. 번역은 최권진 교수(소피아대 한국학과)와 류드밀라 아타나소바(서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가 맡았고, 현지 출판사 세마르쉬(SemaRSH)에서 출간됐다.

<만다라>는 1992년 프랑스어, 2000년 영어, 2005년 독일어로 번역 · 출판된 바 있다.

한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은 체코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05년도 4/4분기 한국문학 신규 번역지원사업 지원대상작에 <선가귀감>을 비롯한 15건을 선정했다. <선가귀감>의 번역은 전문번역가 이바나 그루베로바씨가 맡는다.

이번 선정 심사는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13개 언어권 33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3건의 고전과 12건의 현대문학작품이 선정됐다.

각 지원대상자에게는 약정된 번역지원금이 지급되며, 번역이 완료되면 해당 언어권의 현지출판사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종무원 · 행자 · 공양주 · 모집

1. 종무원
컴퓨터, 운전, 행정사무를 두루 볼 수 있는자 (남 · 여 불문)
2. 행 자
스님이 되고자 하는, 건강하고 불심 깊은 사람
3. 공양주
위 각 1~2명씩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이력서 지참 내사하기 바람

불기 2549년 11월 29일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대한불교 조계종 현 지 사

알 림
연 5개월째 연속 베스트셀러
(위를 유지하고 있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 판매는
1. 현지사 033)243-1787,1795
2. 부산 현지사(분원) 051)554-5150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빛의 존재,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5개월여만에 5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11月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예 부흥....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11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거듭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11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12개월간 자재만현스님의 매월 첫째 일요일 불교TV 방송설법을 시청하시라!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이화여대 김명숙 교수의 '사색의 춤-알 수 없어요'는 자연과 만물의 상생 변화를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에 담아 불교무용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능화 스님이 청소년 포교를 목적으로 공연한 '찾아가는 문화재 예술활동'.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 '바라'는 첫 작품으로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공연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곳에서 개최한 산사음악회는 '테마'와 '기획'으로 승패가 갈렸다. 사진은 미래사의 산사음악회.

황병기 · 김명숙 교수, 유영교 조각가 등 창작예술 풍성
능화 스님 범패 청소년 포교와 공연문화 접목 시도 참신
산사음악회 늘고, 역량 있는 불자 화가들 전시회 줄이어
불교영화 개봉 사실조차 몰라…소재 발굴 관심 절실

올해 불교문화계의 기상도를 살펴보면 무용 미술은 '맑음'인 반면 음악은 '약간흐림', 연극과 영화는 '흐림'이다.

무용 불교 무용계는 올 한 해 창작 무용이 유난히 풍성한 해였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적인 작품을 하는 무용가들이 늘어나 불교무용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평이다.

가장 돋보인 작품은 이화여대 김명숙 교수(무용과)가 기획한 '사색의 춤 알 · 수 · 없 · 어 · 요'.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를 모티브로 각색한 이 작품은 가야금 명인 황병기 교수(이화여대)와 조각가 유영교 씨의 설치조각이 어우러져 불교무용의 깊이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은 경기도립무용단에 의해 '꿈, 꿈이었느니'로 7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올랐다. 또한 미륵부처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꾸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륵의 꽃', 2005 APEC 아시아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문화축전행사 참가작인 김옥련 교수(경성대 무용과)의 '도불유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도성사(道成寺)' 설화를 한국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하얀 도성사' 등 불교 무용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꾸준히 범패와 작법무 공연을 해온 능화 스님은 올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활동'으로 시선을 모았다. '청소년 포교'의 목적으로 일선 학교의 각종 축제에서 공연을 마련한 것. 스님의 공연은 불교 무용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만한 시도였다. 이외에도 능화 스님은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개막공연, 한국종합예술대학 공연 등 불교계 밖에서 공연에 힘썼다.

법현 스님(불교무용연구소 소장), 동희 스님 등도 꾸준히 영산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선보였다. 불교 창작발레를 개척한 손재현 교수(동국대 체육교육과 무용전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창작발레 '제망매가'를 무대에 올려 꾸준한 창작열을 과시했다.

음악 산사음악회의 활성화 이면에는 무대공연이 가뭄이 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무대공연 횟수가 빈약해 불교음악인들의 창작에 대한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음악계에서는 불교계 최초의 오페라단 '바라'가 창단돼 불교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6월에 창단된 '바라'는 10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첫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무대에 올려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음성공양으로 포교를 하려는 움직임도 다각도로 벌어졌다. 진각종 서울청년회 회원들로 구성된 J&B 소울(Jingak news buddhist band of sound-hoilc)은 3월 19일 창단 첫 정기연주회를 열고 포교일선에 나섰다. 6월에는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제니스불교음악원이 개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니스여성합창단도 출범했다.

전통 찬불가뿐만이 아니다. 스님들의 대중가요 음반 출반도 러시를 이뤘다. 심진 · 운붕 · 원일 · 일붕 스님 등이 가요 음반을 통해 포교에 나섰다.

산사음악회는 해마다 개최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30여 곳, 2004년 40여 곳에 이어 올해는 5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기획과 테마가 있는 음악회들은 인기를 더한 반면 특징없는 음악회들은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천재음악가 윤이상 타계 10주기였던 올해는 윤이상 평화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독일의 윤이상 앙상블이 내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창작찬불동요 제작에 매진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 역시 창립 10주년을 맞아 총 21집의 창작앨범을 내는 등 척박한 찬불동요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전문연주단체 후원회가 생겼다.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몰렸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한 후원회가 5월 28일 출범된 것. 앞으로 전문연주단체에 대한 불교계의 의식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변화이다.

미술 개인전이 러시를 이룬 반면 그룹전과 테마기획전 등 불교미술의 전반적인 장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시회가 유난히 부족했다. 이만익 이왈종 오경환 김영원 김대열 도학회 진철문 이호신 화백 등 여러 작가들이 불자들을 찾아왔다.

가족 설화를 단순 명쾌하게 그려낸 이만익 초대전, 15년간의 제주 생활을 담은 이왈종 화백의 '꿈과 일상의 중도', 40여 년 간의 작품활동을 회고하는 오경환 화백의 회고전, 텅빈 충만을 '바라보기'연작으로 형상화한 김영원 화백 초대전, 감성과 화두를 아우른 김대열 화백의 작품전, 백제관음을 모작한 도학회씨의 작품전, 선(禪)조각 장르를 개척한 조각가 진철문씨의 조각전, 이호신씨의 '검은 꽃 향기-한지에 담은 탄자니아' 전 등 다양한 전시회가 열렸다.

개인전 뿐 아니라 고판화와 전각 관련 전시도 불자들의 시선을 잡았다.

서울 일민미술관의 '한국 고판화展', 삼성출판박물관의 '고판화 특별전2',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나무-붓 · 칼 · 종이의 만남展' 등 고판화전이 연달아 열렸는가 하면 전각가들의 개인전도 이어졌다. 심무용씨는 돌에 갑골문자를 형상화한 '닭'을 새겨 전시를 했고, 고암 정병례 화백은 자신의 전각작품을 지하철포교기금 조성에 선뜻 제공해 개인전을 열었다. 이외에도 반야심경 등을 전각한 김병윤씨의 '궤(軌)' 등이 전각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 기념으로 열린 만다라전에 대한 인기는 특출했다. 티베트 전통사원의 스님들에 의해 무려 7일간에 걸친 대형 만다라 제작을 공개하는 드문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미술관의 티베트 탕카특별전 '삶과 죽음을 넘어서',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감로展', 삼성미술관 리움의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변상도' 공개, 진천종박물관 개관, 대원사 티벳박물관의 '인도세밀화 특별전' 등도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극 · 영화 무용 음악 미술계가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면 연극 영화 쪽은 심한 정체를 드러냈다. 연극은 영화보다 조금 형편이 낫다. 연희단거리패가 팔만대장경 제작에 정열을 바친 세 학승의 이야기를 다룬 '아름다운 남자'를 선보인 것이다. 지난해 한편도 불교연극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다행이라 할 정도다.

한국영화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록 가수 무진이 자신의 몸을 등신불로 산화해 불교에 귀의한다는 '살타(殺打)'가 제작 개봉됐을 뿐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불자들조차 개봉사실을 모를 정도로 개봉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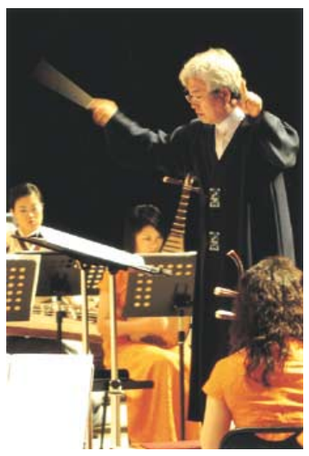
이외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새 기능보유자로 구해 스님이, 제48호 단청장에서 분리된 제118호 불화장에 석정 스님과 임석환씨가 첫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구국음악회-부모은중경' 공연
중앙국악관현악단, 1월 8일(세종문화회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음악회가 열린다.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구국음악회-부모은중경'은 광덕 스님이 작시하고, 박범훈 총장(중앙대)이 작곡한 '부모은중송'을 무대에 선보이는 자리이다.

박 총장이 지휘하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는 김성녀 교수(중앙대 음악극과) 도신 스님, 박애리씨 등이 출연한다. 1부에서는 200여 명의 합창단이 교성곡 '보현행원송' 등을 노래한다. 2부에서는 '부모은중송'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수익금은 네팔 대성석가사의 불사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031)657-0124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
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
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
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잔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
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
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
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
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
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
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
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禧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4>



불구대천의 원수 (1)

부처님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당에서 스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시비를 가리느라 급기야 스님들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퍼부어대고 거친 몸짓을 해대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처님은 싸움의 당사자인 스님들을 불러 앉혀서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최소한 조리에 맞지 않는 몸짓이나 말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몸싸움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함께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또다시 싸움이 일었고 스님들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느라 그야말로 '입 속의 칼(혀)'로 상대를 사정없이 찔러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수행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지켜봐야 하는 부처님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일 때마다 당사자들을 불렀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중재와 훈계조차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모아 이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하박가>라고 하는 율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라 빼앗고 부모마저 처참하게 죽인 왕을 향해 원한의 칼 갈던 다가부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주 먼 옛날 코살라국에는 디기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힘이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항상 이웃 카시국의 브라흐마닷타왕의 침공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디기타왕은 브라흐마닷타왕이 침공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스스로 왕위를 물러났습니다. 왕비와 단둘이 성을 빠져나갔고 그 나라는 단 한 사람의 희생도 보지 않고서 브라흐마닷타왕에게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왕비는 뒤늦게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디가부.

하지만 언제나 살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디기타왕은 아들의 목숨이라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을 멀리 보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견은 정확하였습니다. 결국 왕궁에서 이발사로 있던 자의 밀고로 왕과 왕비는 브라흐마닷타왕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가 빡빡 깎이고 밧줄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날카로운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 가운데 사방으로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마침 오래도록 집을 떠나 있던 아들 디가부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찾아왔다가 자기 부모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의 제정신을 잃고서 부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발견한 디기타왕은 허공에 대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긴 것을 보지 말고 짧은 것도 보지 말아라. 원한은 원한으로 누그러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아닌 것에 의해서만 원한은 누그러진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사정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수근 대었습니다.

"이 왕이 무서운 나머지 미쳐버렸구먼. 허공에 대고 지금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하지만 디기타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아버지의 외침에 아들이 멈칫한 사이 사람들은 디기타왕과 왕비를 남문으로 끌고 가서 사지를 잘라 죽인 다음 시체를 거두지도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야 했던 아들 디가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터라 병사들에게 술을 먹여 쓰러뜨린 뒤에 부모의 시신을 거두어 화장을 치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시신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돌면서 예를 올린 뒤에 그는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통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울음을 토해내었습니다.

가슴 속의 울분이 다 터져 나올 때까지 그의 눈물과 절규는 끊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없는 눈물을 쏟아낸 뒤 그는 부모의 원수를 반드시 갚고야 말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왕의 최측근이 되어야 했고 그는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결국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냥을 나선 왕의 말을 요령껏 몰아서 일행들로부터 왕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숲 속에 왕과 단 둘만 남게 된 디가부. 게다가 왕은 말을 달리느라 피곤하다면서 디가부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시라도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놓아본 적이 없는 디가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디가부는 가만히 칼집에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계속)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불법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 스님은 부처님 법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발심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상 백고좌

성공 스님

(부산 관음사 주석)

부산 관음사로 성공 스님을 뵈러 가는 길, 공연히 마음이 서둘러진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문 앞에 나와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괜스레 조바심까지 난다. 언젠가 스님을 뵈러갔을 때, 절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스님의 그 모습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보석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고 감동이었다.

구덕 터널로 향하던 대로를 비켜나 우회전하자 곧바로 꼬불꼬불 좁은 마을길이 이어진다. 스님이 계시는 관음사가 머지않았다. 마음속에 각인된 스님이 벌써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짓 하는 듯 하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음에 온기가 더해온다.

"추운데 고생이 많네. 어서 들어와."

인기척이 나기가 무섭게 어느새 마루 끝에 나와서 계신다. 좀 전에도 손님을 만나고 계셨는데 어찜 저리도 반갑게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바로 부처야.' 사람을 대하는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말을 웅변하는 듯 하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여쭈러 왔습니다."

"예전부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준비로 동지를 지내왔는데, 붉은 팥죽을 끓여서 먹곤 했어요. 붉은 색깔은 불로써 모든 재앙을 태워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팥죽을 아무리 마당 가득 뿌려도 모든 잘못된 생각을 태워 없애겠다는 마음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묵은 때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 때는 바깥의 일과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묵은 때를 없애야 진정한 송구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발심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

스님은 일생을 법사로 활동해왔다. 그래서 법문에 막힘이 없다. <법화경> 약초유품의 비유를 들어 법문을 시작했다.

"불법은 그대로 팔만장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 수기설법을 한 것이 팔만장경입니다. 그런데 근기에 맞춰서 설했다고 하는 것을 <법화경>의 약초유품에 말씀하신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근기에 맞춰서 설했다기보다는 근기에 맞게 받아들인다고 봐야 합니다. 약초유품에 보면 중생은 산천의 초목총림이요, 부처님의 법은 비와 같다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우(法雨)는 초목을 분별치 않고 내리지만 초목총림이 근성에 따라 큰 나무는 크게 크고, 작은 나무는 작게 크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법문이 설해진다 해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님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고준한 법문이 소용이 없어지고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가 있습니다. 또 인도, 천도, 수라라는 세 가지 세상이 있지요. 이것이 삼선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부의 세계이다보니 그 모두를 육범(六凡)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네 가지는 성인의 세계입니다. 여섯 가지와 네 가지를 사성육범(四聖六凡)이라 하고 그것을 총칭해서 십법계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나 범부나를 떠나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성문 연각 보살 불의 세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견성성불해서 부처될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불성이 있고,지옥에 있는 이도 불성이 있고, 전부 불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1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불자님들을 위한 12支 건강 지킴이 메달



인연 닿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12지 건강 지킴이 1호(쥐띠)에서 12호(돼지띠)까지와 수비 경명주사와 육기의 기운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는 핸드폰 고리를 오랜 간 연구하여 정성을 다하여 개발시판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12지 띠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분명 건강과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 재 료
99%의 은 (중량 – 메달 5돈, 목걸이 10돈)

● 특 징
앞면은 12지신 문양은 건강과 행운을 함께하며, 뒷면의 육기(피라미드원리)에서 나오는 특이한 기(氣)를 발생하여 생기(生氣)를 북돋아 주며, 자연 식물성 특수 접착제로 배합하여, 천연광석인 최고급 수비경명주사와 금니로 마무리 채색

▶ 12支 건강 지킴이 메달 사용효과
천연광석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금니채색 및 육기의 기운이 함유된 제품이기에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신경안정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됨것이며 전자파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경명주사의 효능
본초경에서는 경면주사는 "맛은 달고 약성은 약간 차고 독이 없으며 심경에 돌아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정하여 보기(補氣), 치당뇨(治糖尿)등을 치유한다"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안정시고 경풍을 멈추며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때문에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수면장애, 건망증, 경풍, 경간, 정신병, 열이 심하고 정신이 흐리며 헛소리 하는데, 피부가 헌데등에 쓰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기, 간질,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금라성(錦羅星)
인연처 : 051)646-2700. 632-0173 부산 진구 범천 1동 845-11(3층)
언제나 건강한 삶과 행복된 나날을 기원합니다.....



12지 건강 지킴이 메달 뒷면과 핸드폰줄 앞뒤

▶ 육기(六氣)의 기운(氣運)
육기의 에너지는 피라미드 에너지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께와 육각형의 선과 음양각의 조화를 유지 한다면 만족할 만한 육기의 에너지를 발생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의 향상, 질병치유 효과 증대

농부가 농사 안 짓는 것과 같아"

마음속 묵은때 없애야 진정한 '송구영신'
한국불교, 명예 · 물질욕 비우고 변화해야

바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란 말입니다. 사성육범의 전부가 불성이 있어서 견성성불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평등성지는 갖고 있지만 앞의 약초유품의 비유에서처럼, 현실은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어요. 지옥은 지옥이요 아귀는 아귀요 축생은 축생이고 인도는 인도로 벌어져 차원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그것을 토대로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다. 천차만별의 차원으로 벌어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는 벗어났지만 수라 천도 인도 삼선도의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축생입니다. 사람에서 제일 아래 차원으로 가까운 것이 축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높게 치면 한량없이 높으면서도 자칫하면 축생에 가까워져 버린다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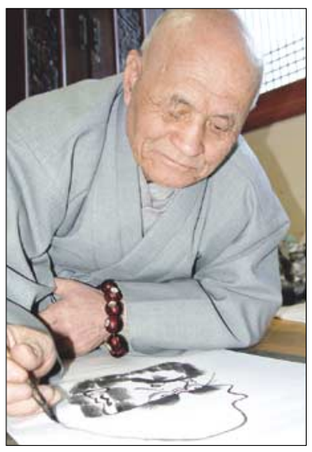
스님은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원인을 교육의 부재로 꼽았다. 합리적인 교육이 없이 글과 기술만 앵무새처럼 익히는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불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교육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교육이 없다고 하면 전국에 교육기관이 수도 없이 넘쳐나는데 왜 교육이 없다고 하는지 따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敎)라는 글자는 효도 효(孝)자변에 글월 문(文)자로 만들어져 있는 뜻글자입니다. 교육의 모체가 효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효는커녕 윤리도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식인 양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글을 아무리 잘하고 기술을 아무리 잘해서 돈벌이를 많이 하더라도 인간 본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답게 사느냐는 합리적인 교육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그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고차원의 이름을 붙이는 인간 존재가 너무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니…"

스님의 안타까움은 몹시 커 보였다. 그러나 스님은 어둠 뒤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희망론을 내놓았다.

"20세기가 저물어가는 밤이었다면 21세기는 낮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해가 지는 서쪽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뜨는 동쪽의 시대가 됩니다. 동양의 사상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맥을 잃고 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흐름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동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불교가 세계를 이끌어갈 시대적 흐름앞에 섰는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불교가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그 시대적 흐름을 자각하고 준비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달마를 그리고 있는 성공 스님.

스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 불교가 세계정신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묻어났다. 그러나 스님은 한국 불교가 뼈를 깎는 자기 변화를 거듭해야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상당히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불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불교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잘못돼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감투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새로워지려면 명예와 물질을 떠나서 비우고 비워나가야 합니다. 때는 이미 불법의 시대가 왔는데 한국불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흐름에 낙오되고 맙니다. 삼차원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여의어야 합니다. 물질의 세계, 공기의 세계, 진공의 세계 중 진공의 세계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불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 집착해 명예와 물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21세기 불교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 스님이나 불자들 모두가 진공묘유의 참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변화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즉심시불, 비심비불을 지나 무심무불, 즉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는 참불교의 세계를 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맹목적인 희망론도 없다.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변화와 과제가 필수적이다.

"법은 실천입니다. 참다운 인간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대전제로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곡식 키우면 열매 맺듯 증이 됩니다.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원리입니다. 행이 없는 이론은 농학 박사가 농사는 안 짓고 방안에 누워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믿으면 믿은 그것을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겨서 생활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 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며, 선은 받들어 행하라. 자기 뜻이 깨끗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달리 다른 말을 찾지 말고 이 하나라도 행으로 옮겨 보세요.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금강경 독송테이프 첫 제작…60여년 법사생활 한길

성공 스님은

"이름과 물질을 구하는 것은 아침이슬 같다"

성공 스님의 일생을 관통해온 철학이다. 감투욕, 명예욕 없이 60여년을 법사생활로 일관해 온 스님은 아직도 법문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법석마다 '구름 벗겨지면 바로 달'이라는 번뜩이는 가르침으로 망념을 몰락 내려놓으라고 대중을 후려친다.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성공 스님은 1941년 해월선사의 맏 상좌 운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금정선원, 정혜사, 도리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지냈다.

40년 전 오대산에서 기도 중 금강경을 삼일 만에 외운 스님은 우리 나라 최초로 금강경 독송 테이프를 만들었다. '내 독경소리를 듣고 신심을 내어 더욱 정진하다면 붙은을 갚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스님의 금강경 독송은 휴대폰 연결음, 벨소리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주경 스님의
스님이야기
단호 스님

수덕사는 비구니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미루어 짐작된다. 만공대선사께서 근대한국불교 최초로 비구니선원을 건립해서 많은 비구니선지식이 배출된 까닭이 첫째요. 둘째는 일엽 스님이라는 걸출한 신여성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입적한 곳이 만공 스님 문하의 덕숭산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불자가수 송춘희씨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때문이다. 그래서 수덕사는 여성 출가자가 많아 비구니 대중이 비구스님들보다 훨씬 많이 살고 있다.

나의 행자시절에도 남행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20여명의 여행자들이 있었다. 그때 수덕사는 본사 주지스님께서 행자들에게 직접 <초발심자경문>을 강의했는데, 남녀 행자들이 함께 모여 공


그림 · 문병성

부를 했었다. 단호 스님도 그렇게 같이 <초발심>을 배운 행자도반이다. 당시 행자들은 산중의 네 곳에서 살았는데, 수덕사와 총림선원 정혜사에 남행자들이, 비구니선원 견성암과 일엽 스님이 노년에 창건한 환희대에서 여행자들이 살았다.

<초발심>은 주지스님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후에 강의를 했다. 행자들은 공양주며 채공, 갱두 소임을 살며 바쁜 가운데 염불과 의식을 익히고, 또 거의 매일 울력이 있어 피곤한 가운데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초발심>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주지스님의 엄명은 행자들을 초긴장하게 만들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무렵 30여명의 남, 여 행자들이 모이면 각자의 개성과 그들이 사는 대중처소의 특색이 드러나곤 했다.

단호 스님은, 일엽 스님의 직계권속들이 사는 환희대에서 공부를 하러 다녔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행자들에 비해 다른 뭔가가 느껴지곤 했다. 마치 집안의 맏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챙겼다.

환희대는 그때부터 월송 스님이 감원으로 계신다. 월송 스님은 체격이 남자처럼 장대해서 꼭 비구스님을 보는 듯하지만 그 품성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다. 산중의 대소사는 물론 신도들을 챙김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기로 유명하다. 단호 스님은 이런 월송 스님의 성품을 빼닮았다. 환희대 대중들의 살림살이가 다들 짬지고 꼼꼼하지만 단호 스님은 특히 마음이 가는 도반이다.

사실 당시 수덕사에는 유례없이 행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승복이 모자라 행자들의 삭발이 늦어지기도 했고, 수계할 때 가사장삼을 구입하는 것도 사중에 적은 부담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는 스님들의 여벌옷과 가사장삼을 얻어 수계를 하게 되었다. 나는 체구가 조금 커서 옷을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침 월송 스님이 여벌 장삼을 보내주어 그 장삼을 입게 되었다. 이후 나는 그 장삼을 10여년간 입었다.

계를 받고 도반들이 다들 선방이며 강원으로 갔지만 나는 산중에 남아 법당소임을 살고 있을 때였다. 단호 스님은 일이 있어 큰절에 들리면 꼭 찾아서 수행의 인연지를 것을 당부하곤 했다.

출가인의 본분사가 수행정진해서 불조의 혜명을 잇는 것 이상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데,

수계도반들과 공부인연 짓는데 큰 역할

소임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단호 스님의 말이었다. 공부도 때가 있는지라 때를 만나 인연을 짓지 못하면 공부의 인연이 멀어질까봐 진정으로 걱정했다.

몇 년이 지난 뒤 다들 강원을 마치고 제방에서 정진중일 때 수계도반들에게 새로운 공부 인연을 짓게 하는데도 단호 스님 역할이 컸다.

<초발심>을 같이 배운 도반들에게 해제철에 설정 스님을 모시고 선어록 강의들을 것을 제안했고 다들 뜻을 같이했던 것이다. 처음 행자시절 도반들이 모은 작은 마음은 산중과 종단 전체에 퍼져나가 좋은 인연을 엮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수덕사는 비구 비구니 대중이 잘 화합해서 사는 도량으로 손꼽힌다. 만공스님이래로 산중의 어른 스님들께서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시니 후학들이 어떻게 그 본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덕사에는 비구니스님들이 산중의 어른 비구스님을 잘 모시고, 단호 스님도 나의 은사스님을 자신의 은사스님 챙기듯 정성을 다해 모시니 때로 시봉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단호 스님은 작은 절의 주지소임을 보고 있다. 같이 주지를 살면서도 공부 인연을 놓치지 말라는 그 염려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늘 멈춤이 없다.

서산 부석사 주지

이번호로 '스님이야기' 연재를 마칩니다. 6년동안 '스님이야기'를 써주신 스님들과 애독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연등 자동장치 세를 중 한틀이 준공된 모습 (불을 켰을때의 전경)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불로전하는자비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등 · 팔각봉축접등 · 유등 · 공단등 · 육각조립등 · 팔각조립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겨울방학동안 집과 학원을 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불교계가 마련한 각종 행사에 참가해 보자.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회의 '2005년 VIYA 스키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

긴긴 겨울방학 뭐할까? 절에 한번 가봐

사찰 · 불교단체 겨울방학 프로그램 풍성

"긴긴 겨울방학동안 무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은 절로 모여라!"

올해 12월 27일을 전후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들로 산으로 얼음을 지치고 썰매를 타며 놀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낮에는 학원 다니느라, 저녁에는 인터넷, 비디오게임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올 겨울방학에는 꽉 막힌 도시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이 다양한 불교수련법회, 겨울철 템플스테이를 준비해놓고 손짓하고 있다. 겨울방학동안 공부도 마음도 잡고 싶은 청소년들이라면 한문, 영어,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수련법회를 눈여겨볼만하다. 이참에 해외로 눈을 돌려, 봉사활동을 겸한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내면의 나를 만난다-템플스테이

합천 해인사는 염불수행, 참선수행 등 수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수련법회를 2006년 1월8~11일, 청소년 수련법회를 1월12~15일 개최한다.(055)931-1001~3

화성 신흥사 역시 어린이 수계식, 108참회, 선재동자 구법행 등의 신행프로그램으로 꽉 짜인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1월3~5일, 청소년의 윤리회복 수계식, 부모은중경독송독경대회, 사경법회 등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수련법회를 1월10~13일 운영한다.(031)357-3916

보은 법주사는 새해서원을 담은 등을 들고 팔상전탑돌이를 한 뒤 미륵부처님께 서원등을 공양하며 한해의 다짐을 새기는 초등학생 수련법회를 내년 1월2~4일 진행한다.(043)543-3615

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중등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12월26일~31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개최한다.(053)474-8228

성주 도솔암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12월31일~2006월 1월2일 좌선, 선체조, 해맞이 포행, 불화 그리기, 교리연극, 효도다짐 촛불의식, 새해 발원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겨울수련법회를 연다.(054)931-0175

여주 신륵사는 어린이겨울불교학교를 내년 1월2~4일, 청소년겨울수련회를 1월6~8일 운영한다.(054)436-6084

김천 직지사도 1월9일~14일 5박6일간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연다.(054)436-6174

또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격월간 <불교와문화>와 월간<불광>은 12월29일~1월 1일 3박4일 동안 **과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1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마련했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이 대상이며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한다'를 주제로 수행과 캠프를 결합시킨 수련 프로그램이다. 절, 염불, 진언, 참선 등 다양한 수행정진은 물론이고 대화와 글쓰기를 통한 지기성찰의 시간 등으로 꾸며진다.(02)719-2606

공부도 하고 자연도 느끼고

해남 미황사는 2006년 1월15일~22일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를 개최한다.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시강독, 문화체험과 답사,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을 진행하며 12월30일까지 모집한다.(061)533-3521

공주 마곡사는 만화와 영화에 열광하는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화제작기법과 영어공부를 겸하는 예술캠프 '영어 애니메이션캠프'를 1월9~14일 연다. 가격은 40만원이다.(041)841-6221

서산 부석사 역시 효사상과 영어공부를 접목한 '어린이충효영어교실'을 1월1~8일 진행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영어교실은 15만원이다.(041)662-3824

숲속의 풀과 나무를 보고 여러가지 자연놀이를 통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사찰에서의 생활을 통해 불교문화를 직접 접하고 자연의 신비를 깨우칠 수 있는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부석사 겨울캠프'를 내년 1월7~8일 서산 부석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회원은 4만5천원, 비회원 5만원이며 불교문화체험, 도비산 숲속놀이, 천수만 철새탐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02)720-1654

새로운 세상체험-여행을 떠나요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내년 1월10~14일 오사카, 교토, 나라 등지의 한국문화를 탐사하는 '2006년 제2기 청소년자율탐사단-일본속의 한국'을 발족한다. 총 45명의 서울시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신청기간은 12월30일까지. 참가비는 65만원이다.(02)723-6165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겨울 워크캠프인 '2006년 VIYA 스키캠프-하얀마음 하얀세상'을 개최한다. 내년 1월2~4일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스키를 배우며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 진각종 지방교구 및 지부 심인당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인당 주교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50명 선착순 모집으로 참가비는 14만원이다. (02)587-8993

정토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외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4차 청소년 인도워크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중3~고3연령의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인도 보드가야 근교 둥게스와리에 위치한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1월13~27일 2주 동안 함께 지내게 된다. 또 마을의 공동샤워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유치원 벽화를 그리는 등의 봉사활동도 펼친다. 참가비는 140만원이며 접수기간은 12월24일까지다.(02)587-8993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게시판

혜암스님 열반 4주기 추모재 합천 해인사는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 열반 4주기를 맞아 12월 31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추모재를 봉행한다. (055)934-3001

대불어 제40차 연수회 CD 판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어린이불교학교 지도교사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제40차 연수회 전체 강의 CD 3장과 연수회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3만원이며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대불어 2006년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051)864-4569

서울불교청년회 송년법회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청년회는 12월28일 만해교육관에서 서울불교청년회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738-3386



구로청소년수련관 겨울특강 서울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겨울특강, 전래동요와 놀이교실, 발도르프 체험과학만들기교실, 리더십향상교실 등을 개설했다(사진). 1월3일부터 월,수,금 수업이 진행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2만~2만5천원이다. (02)838-1318

독거노인 방문 선물전달 서울 신길사회복지관은 12월 26일 지역 독거노인을 방문해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02)831-2755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만	조	백	관			
다			산	수	화	
라	식		성		사	
	자				첨	
	우				족	편
	환	형	동	물		조
				가	계	

전시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사진전

국립진주박물관, 내년 2월까지



문화재 전문사진가 4인의 고풍스러운 우리 문화재 작품사진 20점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국립진주박물관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사진전'을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에 동참한 4인의 사진가는 관조 스님, 김대벽, 한석홍, 안장헌씨이다.

2001년 합작 사진집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사진)를 내기도 했던 이들은 이번에는 작품을 엄선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관조 스님은 사찰벽화를, 김대벽씨는 전통가옥을, 한석홍씨는 국보급 문화재를, 안장헌씨는 석조 문화재 사진을 각각 전시한다. (055)742-5951 강지연 기자

무심한 돌에 새긴 禪 한기늠 조각전



한기늠 作 '구도'.

"내 작품을 가까이 하면서 누구나 마음이 평안해 지기를 바라는" 조각가 한기늠씨의 귀국 15주년 기념 조각전이 12월 26~31일 부산광역시청 2, 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 속에서' '내심의 향기' '빛' '선(禪)' '구도(求道)-Meditation' 등 4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기늠씨의 작품들은 돌에 형상을 새겨 돌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한 편의 시를 써넣듯 조각을 한다는 평을 받는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경기대 미술경영)는 한기늠씨의 작품세계에 대해 "작가가 조각해내는 인물들은 명상, 침묵, 관조 그리고 수행의 자세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051)888-4747 강지연 기자

공연

세계민속예술&타악 페스티벌

12월 23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우리나라 참가팀인 타악그룹 '하타'의 신명나는 공연.

세계 6개국의 민속춤과 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자.

2005 대구 세계민속예술&타악 페스티벌이 12월 23일 오후 7시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서 개최된다. 신나는 두드림의 세계, 타악과 함께 일본 대만 볼리비아 태국 터키 한국 등 6개국의 아름다운 민속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 타악그룹 하타 · 한울소리와 일본 대만의 특색있는 타악 연주와 공연이 신명하게 벌어진다. 2부에서는 태국 터키 볼리비아의 민속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모든 참가팀이 협연을 하는 한바탕 대동마당이 펼쳐진다. (053)742-5951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9일 14:05 낭만라디오
20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1일 10:05 BBS신행상담실
22일 09:05 행복한 미소
23일 07:05 아침저널
24일 06:20 오늘은 좋은 날
25일 07:05 사랑의 징검다리

Btn ·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9일 21:10 한국의 명찰
20일 02:40 불교TV스페셜
21일 15:50 열린마당
22일 19:30 TV법회
23일 08:20 산중대담
24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25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12월 23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고운기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오후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12월 23일 08:20~09:20) 큰스님들의 살아 숨 쉬는 선(禪)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이영화 어때요?

수채화 같은 첫사랑의 추억과 설레임

파랑주의보 감독: 전윤수 출연: 송혜교, 차태현 장르: 드라마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이상



영화 '연애의 목적'이 흠런을 날린 이후 한국영화계는 바야흐로 '연애춘추전국시대'다. '연애술사' '애인' '연애' '광식이 동생 광태'가 그것. 하지만 영화 '파랑주의보'는 조금 다르다. 전자의 영화들이 영화적 재미를 추구한 화려한 연애의 기술과 볼거리만을 추구했다면 후자는 첫사랑의 추억과 설레임을 수채화 같은 영상으로 담았기 때문.

고2 동갑내기 친구 수호(차태현 분)와 수은(송혜교 분). 평범하기 그지없는 수호와 달리 수은은 교내 모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짝사랑의 대상. 하지만 마음도 얼굴도 제일 예쁜 수은에게도 짝사랑의 상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수호. 수은은 음성사서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남기고, 수은의 달콤한 사랑 고백을 들은 수호는 그 날 밤 드디어 첫사랑의 설레임에 밤을 지샌다. 수은의 사랑 고백 후 공식 커플로 사귀게 된 수호와 수은은 천천히 자신들의 첫사랑을 키워나가게 된다. 어느 날 친구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두 사람은 섬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영화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은 바로 천혜의 절경이 가득한 거제도의 풍광이다. 2.35:1의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담은 검은 조약돌이 펼쳐진 학동몽돌비치,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 등이 주인공들의 사랑과 어우러져 스크린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견 배우 김지영과 뮤지컬 출신의 배우 송창의 등이 출연해 신구(新舊)의 조화가 영화의 빛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크리스탈 연꽃

영롱한 크리스탈 안에 레이저로 새겨진 연꽃이 오색빛을 발하며 불자가정을 환하게 밝혀준다.

15cm 높이의 크리스탈은 3색 LED불빛이 발광하는 사각받침대나 5색의 LED빛이 발광하며 돌아가는 회전받침대에 세워놓을 수 있다. 장식용 크리스탈 연꽃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다. 가격은 1만4천원.

사랑으로 감으련다

김창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그림 · 문병성

나는 어릴 적부터 무척 불행했다. 어릴 때는 자신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판단을 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불행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았다.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나오는데 아픈것은 대부분 정신건강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는 결과이니까.

특히 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제일 지겨웠다. 나를 사랑한 것 같지만 지금 판단해보면 대부분 어머니 자신을 사랑한 결과였다. 나는 어릴 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공부를 강요했다. 성적이 좋으면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공부를 했다. 강요에 의해 공부를 하다 보니 약간의 우울증도 겪었다.

외톨이로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나는 경북대를 졸업한 후 매일신문 29기 수습기자로 발탁됐고 다시 중앙일보에 24기 대우로 특채됐다. 남이 볼 때는 순조로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탄한 인생길이다. 그러나 정녕 나는 불행했다.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감이 없었다.

중앙일보 자매지 중앙경제 교열부에 있으면서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를 1년 가까이 받았다. 50분 상담에 5만원을 주고 1주일에 한 번 치료를 받았는데 비싼 감이 있었으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신분석을 받고 무엇이 결핍되었나,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당시 담당의사에게서 "당신같은 스타일이 해고 1순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해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감이 없었고 그렇게 쉽게 해고당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2월 명예퇴직을 강요당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기에 회사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어 저항을 많이 했다. 도대체 나보다 게으른 사람들은 놔두고 왜 착실한 나를 자른단 말인가! 정말 천부당만부당했다.

그렇게 회사에서 해고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게 있다. 바로 발표력 기르기다. 당시 무료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남 앞에서 자기 주장을 확실히 밝히는 연습을 나이 40에 시작한 것이다. 1년 가까운 취재기자 시절 온갖 사람을 다 만나고 추궁(?)하고 했지만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다. 여러 학원에서 사람사귀기와 발표력 기르기를 배웠고 제과제빵학원도 다녔다. 거기서 기술을 배워 취업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얼떨결에 딴 자격증으로 기존의 가게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명퇴 후 어머니와 세상에 대해 원망
모든 갈등 마음속 화에 있음을 알아
큰스님들에 받은 가르침 사회환원 다짐

고향에서 노래방을 2년간 운영해봤으나 이것도 실패. 그러다 스포츠투데이에 교열기자로 들어갔다. 물론 내적 갈등은 계속됐다. 내적인 평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천안청소년수련원에서 3박 4일 수행도 참가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 틱낫한 스님의 <화>라는 책을 대여섯 번 읽고 '바로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책 표지에 써있는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 가슴 속 30~40년 된 감정의 앙금을 찾아 초등학교 동창까지 찾아 나섰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 "그때 이러 이러한 폭력으로 나는 그동안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오래된 기억이라 해도 대부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내 속의 화는 그것으로 삭아져 갔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이런 식으로 풀려다 보니 끝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것이 내 속의 화를 증폭시켰다. 아무리 화를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식구들과 얼굴 마주 보기도 힘들었다. 내부의 화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섯 식구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우선 내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다급함이 앞서 퇴사를 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도 순하고 착했던 내가 왜 이렇게 지옥불 한가운데를 걷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무슨 업이 지중하여 이렇게 순탄한 대로를 두고 스스로 지옥불을 껴안지 않으면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원망도 많이 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악다구니 탓같았다. 어머니는 당신의 불행을 왜 아이들에게 전가하여 그렇게 아이들을 들볶고 괴롭혔는지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여파로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사람의 기본 인성과 감성이 형성돼 있지 않고 오히려 많이 파괴되다 보니 사람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부모님 극복'이다. 남의 잘못은 쉽게 극복되는데 부모님의 잘못은 연약한 자식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해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나만 해도 처음엔 효도한답시고 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듣고 있다가, 듣는 내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자리를 피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대번에 '불효자'라고 징벌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당신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자리를 피한다고 불효자라고 곤장을 쳐 버리는 어머니가 너무 딱했다. 나처럼, 장남과 장녀가 우울증이나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에 희생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나는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아닐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시달릴 짓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수억겁 과거전생이다. 바로 이 불교의 핵심사상인 전생 업을 동원하지 않으면 나의 불행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 업을 풀기 위해서 경남 산청 해동선원의 성수 큰스님과 강원도 원주 성불원의 현각 스님 그리고 틱낫한 스님의 책과 정목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 분들의 자비한 가르침에 의해 나의 어두웠던 과거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로지 불행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바로 그 악다구니가 오히려 내 인생의 폭을 넓히게 해 주었다. 전생에 대한 개념도 잡고 또 인간이 재주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도 얻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불빛이 나를 이끈다. 하나는 성수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는 것도 해탈이다."

두 번째는 온몸이 부서져라 방송치료를 하고 계시는 정목 스님이다.

이 두 분의 뼈저린 사랑에 반드시 나의 어두움을 낱낱이 밝혀서 나보다 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덥혀주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받은 사랑에 반드시 이자를 붙여 이 사회에 환원하리라 다짐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006년 신개발 후불제실시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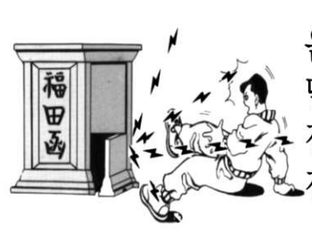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옴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증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불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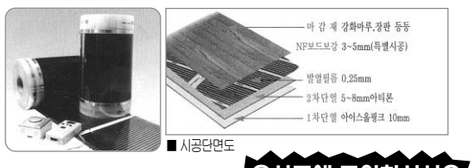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산사엔 색다른 茶가 있다

사진작가 이정애씨에게 듣는 사찰 차

스님들 차 만드는 비법 담아 <산사에서 만든 차> 펴내

우리나라 차문화의 맥을 잇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사찰. 그러나 오늘날 사찰에서 만드는 차는 스님들이나 일부 마니아들을 중심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량생산되는 차와 달리 수행의 방편으로 여겨져 일반인들의 관심과 눈길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사진작가 이정애씨는 최근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스님들의 차 만들기 비법을 사진과 글로 담아 <산사에서 만든 차>(JUNGLEE PUBLICATION)를 펴냈다. 지난 3년간 전국 곳곳의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재한 결과물이다.

20여 년 간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그에게 변화한 고국의 모습은 '문화적 쇼크'를 안겨주었지만 사찰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던 그는 사찰 곳곳에 숨겨진 우리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2년 출간한 사찰음식 소개 영문책자 <Korea Temple & Food> 역시 '우리 것'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3년간 전국 사찰 돌며 촬영
연꽃, 감잎차 등 50여가지 소개
내년 초파일에 영문판 발간

알리자는 뜻에서 펴낸 것이다.

"사찰음식을 취재하다 보니 자연스레 스님들이 매일 마시는 '차'에 눈길이 가게 됐어요. 스님들이 한 잔의 차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찻잎을 따고 뜨거운 불에 덖고 정성스레 갈무리하는 모습이 바로 수행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 사찰의 차를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내보여주기란 쉽지 않을 일. 처음엔 '취재'란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저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돌아오는 걸로 만족하기도 했고, 꽃차를 만들 꽃이 피었단 얘기에 단숨에 달려갔지만 전날 내린 비로 꽃이 다 떨어져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방문한 사찰도 50여 곳이 훌쩍 넘었다. 이번에 펴낸 <산사에서 만든 차>에는 녹차와 발효차를 비롯해 연꽃차 · 국화차 같은 꽃차, 감잎차 · 구기자차 같은 대용차 등 사찰에서 만들어 마시는 50여 가지 차가 담겨 있다.

"이 책은 귀찮게 구는 저를 마다 않고 소중한 비법과 자료를 공개해주신 많은 스님들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자들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에 들춰보며 산사의 정취와 차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차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 온 사찰에서는 차를 만들고 마시는 일 모두 수행의 방편으로 여겼다. 사진은 경남 사천 영봉다원의 원표 스님(앞)이 차를 덖는 모습.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책을 펴내고 싶다는 이씨는 내년 부처님 오신날 즈음에 <산사에서 만든 차>의 영문판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씨가 발품을 팔며 찾아낸 사찰의 다양한 차중 몇가지를 만나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도서출판 Jung Lee

사찰의 다양한 차 만드는 법

■ 효천 스님(함평 끽다치선원)의 '나비황차'



· 갓 딴 찻잎을 소쿠리나 돗자리에 널어 숨을 죽인다.
· 향이 나기 시작하면 부드러워진 찻잎을 보자기에 싸서 잘 비벼준다. 자연온도에 내 두었다 다시 비벼준다. 5번 반복해 차 가운 자연발효를 시킨다.
· 대나무 소쿠리에 보자기를 깔고 찻잎을 담은 후 뚜껑을 덮어 2~3시간 자연발효 시킨다. 50% 이상 발효되면 향이 좋다.
· 뜨거운 방에 널어 말리거나 300℃로 달군 솥에 덖어 발효를 정지시킨다. 마른 찻잎을 보자기에 싸서 발효 작업에 들어간다. 30분~1시간 정도 약한 불에서 덖어 완전히 건조시킨다.

■ 영광 불갑사의 '돈차'



· 단오 전후로 부드러운 찻잎을 채취해 잡티와 큰 잎을 골라낸 후 절구에 찧는다. 어느 정도 곱게 찧어지면 5가지 약재 분말(곽향, 정향, 계피, 감초, 건강)을 넣고 잘 저어주면서 부드러울 정도까지 찧는다.
· 다식판에 비닐을 깔고 차를 조금 떼어 눌러 채운 후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비닐을 들어내 대나무 채반에 담아 놓는다.
· 뜨거운 방에 한지를 깔고 돈차를 널어놓고 한지 한 장을 덮어 말리다가 한번 뒤집어 준다.
· 마실 때는 젓가락으로 차를 집어 불에 살짝 구은 후 우려 마신다.

■ 혜성 스님(강화 백련사)의 '인삼녹차'



· 750g 수삼(6년근)에 물 6배를 붓고 중불에 끓인다. 끓으면 은은한 불에 졸이다 물이 1500cc 정도 되면 다시 6배의 물을 붓고 끓여 졸인다. 엑기스가 100cc가 될 때까지 졸여 식힌다.
· 녹차는 찻잎을 2~3번 덖고 비비는 일반 덖음차 제다법으로 만든다.
· 방에 불을 때고 차를 3일 정도 말린다.
· 1kg의 녹차에 200cc의 수삼 엑기스를 골고루 뿌려 연한 불에 쬔다.
· 방에 불을 때고 놔둔다. 항아리에 넣어 두고 10일에 한번씩 신문지로 싼 석회석을 바꿔주어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승범 스님(사천 다솔사)의 '죽향차'



· 찻잎을 100℃의 솥에 넣어 뒤집어 주어 숨만 죽인다. 꺼내어 진이 찐득찐득할 때까지 비빈다.
· 다시 솥에 넣고 약한 불(70~80℃)에서 덖은 후 꺼내 비빈다. 이렇게 8번을 반복한다. 항아리나 옹기에 넣고 일주일간 숙성시킨다.
· 숙성시킨 찻잎은 대나무통 한 마디에 대나무 잎과 줄기를 함께 넣고 황토를 발라 봉한 후 철판 위에서 굽는다.
· 대통의 차를 꺼내 뜨거운 방에 한지를 깔아 널어놓고 냄새가 빠지지 않도록 한지를 덮어 완전히 말린다.
· 다시 약한 불에서 2~3시간 천천히 덖은 후 식힌다.

■ 굉천 스님 (하동 금선암)의 '청발효차'



· 찻잎을 따 잘 달궈진 무쇠 솥(60℃ 정도)에서 가볍게 덖는다.
· 덖은 찻잎을 꺼내 비빈 후 털어 황토방에 한지를 깔고 널어 건조시킨다.
· 찻잎을 가향(맛내기) 처리한다. 은은한 불에서 2시간 정도 열처리 한다.
· 약 40~50% 정도 발효시킨 차는 끓는 물이나 80℃ 정도 식힌 물에 우려 마실 수 있다.

다사(茶史)연표 연재를 마치며



벌써 일 년이 넘었다. 대부분의 장기간 연재가 쓰는 이에게는 부담스럽게 마련인데 이번 연재가 늘 즐거웠던 것은 역사 속의 차인들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연재를 시작할 때의 집필 의도는 뚜렷했으나 정말 그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일본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일본식 이름 대신 우리 음으로 표기한 것은 중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인물들의 출생연대를 기점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저술이나 활동 연대가 문헌마다 다르거나 불확실하기에 비교적 확실한 출생연대를 기준했다.

광복 후 오늘까지의 부분이 남았으나 후에 시간과 지면 여유가 생길 때, 차에 관련된 사항과 뚜렷한 자국을 남긴 인물들을 골라 사실대로 기술하여 후학들에게 도움을 줄까 한다.

한말(韓末)부터 일제치하의 반세기 동안은 우리 다사상(茶史上) 아주 미약하게 명맥만을 유지한 시기였기에, 일본식 다도가 아무 저항 없이 소위 식자(識者)들에 의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사원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다맥(茶脈)을 이어온 것이 다행스런 일이었다.

다사를 쓰면서 만난 차인들 중에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았다. 그들은 세속적인 명예와 재물이나 부정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신념, 진정한 신앙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궁행(躬行)했다. 충담 이규보 원감선사 김시습 이목 정약용 신위 초의선사 등의 시문과 행적을 대할 때마다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선조들에 비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들은 평생 일관된 지표가 있어서 차를 마시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고 참됨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팽배해진 물질적 풍요 속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차를 이용하고 있지나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항용 우리 차가 음다(飮茶)용이 아니고 행다(行茶)나 품다(品茶) 시험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못 민망스럽다.

오늘의 다계(茶界)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런 현실에 대하여 깊이 고뇌하고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고상한 문화적인 세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먼 훗날 다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 탐욕스런 부와 허명(虛名)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알아야 한다.

차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고상한 것이 아니고, 마시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어떤 단체나 모임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문제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 정신을 그 모임에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런 비뚤어진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나를 정화시키지 못하면 남이나 주변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도로(徒勞)에 불과한 공염불이 되고 만다.

물질적 욕망에 차 마시지 않나 돌아볼때
단체나 모임에서의 위치보다 정신이 중요
우리 옛 차인들 깨달음에 오른 사람들

차야말로 역사가 스며있는 음료다. 자신이 쓰는 다기에도 역사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다력(茶歷)에도 아름다운 자취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선적(禪的) 구도정신의 소산이다. 이른바 명장 아무개가 만든 비싼 다기에 기십만 원짜리의 차를 마신다고 차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난 역사 속의 차인들은 진정 차가 좋아서 그 정신에 젖어 도(道)를 참구(參究)하듯 심오했고, 때로는 우주를 껴안고 공계(空界)를 넘나들며, 일점의 불의(不意)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 같은 그들의 성역(聖域)은 아무리 높은 권력이나 거만의 금력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자아(絶對自我)의 세계였다.

차를 이처럼 높은 정신세계로 고양시킨 예를 나는 아직 다른 나라의 차인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에겐 차가 바로 생활이요, 참선이요, 자기정화의 길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연재에 관심을 가져준 독자 여러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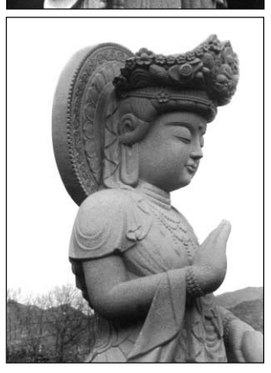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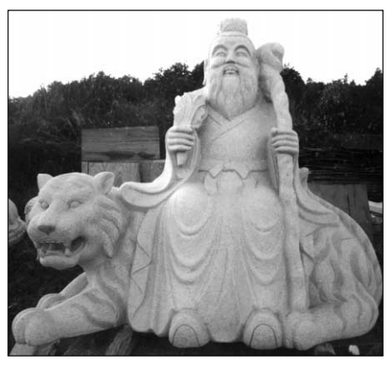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께는 상 · 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아주 자비한 넓은 마음으로 화목하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인간에게도 이 허공에 오고 가는 그 길에도 그 저 모습 없는 모습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세계의 그 많은 생명들, 모습,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항력을 가지고서 밀건 밀고 당길 건 당기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고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공부겠죠. 자력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땅에 붙고요. 붙어서 걸어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니깐 네 가지의 그 재료는 어제도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는 적게 쓰든지 많이 쓰든지 그게 재료라고요. 그 네 가지를 끌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력의 재료를 그냥 모두 수요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서없이 말은 했지만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두서없이 체계 없이 체계를 세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상이며 바로 살림살이입니다. 금방 가만히 앉았다가도 금방 얘기를 듣고선 뛰어나가야 하는 이런 체계 없는 살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는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붙잡아 가는 걸 봐도, 도둑이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 물건 가지고 싣고 가는 사람, 훔치는 사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몰려 가지곤 전부 불잡혀 가뎌군요. 그러니 계 준 사람이나 계 받은 사람이나, 허허허. 그 뜻을 바로 설하는 법설,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땡입니다. 그러나 학설로 이론적으로 방편으로만


그림 · 최주현

항상 중심을 가지고
항상 두루 하면서
자기라는 걸 쑤욱!
빼버리고 사세요

하는 이 오계 설법은 그건 한데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북하면, 그래서 양 무제더러 달마 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는 그냥 약사발을 받았습니까, 네? 세상에 그걸 거짓말로,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벌써 알고 있을 텐데도 거짓말을 못해서 그대로 말을 해 가지곤 약사발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달마 대사는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약사발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온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것이죠. 즉, 살았다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달마 대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약사발을 안겨서 죽여서 갖다 묻은 자리에 신발 한 짝을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자에 신발 한 짝을 꿰서 어깨에 짊어진 채 바로 사신한테 보였습니다. 양 무제가 심부름시킨 사신한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항상 밝고 항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서 보이느라고 말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게 공덕이지 너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너희가 욕심내고 그렇게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공덕이 못된다고 죽어서도 가르치신 것이죠. 얼마나 멋쟁이십니까! 그래서 그 멋쟁이를 비유해서 낚시밥으로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던졌던 거죠.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달마 대사는 왜 턱에 수염이 없느냐?' 뭐 별것 다 붙인 거죠. 그 멋쟁이한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멋쟁이로 삽시다.

우리가 그런 당당하고 참,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인대도 두려울 게 없고 살린대도 뭐 좋을 것이 없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평등을 가지고 항상 두루 하면서 굴리면서 자기라는 걸 쑤욱 빼 버리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 엊그저께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한 몸으로 살면서 이름이 엄마도 되고 또는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고 또는 아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많아서, 이름이 많아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많았을 뿐이지,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았을 뿐이지, 그 이름에다가 믿음을 갖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 요기 놓고 조기 놓고 요기 놓고 저기 놓고 그런데다가 그 이름에다가 놓고 빌고들 여러분은 기복으로 믿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의 이름이 엄마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아내의 이름이 있고 딸의 이름이 있고 며느리의 이름이 있고 형제의 이름이 있고, 아주 쭈욱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믿어라 그럴 겁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쳐서, 그 뜻을 가르치느라고 문수를 해 놓고 보현을 해 놨는데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현은 보현대로 문수는 문수대로 관세음은 관세음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아미타는 아미타대로 미륵은 미륵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수십 년을 가도 아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끌간 데 없이, 죽고 살고도 없이 언제든 이 몸을 벗더라도, 안 벗더라도 그냥 끝간 데 없이 그냥 여러분과 같이 지내렵니다.' 하는 것도 바로 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이 그런 길이었지 뭐 다른 겁니까? 가다 가다 여러분 만나면 둘이 아닌 까닭에 같이 웃게 되면 같이 웃고 울게 되면 같이 울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이렇게 가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되게 한마디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말 하더라도 진실되게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론으로만 알 양으로 빠득하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는 진실되게 행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지, 내가 그래야만이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이름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기복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의 마음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무겁게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딛으면서 진실되게 나가신다면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그렇게 그냥 삽삽하고 얍삽하고 이론이고 그렇게 빌고 그러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라는 그 인가를 받고 이 세상에 나와서 49년을 설했고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한 명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놓고도 항상 설하셨단 말입니다. 잘 때도 설하고 앉아서도 설하고 서서도 설하고 갈 때도 설하고 똥 눌 때도 설하고 먹을 때도 설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분일초도 틈을 안 주고 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선이요, 와선이요, 묵선이요, 또는 좌선이요, 행선이요, 이런 것이 그대로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이름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참 여러분의 그 주장자를 세우고, 주장자가 없다면, 예전에 임제 스님께서 "너희들이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너희들의 주장자를 뺏을 것이로되, 너희들이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만약에 너희 집이 주장자가 비었다면, 주인이 없다면 거미나 모든 벌레들이 전부 그냥 거미줄이 슬고 모두 곰팡이가 나고, 그 속이 빈집이기 때문에 그냥 털구녘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만 중생들이 드나들어도, 코를 통해서 드나들고 구녘 뚫린 데마다 드나들어서 그렇게 집을 망가뜨려도 너희들은 어느 뭐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집이 비었으니까 썩어 들어가도 모르고 쓰러져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병고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인제 끝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받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오늘 들은 것, 여러분이 책 보시고 카세트를 들으시고 이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회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오늘 스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쪽에 있으니까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큰스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여러분한테 내려주실 겁니다.

▲질문자1: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좋은 법문을 주시고 또 항상 멀리 계시지만 제가 저를 찾는 데 좋은 안내자가 항상 되어 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스님께서는 신통력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앉은뱅이를 고쳐 주시고 돈을 좀 벌게 해 주시고, (대중 웃음) 그리고 인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신통력이 자기 주인공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그 신통력을 사용하시는 스님 자신이 어떤 기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여러분한테 나는 신통력이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대중 웃음) 또 신통력을 부린 예도

여러분의 마음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디디면서 나가야!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길잡이로서 때에 따라서 급하면 여러분의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관할 때, 날더러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와서 내가 가르쳐 줄 때에, 길잡이로서 얘기를 해 줬을 때 나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잡이로서의 그 마음을 주인공을 한 찰나에 믿고 진실하게 거기 애원했을 때에 들이 아닌 까닭에 나도 거기 같이, 내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며 마음을 전달함이 없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깃불을 켜는데 전력이 가는 사이 없이 전달돼서 불이 켜지듯이 말입니다. 전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크면 큰 대로 끌어 쓰듯이, 적으면 작은 모터를 돌릴 때 작은 전력이 올 것이고 큰 모터를 돌릴 때는 큰 전력이 올 것입니다. 큰 모터만 해 놨다면 큰 전력이 올 것이고 작은 모터를 달아 놨기 때문에 더 큰 전력을 끌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작은 모터가 작은 모터대로의 전력을 쓰겠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해도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할 때 '스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잡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 바로 자기가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신통력이 있소? (대중 웃음) 신통력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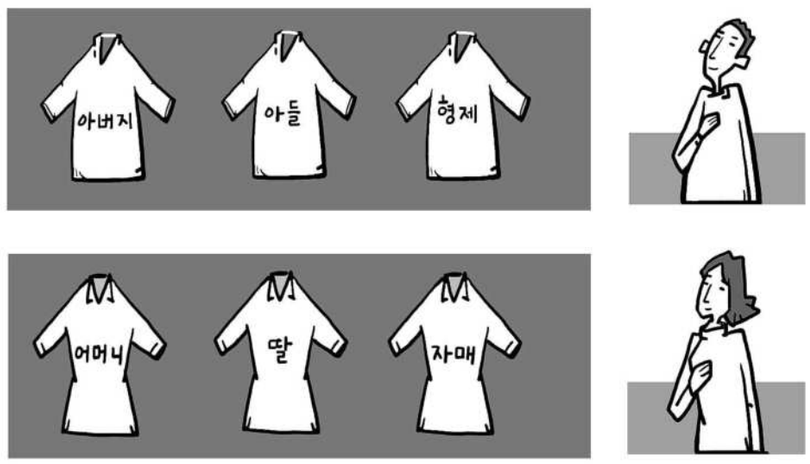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진실되게 행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겠지. 그것을, 바로 신통력을 당신네들이 생활에서 씀씀이를 가지라고, 글리라고, 바로 그것으로써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그 마지막 주문은, 여러분의 주문은 바로 자기 찾는 데의 주문이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바로 순간에 내가 자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뭘 들이래야 뭐 신통력을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는 거지, 자기가 그냥 하는데 무슨 신통력이 거기 붙고 안 붙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통력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언어도 붙지 않고 가고 옴도 없고 전달함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당당한 것은 바로 이 도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이날까지 얘기를 했어도 그걸 못 알아듣나요? 나는 여러분의 길잡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러고도 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들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나라는 거를 빼고 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했다고. 내가 어떤 것 될 때, 여러분이 응할 때에, 여러분이 병이 났다고 할 때에 "스님! 나는 지금 애가 이렇게 아픕니다." 할 때, 그러면 이것저것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분이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선사들이 '무!'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촐나촐나 돌면서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해서 붙이겠습니까? 그러니 '무!' 했던 거죠. 그러고 아무 소리 없이 손 하나 번쩍! 들었던 겁니다. 말없이 하나는 이렇게 했고(手印) 하나는 번쩍 들었어요. 자기 발로 그 땅을 디뎠고 바로 자기 손으로 지붕을 받치고 손으로 이 세상을 굴렸다 이 소립니다. 그랬는데 말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고 또 스님도 신통력이 있고 그렇다고 누가 말을 했던가요?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이 우주천하를 그냥 한 숨에 요리를 해서 탕! 탕! 근기대로 먹여 주셨는데, 그릇대로 담아 줬단 말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해서, 즉 말하자면 비가 오면 골짜기 물이 돼서 도랑물이 돼 가지고 바다로 흘러 가지고 그 바다로 흐르는 물은 핏물 고름물 구정물 맑은 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다로 모여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비가 올 때, 독사가 그 빗물을 먹으면 독사가 되는 것이고, 풀이 먹으면 풀이 되는 것이고, 또 초목들이 먹으면 초목인 것이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인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빗물은 똑같지만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그릇대로 먹여 주는데, 적셔 주고 먹여 주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그게 '신통력이 내게 있다!' 그러고 할 수 있나요? 저 태양이, 지금 내가 태양이 이렇게 신통력이 있다 이러던가요? 오히려 신통력이 있고 신통력이 없고 간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신통력이 있다 없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거니와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이럴 때, 만약에 달마 대사가 사람들 사는 데에 큰 구렁이가 나와서 서리고 있으니 그걸 멀리 끌어다 놔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돼 가지곤 구렁이를 끌고 저 멀리 갖다가 던져 놓고선 다시 그 옷을 벗고 나와 가지곤 자기 옷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자기 옷을 누가 입고 갔더랍니다. 입고 간 놈은 누구고 또 뺏긴 놈은 누구겠습니까? 고건 여러분의 공부를 시키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툼! 즉 말하자면 옷을 벗고 입고 하는 나툼을, 이게 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건 방편 쓴 거지, 달마 대사가 어디가 모자라서 옷을 뺏깁니까? 허허허, 아이구 참 내.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도 달마 대사가 수천수만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로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옷을 뺏깁니까? 도둑놈이 자기 옷을 입고 갔대요. 그런데 도둑놈, 그 옷 입고 간 놈도 그 놈이고 또 그 옷을 입고 간 놈도 그 놈이지만 그 뺏긴 놈도 그 놈이죠. 달마 대사 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썼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저 높은 계단을, 우리 지금 절이 계단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거 쪼금이라도 그러면 계단을 올라온 까닭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계단에 올라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려가는 까닭과 올라오는 까닭이 들이 아니었던 까닭에 나는 그냥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없이 발로 퉁퉁 골랐대요, 옛날에. 이런 말까지 해 줘서 잘못됩는지 또 모르죠. 여러분이 또 알지도 못하고 이론으로만 알아 가지곤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작은 데서부터 잘 여러분이 사는 데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알아보세요. 동쪽 서쪽이 들입니까? 한국에 가니까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인데, 여기 미국에 와 보니깐 동쪽이 또 어딥니까? 하하하. (대중 웃음) 그러니까,

동쪽도 서쪽도 들이 아니며
여자 남자도 들이 아니니라.
높은 산 얕은 산도 들이 아니요
봄 가을도 들이 아니니라.
모두가 들이 아닌 까닭에 모두 같이
근본은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도 마저 없느니라.

이 뜻을, 이 깊은 뜻을 잘 아시려면 그 작업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공, 허공과 같은 주인공의 그 그릇은 비어서 항상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다시 생산이 돼서 쑥쑥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 작업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또 자가발전소도 되겠죠.

질문 또 하실 게 있습니까? 내가 너무 혼자만 말을 해 가지고, 왜 나만 말을 하게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래, 여기 스님네들도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잡이로서는 훌륭한 스님네들입니다. 거짓되게 이론으로서 학술적으로서 사는 스님네들 백 명을 갖다 놔도, 천 명을 갖다 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생활로서 따진다면 내 동생 갈고 내 아들 갈고, 내 딸 갈고, 이렇게 아주 자비한 넓은 마음으로서 항상, 내 언니 갈고 또 내 형 갈고….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높이 올린다면 또 들이 되고 거북하고 너무 내린다면 또 거북하고 또 안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가야만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다음에 또 2월 그믐께나 또 다시 3월달에나 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날 때까지 여기서 이 스님네들의 인도를 받아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는 충전될 전력이, 광력이, 자력이 풍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9일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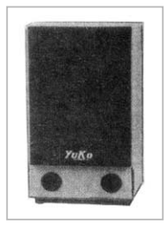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출장녹음

지난 10년간 국내외 5백여 사찰과 스님들의 독경과 법문을 제작하여 온 명실공히 전국 유일의 불음전문 녹음실
스님! 이제 녹음을 하기위해 스튜디오를 찾아 먼길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계신 곳에서 완벽하게 무잡음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하여 마음에 쏙 들게 테이프나 시디(CD)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리녹음실에서 녹음하신 스님과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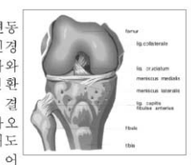
선학원 남산스님, 조계종 서암스님, 법연원 조연스님, 통도사 정암스님, 법화종 구암스님, 문화재 해강스님, 문화재 청공스님, 문화재 진하스님, 문화재 혜철스님, 혜각스님, 혜관스님, 자명스님, 원명스님, 자원스님, 동광스님, 성문스님, 범진스님, 지우스님, 종욱스님, 구화산 인덕스님, 지홍스님, 일홍스님, 월곡스님, 상욱스님, 혜성스님, 덕일스님, 효재스님, 현장녹음 : 불교방송, 일본장생탄광천도재, 티벳한, 티벳불교문화교협, 몽고한, 몽불교문화교협, 민속문화대축전 등 .... 이하생략

佛音專門 달리녹음실
0502-555-1040
080-115-8008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서화당인생풀이 V2.2 (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기능, 출력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 "특허받은 「사주천하」 LG산전 납품실적"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 약선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식생활제공
인장성명학 사주풀이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항렬자, 돌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예금주 : 농 협 453050-55-002174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창
☎ 050-2266-3366 / H·P 010-3366-3366

실용우선? 건강먼저…

연말연시 선물 불교상품 어때요

"연말연시 선물 계획 있습니까?" 12월 13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천707명을 대상으로 '연말 및 새해에 선물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0.3%가 '있다'고 답했다.

비용은 5~10만원(29.7%), 3~5만원(20.4%), 10~15만원(16.1%) 등의 순. 종류로는 상품권(28.9%), 음식·건강관련 상품(18.7%), 의류 및 잡화(17.9%), 현금(14.9%)이라고 답했다. 선물을 할 대상으로는 부모님(49.2%)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사(10.6%), 배우자(9.4%), 연인(9.1%)의 순이었다.

불자라면 달마도? 염주? 어떤 선물이 좋을까? 불교문화상품전문 마하몰은 연꽃 핸드폰걸이, 범주 스님 친필 달마도 액자, 설선법회 법문 세트 등을 적극 추천했다.









위로부터 연실 합장주, 고당 스님 선서화 백자도자기, 반야심경 큐빅 목걸이, 희담석 찜질팩.

대부분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상품권을 가장 무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상품권을 준비할까 고민하면서도 자칫 성의 없어 보일까봐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선물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실용성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또한 상대방의 취향을 잘 살펴야 한다. 실속파인지, 낭만파인지.

실속파에게는 꽃다발 장신구 등 일회성 선물상품은 지양한다. 이들에게는 불교다이어리북, <반야심경> 음반집, 설선법회 법문 세트 등 실생활 속 신행활동에 걸맞는 선물이 어울린다.

실속파에겐 불교다이어리북, 법문 세트 제격
성불도놀이판으로 자녀들에게 심신 안정을
건강위한 달마 액자, 희담석 찜질팩 인기 꾸준

낭만파에게는 커다란 꽃다발이 감동을 선사한다. 낭만파들은 이 세상에 하나 뿐인 아이템의 선물, 수공예품 등을 선호한다. <반야심경> 큐빅목걸이, 청자칠보투각향로 등 섬세하면서도 고아한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다.

자녀들에게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 청소년들에게는 전통적으로 MP3플레이어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소형 가전제품이 인기다. 컴퓨터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의 휴식을 위해서는 부처님일대기가 그려진 이미지큐브를 선물해보자. 성불도놀이판처럼 전통놀이로 유혹하는 것도 좋다.

연인이나 부부에게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 관심을 끈다. 범주 스님의 선기(禪氣)가 가득 담긴 황금달마도를 나눠 갖고 깨끗해진 기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연실 차걸이, 달마도액자도 관심을 모으는 선물의 하나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안전운전을 위해 네비게이션도 인기를 자랑한다. 피부와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남성들에게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부관리권이나 마사지선물권을 주는 것도 인기 있다.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부동의 선물 아이템.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도 선물목록 상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추세다.

부모님과 친지 어른들에게는 심장안정 숯 목걸이, 반야심경 최고급 손목시계 등이 인기다. 건강을 위해 강력한 원적외선이 나오는 희담석 찜질팩 세트 등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불교문화상품전문 마하몰(www.mahamall.co.kr)은 각종 불교문화상품을 선보이는 외에 겨울맞이 난방기도 특판 중이다. 실속파에게는 마하몰이 추천하는 각종 난방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건으로 전하는 선물에 식상하다면 국악과 뮤지컬 콘서트에 관심을 가져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황병기 선생의 무대와 뮤지컬 한 편 값으로 여러 뮤지컬을 맛볼 수 있는 뮤지컬 콘서트는 깊어가는 겨울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다.

12월 30일 국악계의 거장,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이 선보이는 '황병기의 음악세계'가 클래식 전용홀인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심연의 발견'이라는 부제로 꾸미는 이번 공연에서는 대표작 '침향무' '비단길'을 비롯해 민요풍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춘설'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02)6303-1919

23~25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공연될 '패션 오브 더 레인'은 출연진만 6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콘서트다. 요즘 뮤지컬계 '캐스팅 1순위'인 오만석과 '아이다'의 라다메스로 열연중인 이석준을 비롯해 유준상, 노현희, 엄기준, 서범석, 강효성, 소냐 등이 번갈아 출연한다.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렌트' 등 흥행 뮤지컬의 대표곡과 팝송 '웬 아이 드림' '오버 더 레인보우' 등 27곡의 노래를 선보인다. (02)764-7859.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연말연시 연령대별 "이런 선물 어때요?"

	일반인	불자
10대	미니 젤리 카메라, 블룸 립밤, 캉골 코듀로이 모자, 1000피스 명화 퍼즐, 즉석카메라, 애완견	연꽃 핸드폰걸이,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부처님일대기(이미지큐브), 헤드폰 알람시계, 성불도놀이판
20대	디자인 명함케이스, 커프스 세트, 고글, 벨벳 재킷, 스니커즈, 각종 강의 티켓, DV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연실 합장주, 불교다이어리북, 반야심경 음반집, 황금달마 핸드폰 줄, 에밀레 용걸이 종
30대	아기용품, 가방, 넥타이핀, 벨트세트, 칼슘 등 영양제, 장갑, 캠코더, 전자사전, 속옷 세트, 시계, 귀걸이, 올리브유	반야심경 큐빅 목걸이, 연실 차걸이, 관음응신도 축광액자, 희담석 찜질팩 셋트, 범주 스님 달마도 순금카드 4종 세트, 도형감투, 달마도 액자
40대~50대	해외여행권, 배우자를 위한 꽃바구니, 체형보정 속옷, 공기청정기, 가습기, 안마의자, 보험, 와인 냉장고, 쓰레기 처리기, 만보계, 대관령 양떼목장 여행상품, 장갑	범주 스님 친필 달마도 액자, 고당 스님 선서화 백자 도자기, 반야심경 최고급 손목시계,
60대 이상	글루코사민 등 관절용 건강보조식품, 쑥 좌훈기, 보청기, 전복 특산품, 로봇 청소기, 맞춤 카시트, 웰빙 조명 분수대, 마사지 이용권	청자칠보투각향로, 심장안정 숯 목걸이, 설선법회 법문 세트

불교선물 추천=마하몰 (02)2004-8219



티베트의학 연재를 마치며

갈 길은 아직도 먼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티베트의학의 온전한 본모습을 다 둘러볼 요량이었으나 일 년의 시한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지금까지는 티베트의학의 총론과 기본이론 그리고 진단법 일부까지 한 절반 쯤 둘러본 셈이다. 나머지는 티베트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맥진과 다양한 치료법 그리고 약물학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남은 부분까지 마저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 적지 않지만 이쯤해서 연재를 일단 마감하기로 한다. 귀한 지면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소한 티베트의학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현대불교'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울러 딱딱한 내용 큰 불평 없이 함께 하여준 독자 여러분께도 같은 뜨거운 마음 전합니다. 남은 부분도 기회가 되는대로 준비하여 티베트의학의 전모를 마저 다 살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연재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티베트의학에서 의사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지 의업관(醫業觀)을 음미해 보겠다.

의사는 지혜 · 수행 겸비한 자로
'사부의전' 정통, 통찰력 탁월하며
병자를 자비심으로 다뤄야 한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역시 의사일 것이다. <사부의전>의 둘째 권 <논설의전>의 제31장은 의사가 갖춰야 할 소양과 품행 및 덕목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의사는 <사부의전>에 정통하여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력이 탁월해야 한다. 또 병자를 다룰 때 어머니처럼 한결같은 자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참된 자비심이 없으면 뛰어난 명의라도 치료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티베트에서는 의사를 찾을 때 자기와 연대가 잘 맞는지 예언가에게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병자는 자기와 가장 연대(緣帶)가 잘 맞고 모든 면에서 어울리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환자가 다른 두 의사로부터 똑같은 처방을 받아도 그 효험은 각기 다를 수 있는 법이다.

의사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덕 높은 영적 구루와 스승 의료기구 그리고 동료 의사 모두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병자의 피고름이나 분비물 피오줌 그리고 배설물이나 구토물을 보고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속마음이라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신뢰감을 환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의사는 또한 모든 의약품과 의서를 소원 성취수단의 보물로 여기고 여법한 의식에 따라 부처님의 축원을 빌어야 한다.

의사는 체력 언어 및 정신적으로 비상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체력적 인내심을 통해 의약품을 만들고 언어적 인내심으로 환자를 위로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편하게 하고 인내심으로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빈틈없이 치료해야 한다.

의사는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하고 꾸준히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의사는 성품이 온화하고 친근감을 주며 빈부귀천을 떠나 만인을 차별 없이 치료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병의 원인과 본질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최적의 치료법이 무엇인지도 훤히 알아야 한다.

티베트의서에 의사는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업을 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수술을 할 때는 자식의 목숨을 구해내듯 대담하게 시술을 감행해야 한다.

의사라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다. 그 질이 최상급 특급 및 보통급으로 다르다. 최상급 의사는 약사불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녔다. 특급 의사는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강렬한 자비심을 지녔다. 보통급 의사는 스승과의 연계 하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다.

의사는 약재가 부족한 경우가 없도록 부지런히 넉넉한 양을 채취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병이 치료 가능한지 아닌지의 예후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도 의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 육바라밀을 마땅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한 의업을 쌓음으로써 생기는 당장의 단기적 과(果)는 정신적인 행복감 물질적 부 그리고 세속적 명예이다. 그러나 그에 비할 바 없이 더 소중한 장기적 결과는 환자를 지극 정성으로 치료하는 것만으로 현생에 깨달음을 이룬다는 점이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한글 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①~⑩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 편안하고 시원한 편집, 알기 쉬운 용어해설!

대강백 무비 스님과 경북대 조현춘 교수가 불자들에게 사랑 받는 주요 경전들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한글 세대가 독송하기 좋게 경전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서도 쉽고 유려한 우리말로 옮겨 놓았으며, 기존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문 독송용 원문을 함께 싣고 있다.

① 지장경 218쪽/ 7,000원
② 관음경 94쪽/ 5,500원
③ 불유교경 108쪽/ 6,000원
④ 백팔대참회문 136쪽/ 5,500원
⑤ 금강경 194쪽/ 6,500원
⑥ 아미타경 90쪽/ 5,000원
⑦ 보현행원품 190쪽/ 6,500원
⑧ 예불문(천수경) 122쪽/ 5,500원
⑨ 일반법회 120쪽/ 5,500원
⑩ 매일법회 96쪽/ 5,000원

부처님 명호를 독송하거나
모시면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

각종 경전에서 일만 부처님 명호를 뽑아내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함을 물론, 부처님처럼 모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월운 스님 감수/1,008쪽/사륙배판
금장 가죽양장/45,000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제 부처님의 이름을 선남자 선여인들이 받아 지녀 읽고 또 외운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 안온히 모든 어려움을 멀리 여의고 모든 허물이 소멸될 것이요 미래에 분명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불설불명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청송빌딩 3층 출판부 02)926-8361 총판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구불구불 소나무들 '백제역사' 전하는듯…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1) 부소산 고란사



고란사는 금북정맥의 거대한 바위 위에 앉은 절이다. 절벽단애 아래 가파른 경사지에다 높은 석축을 쌓고 법당과 요사채를 앉혔다.



고란초는 산의 그늘진 바위틈이나 절벽에 붙어 자라는 양치식물이다.



궁녀사 낙우송(落羽松)은 새의 깃털처럼 생긴 잎이 가을이면 붉게 단풍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높이 106m의 부소산은 부여의 진산으로, 백제의 궁성(宮城)이 자리했던 산이다. 고란사는 바로 산성의 북쪽 기슭에 자리한 고찰이다.

부소산성의 정문인 사비문을 들어서면 소나무 숲이 눈 맛 그윽하게 펼쳐져 있다. 소나무는 활엽수를 제치고 부소산의 우점종으로 군림하고 있다. '부소(扶蘇)'라는 옛 지명도 '소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부소산은 예나 지금이나 '소나무산'이다.

부소산은 토양이 비교적 척박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을주민들이 땔감으로 낙엽을 긁어내다보니 낙엽이 썩어 부엽토가 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와 관광객들의 무제한 출입 등으로 인해 토양이 많이 산성화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전 지역에 살포하여 생명의 숲으로 되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토성 주변으로 수 천 년을 살아온 우리 소나무들이 우뚝우뚝 자라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 소나무는 군창터 주변에도 흩어져 있고, 영일루와 반월루 주변으로도 그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금강송처럼 강직한 맛은 없으나, 유려한 곡선미는 일품이다.

'백제송(百濟松)'이라 이름 붙여도 결코 억지스럽지 않다. 언젠가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자루 아래 안부(鞍部)에서 궁녀사로 내려가는 길은 찾는 이가 드물어 호젓하기까지 하다. 궁녀사 지역은 부소산에서 가장 습윤(濕潤)한 지역이다. 몇 종류 습지식물을 비롯해 갯버들, 왕버들, 물오리나무 등 물을 좋아하는 목본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다.

궁녀사 담벽에 낙우송(落羽松)이 우뚝하다. 새의 깃털처럼 생긴 잎이 가을이면 붉게 단풍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북미에서 수입되어 조경목으로 심어졌으나, 일조량이 많고 습윤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중사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활엽수림은 소나무 단순림보다 곤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조류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다. 청딱다구리는 전체적으로 회색을 띤 녹색이다. 주로 활엽수 숲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이따금 지상에 내려앉아 개미를 잡아먹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과일도 파먹는다.

낙화암과 고란사가 자리한 부소산의 북사면은 경사가 급해서 계단길 오른쪽으로 여기저기 암맥이 드러나 있다. 부소산 지질은 화강암과 편마암이 대종을 이룬다. 그 암맥은 백마강에 접해서 천길 낭떠러지 단애로 끊어진다. 백화정은 바로 그 암맥단애 위에 앉은 정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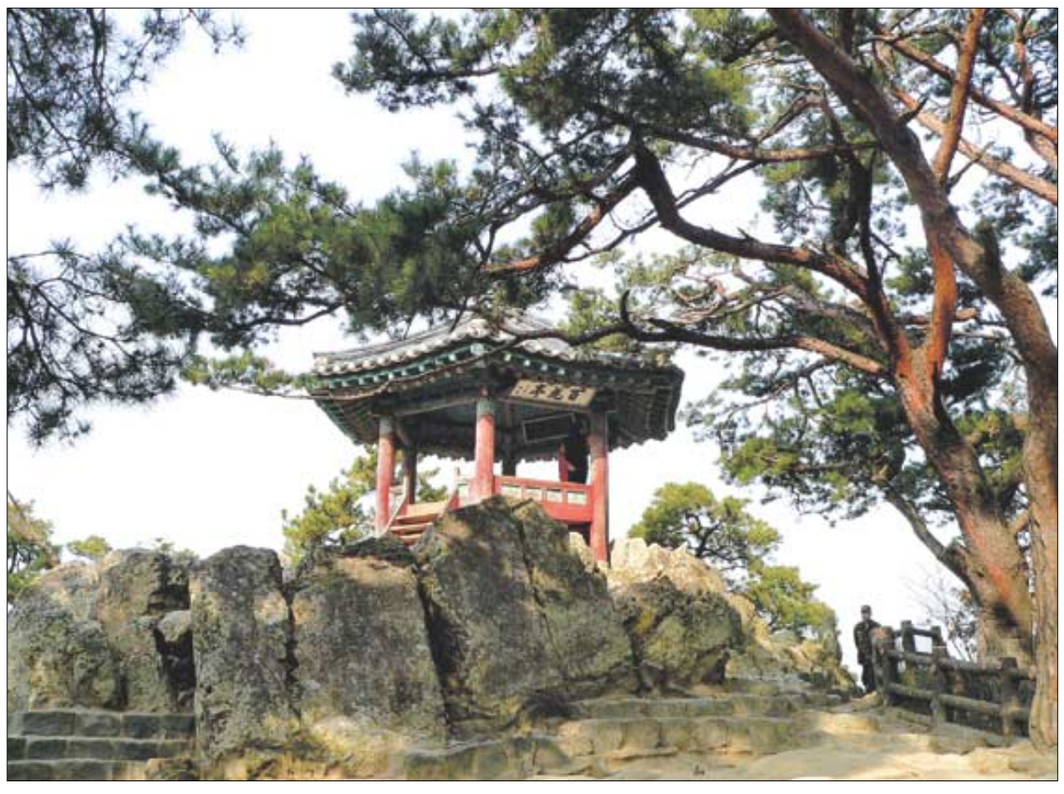
낙화암 백화정과 고란사 일대는 경사가 급해서 유효토심이 거의 없고, 토양도 척박해서 식생이 빈약하다. 간신히 뿌리내린 소나무들도 뿌리가 앙상하게 땅 위로 드러나 발뿌리에 채인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백화정 늙은 소나무는 오늘도 건재하다. 척박한 토양 탓에 키는 높이 자라지 못했지만, 줄기가 굵고 가지가 무성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백화정에서 고란사까지는 200m 돌계단이다. 이 구간의 경관보호목으로는 소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팽나무 등이 있고, 주변에 때죽나무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고란사는 백제 아신왕 때 혜인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 때 들어와 백제 망국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원찰로 자리매김 했을 것이다. 발굴 유물들도 모두가 그 무렵의 것이다.

고란사는 금북정맥의 거대한 바위 위에 앉은 절이다. 절벽단애 아래 가파른 경사지에다 높은 석축을 쌓고 법당과 요사채를 앉혔다. 그러나, 좌향이 북방이라 햇볕이 들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하다. 일조량이 적은 관계로 주변의 식생도 빈약하고,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출입으로 고즈넉한 산사의 맛도 기대하기 어렵다.



백화정은 화강암과 편마암이 대종을 이룬 암맥단 위에 앉은 정자다.

궁녀사 주변 습윤 지역으로 갯버들 물오리나무 등 목본 많아
절벽단애 아래 세워진 고란사 일조량 적어 어둡고 식생 빈약
토양산성화 등 이유 고란초 자생 못해…식생복원 관심 가져야

고란사의 법당 건물은 백마강 건너 은산면에 있던 숭각사(崇覺寺) 건물을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숭각사의 폐사와 관련해 이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부여 내산면 녹산마을에 수령이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숭각사 주지스님이 불사를 하기 위해 그 은행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랐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주인을 잃은 숭각사는 폐사되고, 남아있던 건물 일부가 고란사로 옮겨져 지금의 법당이 되었다고 한다.

그 법당 앞마당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녹산마을 은행나무의 후손인지는 알 바 없다. 그러나, 시멘트로 마당을 덮는 바람에 은행나무의 생육환경이 좋지 못한 편이다. 은행나무에 대한 대접이 아쉽다.

법당 뒤로 돌아가면 유명한 고란초가 있다. 고란초는 산의 그늘진 바위틈이나 절벽에 붙어 자라는 양치식물이다. 뿌리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마디마디에서 길쭉한 잎이 달린다. 잎은 한 장 짜리 홑잎으로 진한 초록색을 띤다. 가죽처럼 빳빳하고 광택이 있는 잎에는 양쪽에 좁쌀만한 돌기가 돋아있다.

아쉽게도 고란사에서 고란초가 자취를 감춘 지는 꽤 오래된다. 현재 유리곽 안에다 인공적으로 몇 포기 고란초를 키우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선다.

고란초가 사라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고란초가 뿌리박고 있는 바위들이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조금씩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면서 고란초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나빠진 대기와 수질과 토양의 산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백마강 주변의 주장산, 천정대, 맞바위, 파진산, 성흥산 암벽에 고란초가 자라고 있는만큼, 고란사와 당국은 고란사 고란초에 대한 식생복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절벽에는 구실사리 군락이 솜이불처럼 두툼하게 바위를 뒤덮고 있다. 구실사리는 분류학상 부처손속(屬 Sellaginella)에 속하는 상록성 양치류 식물이다.

철사처럼 단단한 원줄기가 절벽에 붙어서 뻗고, 줄기에서 곁가지들이 번져서 방석 또는 솜이불 모양을 이룬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마음의 빛이 되는 음악"
불교 음악의 세계로…
세계의 불교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신비로운 경험!
일요일 저녁 환상적인 불교음악의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5분부터 7시까지
해맑은 미소의 법현 스님과 함께 하세요.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광주 89.7 Mhz/청주 96.7 Mhz/춘천 100.1 Mhz/안동97.7 Mhz /포항 105.5 Mhz